

사회과학논문집

제 19 호

2007년 3월

재일본조선사회과학자협회



사회과학논문집

제 19 호

차 례

사회과학논문집 제19호 발간에 즈음하여.....	2
----------------------------	---

활동소식

김정일장군님의 탄신절기념 사회과학자들의 연구토론회.....	4
《선군정치에 관한 해외동포토론회》 심양에서 진행.....	5
선군으로 빛나는 조국과 민족의 존엄.....	6
통일세미너 《6.15시대 통일조국을 전망한다》.....	11
통일조국의 징표와 통일조국건설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12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 80돏기념 중앙연구토론회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 80돏기념 중앙연구토론회 기조보고.....	21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이 주체위업에서 가지는 역사적의의에 대하여.....	26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선군혁명령도로 강성대국건설에서 이룩하신 빛나는 업적에 대하여.....	30

논문

선군정치와 《정군관계론》의 새 지평.....	39
조선동해호칭문제와 일본쇄국.....	53
주체적재일조선인운동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조련 제17차중앙위원회에 대한 연구.....	60
랑만주의의 계보로부터 고찰하는 일본의 탐미적국어관 연구.....	74

학습자료

2007년 공동사설의 전반적특징과 올해의 위치.....	88
--------------------------------	----

사회과학논문집 제19호 발간에 즈음하여

다 아시는바와 같이 올해 공동사설에서는 지난해 2006년을 사회주의강성대국의 려명이 밝아온 위대한 승리의 해, 격동의 해로 규정한데 기초하여 새해 2007년을 선군조선의 새로운 번영의 년대가 펼쳐지는 위대한 변혁의 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말하여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공동사설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부강조국건설구상을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새로운 력사적단계, 사회주의경제강국과 통일강성조국건설, 자주화된 새 세계건설을 실현하는 새로운 년대기에 들어섰다는것을 선포하신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100년전만 하여도 외세에 의하여 망국의 운명을 강요당하던 우리 나라가, 10여년전만 하여도 조기붕괴설이 나도는 속에서 단독으로 간고한 시련을 헤쳐나가야 했던 우리 나라가 오늘 사회주의강성대국의 일대전성기를 열어나갈 새로운 년대기에 들어서게 된것은 진정 기적적인 일입니다.

이 기적적인 현실은 하늘이 준 우연이 아니라 선군이 가져다준 필연이고 선군혁명의 길에 강성대국건설도 조국통일도 있고 우리의 찬란한 미래와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가 있다는것은 력사가 확증한 귀중한 진리입니다.

지난 해는 또한 반공화국, 반총련의 광풍이 휘몰아치는 엄혹한 정세를 뚫고 중등교육실시 60돐, 조선대학교창립 50돐을 동포사회의 커다란 경사로 경축함으로써 재일조선인운동을 대를 이어 줄기차게 전진시켜나갈수 있는 귀중한 밑천을 마련한 뜻깊은 해였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논문집에는 지난해 재일조선인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으로 끌어올리며 사협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한 활동내용이 담겨져있으며 주체의 사회과학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한 회원들의 탐구의 열정이 깃들어있습니다.

사협은 앞으로 논문집의 질적수준을 한층 높이는 동시에 작년에 개설한 사협홈페이지의 확충과 사협북크레트의 정기적인 출판을 위하여 계속 노력할것입니다.

저는 사회과학논문집 발간에 즈음하여 사협사업발전을 위하여 물심량면으로 아낌없는 방조를 보내주신 여러분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리는바입니다.

조선은 물론 인류의 력사가 크게 바뀌어져나가는 말그대로 력사적전환기에 들어선 오늘 우리 사회과학자들이 지닌 임무와 역할은 전례없이 높아지고있습

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눈은 현실을 보지만 신념은 미래를 본다》고 가르치시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재일조선사회과학자들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주체의 눈, 신념의 눈을 가지고 시대의 선각자, 새 시대 개척의 선봉대로서의 책임과 임무를 다해나가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협은 올해 가지게될 사협 제17차대회를 계기로 학술연구조직, 학술운동단체, 학술교류센터로서의 면모를 더잘 갖추어 나갈것이며 시대와 민족앞에 지닌 영예로운 사명을 다해나갈것입니다.

재일본조선사회과학자협회

중앙상임리사회

회장 김화효

在日本朝鮮商工連合会 常 任 理 事 会 〒 110-0005 東京都台東区上野 7-2-6 電話 03 (3844) 4111	在日本朝鮮東京都商工会 常 任 理 事 会 〒 110-0005 東京都台東区上野 7-2-6 電話 03 (3842) 6711
在日本朝鮮愛知県商工会 常 任 理 事 会 〒 464-0858 名古屋市千種区千種 3-6-5 電話 052 (733) 0801	在日本朝鮮人教育会 中 央 常 任 理 事 会 〒 112-8603 東京都文京区白山 4-33-14 電話 03 (3815) 8168

김정일장군님의 탄신절기념 사회과학자들의 연구토론회

선군령도의 위대성을 론증, 령도구상 등 리론실천적으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탄신절기념 재일본조선사회과학자들의 연구토론회가 2월 8일 조선대학교 기념관강당에서 진행되었다.

재일본조선사회과학자협회 김화효회장, 조선대학교 장병태학장, 교직원, 연구원생들과 단체, 사업체 일군들 100여명이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김화효회장이 인사를 하였다.

그는 김정일장군님의 력사적인 중국방문으로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키기 위한 전면적공세가 장엄하게 개시된 벅찬 환경속에서 연구토론회를 가지게 되었다고 말하고 총련에 있어서 반세기년대기우에 새로운 업적을 창조해나가는 새 력사의 출발의 해로 되는 올해 사회과학자들이 장군님의 구상과 의도를 깊이 새기고 자기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어 현시기 장군님의 령도구상을 깊이 파악하고 주체의 정세관을 확고히 세우는데서 초점으로 되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대하여 3명의 사회과학자들이 연구토론을 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갈데 대하여》 토론한 사협중앙 부회장인 조대 문학력사학부 리영수학부장은 장군님의 선군정치에 대한 새로운 연구성과들을 발표하였다.

또한 《우리 식 사회주의의 전성기를 열어놓을데 대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전략적구상에 대하여》 토론한 사협중앙 부회장인 조선대학교 정치경제학부 한동성부학부장은 새해 공동사설에 담겨진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구상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선반도정세의 새로운 국면에 대하여》 토론한 사협중앙 리사인 재일조선인력사연구소 태석신연구주임은 장군님의 선군령도로 펼쳐지는 올해의 정세전망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였다.

연구토론회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전개하시는 선군정치의 정당성과 그 생활력을 리론실천적으로 론증하는데서 의의깊은 마당이 되었다.

《선군정치에 관한 해외동포토론회》 심양에서 진행

조국평화를 위한 정치방식에 지지와 공감

《선군정치에 관한 해외동포토론회》가 10월 14일 중국 심양에 있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토론회에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양영동의장, 심양주재 조선령사관 총령사, 김화효 재일본조선사회과학자협회회장 일행, 전순영 재캐나다조선인련합회고문, 김현환 재미동포전국련합회 수석부회장, 김경렬 재로조선공민중앙협회 부회장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 온 동포조직대표들과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본부 일군들, 심양시에 사는 조선공민들 60여명이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양영동의장이 《필승불패의 선군의 기치와 우리 민족의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기조보고를 하였으며 이어 김화효회장, 김현환수석부회장, 전순영고문, 김경렬부회장, 문태환위원장이 각각 토론을 하였다.

보고와 토론들에서는 김정일장군님께서 펼쳐가시는 선군정치가 제국주의의 강권과 전횡이 지배하는 오늘의 복잡한 정세하에서 사회주의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빛내이는 정의의 보검이며 필승의 기치라는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그리고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보장하며 조국통일을 앞당기게 하는 위대한 혁명전략이라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또한 위대한 선군령장을 높이 모시고 세계최강의 인민군대를 가지고있는 선군조국과 더불어 사는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에 대하여 긍지높이 말하면서 오늘날 조선민족의 녀을 지닌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건 숭고한 애국심을 발휘하여 선군정치의 진리성과 정당성, 생활력을 깊이 인식하고 선군정치를 신념으로 받들어 열렬한 선군정치의 신봉자, 옹호자, 지지자가 될데 대하여 호소하였다.

그리고 제국주의와 단독으로 맞서 정의와 진리를 지켜가며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을 벌려나가는 선군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그 위력을 강화하는데 특색있는 기여를 해나가자고 호소하였다.

선군으로 빛나는 조국과 민족의 존엄

김화호

오늘 해외동포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선군정치의 진리성, 정당성을 정확히 인식하는것은 공화국의 미싸일발사와 련이어 진행된 핵시험으로 조성된 긴장한 환경속에서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에 넘쳐 해외교포운동을 보다 힘차게 벌려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봅니다.

다 아시다싶이 선군정치는 단순히 군사만을 강화하는 정치가 아니라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우고 그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 전반을 밀고나가는 정치방식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1990년대 중엽이후 전면적으로 펼치신 선군정치는 그 실천을 통하여 진리성과 정당성이 남김없이 과시되고 확증되었으며 오늘 21세기의 자주로선, 불패의 기치로 확고히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선군정치의 진리성, 정당성, 선군정치가 안아온 세기적변혁을 크게 다섯가지로 정리해볼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인민군대를 본보기로 하여 우리 공화국의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우리 조국을 정치강국의 위치에 확고히 올려세운것입니다.

오늘의 일심단결은 수령, 당, 군대, 인민이 하나의 사상과 신념, 동지적사랑과 의리에 기초한 운명공동체를 이루고있으며 온 사회에 군민일치의 기풍이 차넘치는 선군혁명동지대오로 다져졌다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공화국이 사회주의를 고수하는 근본담보, 핵무기보다도 위력한 필승의 무기를 가진 강국으로 되었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선군정치의 진리성, 정당성은 둘째로, 우리 조국을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그 어떤 외세의 간섭과 침략책동도 단매에 짓부셔버릴수 있는 군사적억제력을 가진 무적필승의 군사강국으로 다져놓은것입니다.

오늘 조국의 군사적억제력은 유일초대국을 자처하는 미국도 어찌지 못하는 세계의 유일한 군사강국으로 되게하였으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나아가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담보하는 기본요인으로 되고있습니다.

선군정치의 진리성, 정당성은 셋째로, 사회주의시장의 붕괴와 련이은 자연재해,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연합세력의 끈질긴 경제봉쇄와 제재를 물리치고 강성대국건설의 튼튼한 물질적토대를 갖추게 한것입니다.

《고난의 행군》, 사회주의강행군으로 전대미문의 경제적난국을 타개한 공화국은 1998년부터 경제성장의 길에 들어섰으며 오늘은 상승적발전의 궤도에 확고히 올라서서 가까운 앞날에 경제강국을 건설할 휘황한 전망을 열어놓았습니다.

선군정치^의 진리성, 정당성은 넷째로,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마련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의 밑에 전진하는 조국통일의 새 역사를 창조한것입니다.

선군정치는 통일문제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저지파탄시키고 민족의 자주권을 전국적범위에서 확립함으로써 자주통일을 성취할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또한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에게 민족자주의식과 자존심, 민족적공지와 영예감을 높여줌으로써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주체적력량편성에서도 획기적인 전변을 가져왔습니다.

선군정치^의 진리성, 정당성은 다섯째로, 미국의 일국지배주의를 밀뿌리로부터 뒤흔들고 위기에 처하였던 사회주의운동을 구원함으로써 세계자주화위업을 힘있게 고무추동한것입니다.

선군정치로 하여 세계정치구도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났으며 선군의 기치 밑에 반제자주의 길로 나아가는것은 현시대의 확고한 추세로 되었습니다.

1990년대초 랭전체계가 무너진 결과 세계정치구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제국주의연합세력을 다른 한편으로 하고 조선을 중심으로 하는 반제자주력량을 한편으로 하는 새로운 대결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반제자주력량은 심히 약화되었고 미국에 의한 체제전복과 군사공격의 위협에 직면하여 맥을 추지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미국의 패권적지위가 약화되는 반면 9월중순 쿠바에서 개최된 제14차 뽀렐불가담정상회의를 통하여 알수 있듯이 반제자주의 리념^의 밑에 련합전선이 형성됨으로써 세계자주화위업의 실현에 유리하게 력량관계가 역전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선군정치^의 위력으로 미국을 련속타격하는 공화국의 모습을 통하여 반미적인 나라, 제3세계나라들에서 미국에 대한 공포심이 사라지고 승리의 신심에 넘치게 된 결과입니다.

일석이조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선군정치는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오조, 일석다조의 현실을 안아왔다고 할수 있습니다.

참으로 선군정치가 안아온 이 모든 사실은 선군정치야말로 만능의 보검이라

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세계를 움직이는 중심이 미국이나 주변의 대국들이 아니라 동방의 조선 우리 조국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군정치로 승리하는 선군시대에 살고있으며 선군정치의 전면적승리를 이룩하는 력사적인 전환기에 서있습니다.

다시말하여 현시기 우리는 선군으로 강성대국을 건설하고 조국의 통일도 실현하며 모든 조선민족이 궁지와 자부심에 넘쳐 행복하게 살 시대, 제국주의아성의 마지막숨통을 끊어버리고 세계의 자주화위업을 실현하는 문어귀에 서있습니다.

선군정치의 전면적승리를 이룩하는가 어떤가 하는데서 초점은 조미대결전에서 승리하는것입니다.

오늘 조미관계는 단순히 조미간의 문제가 아니라 공화국의 경제강국건설, 북남관계의 발전, 조일관계의 정상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영, 세계자주화의 발전, 재일동포들을 포함한 5백만 해외동포들의 운명 등 모든 문제와 밀접한 련관을 가지고있을 뿐아니라 이 모든 문제를 푸는 초점이며 기본고리로 되고있습니다.

오늘 조미대결전의 총결산의 전망에 대하여 굳은 확신을 가지는것은 선군정치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진다는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우리 해외동포들이 미래에 대한 확신에 넘쳐 해외교포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갈수 있게 하는가 어떤가를 좌우하는 매우 심중한 문제입니다.

조미대결전의 총결산의 전망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데서 중요한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미대결전의 력사를 통하여 파악하는것이며 다른 하나는 현시기 미국의 대조선정책이 어떻게 파탄되고있는가를 파악하는것입니다.

첫째문제는 6.25조선전쟁, 《푸에블로》호 나포사건, 《이씨-121》간첩비행기격추사건, 1990년대 전반기의 조미핵대결 등에서 공화국이 늘 승리해왔다는 사실을 통하여 명백하게 알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둘째문제에 대해서만 보겠습니다.

부쉬정권의 대조선정책은 첫째로 핵선제공격전략이며 둘째로 경제봉쇄전략이며 셋째로 국제적고립전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미국의 핵선제공격전략은 작년 2월10일의 핵무기보유선언과 이번의 핵시험

을 통하여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미국의 경제봉쇄전략은 경제강국건설성과와 조로, 조중, 북남간의 경제협력을 통하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국제적고립화전략은 세계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빨럭불가담 나라들과의 련계가 강화되고 우리 나라가 반제자주의 보루로 떠받들리게 됨으로써 전면적파탄에 직면하고있습니다.

사실상 작년 제4차 6자회담에서 채택된 9.19공동성명을 통하여 조미대결전은 공화국의 승리로 결판났다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부쉬행정부의 악랄한 책동으로 일시적난관이 조성되고있으나 그것은 부쉬정권의 마지막발악에 지나지않으며 공화국의 승리는 확정적입니다.

그러면 미국과의 마지막 결전을 벌리고있는 오늘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선군정치의 진리성, 정당성을 깊이 파악함으로써 경애하는 장군님만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을 깊이 간직하는것입니다.

신념은 열정을 낳고 열정은 창조를 낳는 법입니다. 지금은 총포성없는 전쟁, 신념의 전쟁을 하고있는것 만큼 신념이 황금보다 귀중한것입니다.

둘째로, 북과 남, 해외의 자주통일세력이 굳게 뭉쳐 6.15공동선언을 고수하고 반전평화, 자주통일을 위한 애족애국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리는것입니다.

지금 남조선당국자들은 북핵불용원칙을 내세우면서 미국과 공조하는 길로 기울어지고있으며 6.15공동선언은 위기에 부딪치고있습니다.

친미보수세력은 《핵을 가진 북과는 공존할수 없다》고 떠들면서 6.15공동선언을 폐기하려는 음모를 꾸미고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끝까지 6.15의 기치를 고수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하여 전민족적투쟁을 벌려나가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모든 지혜와 힘을 다하여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물리치고 자주적평화통일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기 위하여 투쟁해야할 때입니다.

여러분 !

지금 미국과 결탁한 아베일본정부는 우리 총련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광란적인 탄압을 감행하고있습니다.

아베정권은 과거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들썩운 죄행에 대하여 사죄하기는 커녕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고 또다시 아시아의 맹주가 될것을 꿈꾸면서 미국의 돌격대, 하수인역할을 하고있습니다.

솔직히 말하여 일본사회에 형성된 민족배타, 조선민족멸시분위기는 참으로 숨막힐 지경입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에 대한 폭행사건, 치마저고리칼질사건과 같은 용서못할 만행이 계속 벌어지고있으며 얼마전에는 우익깡패놈이 손가락을 베고 협박편지를 총련중앙에 보내오는것과 같은 소름이 끼치는 만행까지 감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우리에게는 조국이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신다는 신념을 안고 온갖 난관을 곳곳이 이겨내고있습니다.

10월1일에는 오사카의 한복판에 공화국기발을 높이 휘날리며 중등교육실시 60돐 대축제를 3만2천여명의 동포들이 모여 열렬히 축하하였습니다.

그날 오사카에 울려 퍼진 만세소리는 우리가 최후승리의 날에 보다 힘차게 부를 만세소리의 전주곡이었습니다.

끝으로 저는 민족의 운명이 경각에 이른 엄중한 시기 자기가 지닌 역사적사명과 임무를 깊이 간직하고 선군정치의 전면적승리를 위하여 한몸바쳐 투쟁해나갈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아울러 저는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께서 각지에 돌아가시여 6.15의 기치밑에 조국통일의 결정적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하여 헌신분투하실것을 굳게 확신하면서 토론을 끝마치겠습니다. (사협중앙 회장)

医療法人 同友会

共和病院

大阪市生野区勝山南 4-16-10
TEL 06(6718)2221/FAX 06(6718)2229

老人保護施設

ハーモニ一共和

TEL 06(6715)0001/FAX 06(6715)0002

訪問看護ステーション

きょうわ

共和病院 北2階 TEL/FAX 06(6718)2511

〈조선대학교창립 50돛기념 대축제〉

통일세미너 《6.15시대 통일조국을 전망한다》

민족자주리념으로 마음의 통일을

11월 5일 제1연구당 1313교실에서는 조선대학교창립 50돛기념 통일세미너 《6.15시대 통일조국을 전망한다》가 진행되었다.

세미너에서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공동대표인 명진스님이 축사를 하였다.

그는 식민지 지배를 당한 나라의 땅에서 학교를 세우고 민족교육을 실시하여 2세, 3세들을 키워온데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계속 대학이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조선대학교 정치경제학부 한동성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너에서는 조선대학교 문학력사학부 리영수교수와 현대사연구소 소장인 국민대학 정창현겸임교수가 발언하였다.

통일조국의 징표와 통일조국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발언한 리영수교수는 재일동포들에게 있어서 통일조국건설은 생활과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이라면서 민족자주의 리념아래 6.15공동선언을 실천하는것이 통일의 실현방도라고 강조하였다.

정창현소장은 《6.15시대 남북관계의 발전과 통일전망》이란 제마로 발언하였다.

그는 작년에 진행된 평양에서의 6.15통일대축전과 서울에서의 8.15민족대축전 행사에 대하여 언급하고 민간과 정부가 함께 하는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장애와 갈등을 넘고 남북, 해외가 함께 《할수 있는 일부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또한 《우리 민족끼리의 날》, 《6.15공동선언발표 기념일》을 제정하고 함께 기념함으로써 남북화해협력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남북연합기구, 통일기구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한다면서 《제도의 통일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마음의 통일을 이룩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동성교수는 《새 반세기 시작의 뜻깊은 자리에 북측대표가 일본정부의 제재조치에 의하여 참석 못했다.》면서 《55, 60돛에는 북측도 참가하여 통일의 전망이 아니라 통일조국의 발전에 대하여 토론하는 세미너를 가지게 되리라고 확신한다.》고 말하였다.

통일조국의 징표와 통일조국건설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리영수

△앞말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저는 조선대학교창립 50돐을 기념하여 가지게 된 통일세미나에서 명진스님과 정창현, 정영철선생님들과 자리를 같이 하게 되는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일본정부의 제재조치로 북측대표들이 이자리에 참석못한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며 하루빨리 우리가 그 어떤 제약도 없이 자유로히 만날수 있는 날을 앞당겨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저는 세가지 문제를 놓고 발언하자고 합니다.

1.통일조국건설은 재일동포들의 생활과 운명을 좌우할 근본문제

다 아시는바와 같이 통일조국건설은 조선반도에 태를 묻고 살아온 전체 조선민족에게 있어서 말그대로 역사적, 세기적인 념원입니다.

분단력사 60년을 넘어선 오늘,그리고 6.15자주통일시대에 들어선후 6년이 지난 오늘 그 념원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조국의 분단과 더불어 이역땅 일본에서 갇은 천대와 멸시속에 살아온 재일동포들에게 있어서 통일조국건설은 재일동포들의 생활,운명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있으며 그 전도를 좌우할 근본문제라고 할수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각도에서 이야기할수 있지만 시간상관계로 저는 그를 실증해주는 몇가지 역사적사실에 대하여서만 지적하려고 합니다.

통일조국건설이 재일동포들의 운명을 좌우할 근본문제라고 하는것은 해방후 조국의 분단과 더불어 조선반도에 형성된 《랭전》체제하에서 재일동포들의 운명이 무참히 룡락당한 사실을 통하여 잘 알수있습니다.

재일동포들은 일제의 식민지통치의 후파로 일본에서 살게된 동포들과 그 후손들이며 엄연히 조선민족의 구성원입니다.

그러므로 재일동포들은 비록 남의 나라 땅에서 살고있지만 민족의 운명,본국의 사정과 무관할수 없습니다.

특히 재일동포들은 조선분단의 유관국인 일본에서 사는것만큼 모든 생활에서 보다 큰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그것은 해방후 재일동포들이 강요당한 처지를 통하여 알수있습니다.

미국은 해방후 부당하게도 조선을 련합국, 중립국, 적국의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특수지위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미국은 이에 기초하여 1945년 11월 1일에 발표한 대일초기기본지령에서 재일조선인을 군사적으로 허용되는 한 《해방국민》으로 취급하지만 군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적국민》으로 취급한다고 하였으며 실질적으로는 재일동포들을 자기 의도에 따라 《치안대상》으로 보고 일본을 시켜 전면적인 탄압을 감행하였습니다.

일본정부는 미국의 정책에 추종하여 재일동포들을 저들의 비위에 맞게 어느 때는 《일본인》, 어느 때는 《외국인》으로 취급하면서 일본사회로부터 배제, 차별, 추방하는 동시에 관리, 동화하는 정책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재일동포들은 미일당국에 의하여 《해방국민》대우를 받지못하고 철저한 무권리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일본정부는 1951년 9월에 체결된 샌프랜시스코강화조약을 계기로 재일조선인의 역사적특수성을 무시하고 재일동포들을 《완전한 외국인》으로 규정하여 출입국관리령과 외국인등록법을 2대기둥으로 한 법적, 행정적인 관리체제를 수립하였습니다.

동시에 재일조선인을 《외국인》이라고 하여 사회보장을 비롯한 제반 권리에서 철저히 배제하였습니다.

특히 1965년의 《한일 협정》의 체결과 《법적지위협정》은 재일동포사회를 2분화하는데서 결정적인 작용을 하였습니다.

일본정부는 《한일 협정》에서 《대한민국》을 조선반도에 있어서의 《유일 합법정부》로 인정, 명기함으로써 미국이 해방후 《유엔》의 이름으로 감행해온 조선분단정책을 전면적으로 승인하고 공화국적대시정책을 취한다는것을 《법》적으로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법적지위협정》에 따라 《한국국적》소유자를 《우대》하는 한편 《조선국적》소유자는 정치적으로 식별하고 철저한 차별과 탄압을 가하는데로 나갔으며 이로 인하여 재일동포사회의 민족분열은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일본정부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미국의 조선반도전쟁씨나리오에 따라 《전쟁을 할수 있는 보통국가》건설을 국책으로 내세워 반공화국, 반총

런, 반조선인책동을 광란적으로 벌리었으며 그 결과 일본사회에는 극단한 민족배타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재일조선인으로 하여금 《귀화》와 《동화》에로 추동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995년 이후 년간귀화자수는 1만명대를 넘어서게 되었으며 재일동포사회는 그 존재자체가 뒤흔들리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몇가지 사실을 통하여서도 조국의 분단과 조선반도에 형성된 《랭전》이 재일동포들의 생활과 운명에 미친 커다란 영향, 후과에 대하여 충분히 가늠할수 있을것입니다.

재일동포들이 놓인 오늘의 처지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이역땅에서도 조선민족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당당하게 살아나가자면 조선반도에 남아 있는 《랭전》 질서를 완전히 퇴치하고 통일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이렇듯 재일동포들에게 있어서 통일조국의 건설은 《념원》이나 《소원》이라는 말로는 다 표현할수 없으며 말그대로 죽는가 사는가하는 《운명문제》로 되고있습니다.

2.통일조국의 징표와 그 실현방도

이 문제는 북과 남, 해외에서 아직 일정에 오르지 않고있으며 6.15공동선언 제2항에서 북과 남이 서로의 통일방안에서 공통성을 인정하고 평화적통일을 지향하기로 합의의 보기는 하였으나 그 이상 논의가 심화되지 않고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점에서 통일조국, 통일국가의 징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하기가 힘든 문제입니다.

이로부터 저는 이 문제를 논하는데서 출발적전제로 되는 통일철학에 대하여 그리고 그에 기초하여 통일조국의 본질적내용과 실현방도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하려고 합니다.

1)통일철학

통일철학이란 사상과 제도를 넘어서서 전 민족이 공감하고 연대할수 있는 리념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로서 통일조국을 논하는데서 출발적전제로 됩니다.

그것은 통일철학이 없으면 민족적단합을 이룩할수 없으며 통일정책도 나올

수 없고 민족통일의 원칙과 방도도 합의할수 없기때문입니다.

한양대학 리영희명예교수는 《통일철학이 없으면 통일정책도 없다》는 글에서 《남한에는 통일정책이 없다고 생각한다. 통일철학이 없기때문에 정책이 나올수 없다》고 지적하였는데 그러면 우리가 정립하여야 할 통일철학이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민족자주의 리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민족자주의 리념은 민족의 운명의 주인은 민족자신이며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어 모든 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풀어나가는 태도와 립장으로 일관된 리념입니다.

민족자주의 리념은 특정한 계급의 요구와 지향을 반영한 리념, 다시말하여 사회주의사상도 자본주의사상도 아닌 전 민족의 요구와 지향을 집대성한 애국 애국의 리념이라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민족자주의 리념이 통일철학으로 정립되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민족통일의 본의와 관련 됩니다.

우리 나라 통일문제의 본의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하며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없애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단합을 실현하는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민족통일의 본의로부터 출발하여 통일철학은 민족공동의 요구이며 지향인 민족자주리념을 근본원리로 하여야 하는것입니다.

그것은 둘째로, 민족의 운명개척, 민족번영의 기본담보이기때문입니다.

민족의 운명개척, 민족번영의 주인은 민족자신이며 그 원동력은 민족자주정신에 있습니다.

민족의 운명과 번영은 타민족과의 관계에서 온갖 예속과 구속을 반대하고 자기 민족의 자주적요구를 민족발전의 근본목표로 내세우고 실현해나갈 때에만 개척될수 있습니다.

만약 민족이 자주정신을 잃고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에 포로되면 온갖 민족적자존심은 다 없어지고 외세에 의존하게 되며 대국주의자들의 손아귀에서 민족의 운명이 희롱당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 민족사의 귀중한 교훈입니다.

2)통일조국의 징표

6.15공동선언에서 북남이 합의한대로 오늘 시점에서의 통일은 《한 민족 한

국가, 두 제도 두정부》에 기초한 통일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외교권과 군사권을 북과 남의 두정부가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낮은 단계의 통일을 말합니다.

한 민족 두 국가로부터 한 민족 한 련방국가로 넘어간 시점에서 통일은 실현되었다고 보는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를 넘두에 두면서 저는 민족자주의 리념에 기초하여 통일조국의 본질적내용에 대하여 어떻게 볼수있는가에 대하여서만 언급하자고 합니다.

통일조국이란 첫째로, 그 어떤 외세의 지배와 예속도 허용하지 않은 자주적이며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강국이라야 한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외세의 지배와 예속을 허용하지 않은것은 민족자주의 리념을 구현하기 위한 근본요구이며 민족의 구성원들의 운명을 수호하는 통일국가로서의 본연의 요구입니다.

또한 그러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국가형태, 성격은 자주적이며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나라로 존재하는데 있습니다.

※재일동포들의 견지에서 말한다면 《치마저고리칼질사건》을 비롯하여 우리 아이들에 대한 폭행과 탄압이 있어도 외교적마찰을 초래한다느니 뭐니 하면서 눈치나 보면서 항의성명 하나 내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조국이란 둘째로, 민족구성원들의 공동의 요구와 지향을 원만히 해결하는 정치, 경제, 군사, 문화적담보를 그췄히 갖춘 범민족통일강국이라야 한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통일국가는 그 어떤 계급이나 계층의 요구와 리익을 대표하고 실현하는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두 제도, 두 정부를 그대로 두고 각당, 각파, 각계각층의 모든 민족구성원들의 요구와 지향을 대표하고 실현하여야 합니다.

또한 통일국가가 민족구성원들의 공영, 공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나라의 국력이 강해야 합니다.

이로부터 통일국가는 응당 강한 국력을 갖춘 범민족통일국가로 되여야 합니다. 이 두가지가 통일조국의 가장 본질적인 징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3)통일조국의 실현방도

통일조국의 실현방도는 한마디로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고수하고 그를 실행하는데 있습니다.

6.15공동선언이 통일조국건설의 실현방도로 되는것은 첫째로, 공동선언에 통일조국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인 민족공동의 리념문제,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 그것을 실현할 구체적인 실행지침들이 다 명시되어있기때문입니다.

공동선언에서는 우선, 조국통일을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는 문제를 뚜렷이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민족자주의 리념, 원칙을 규정한것으로서 나라의 통일과 통일조국의 룡성번영을 위한 투쟁의 근본지침을 마련한것입니다.

공동선언에서는 다음으로, 민족공동의 목표를 조국통일에 두고 북과 남이 서로의 통일방안에서 공통성을 인정하고 평화적통일을 지향하기로 합의보았다는것을 명기하였습니다.

이는 북과 남의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의 공존에 기초한 통일방식, 조국통일을 위한 공동의 설계도를 가지고 확신성있게 통일에로 나아갈수 있는 튼튼한 초석을 마련한것입니다.

공동선언에서는 또한,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을 리해하고 신뢰를 두터이하는 민족적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의 실천적문제들을 합의보았다는것을 명기하였습니다.

이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의 본질적내용을 이루는 민족대단결을 이룩하여 북남이 대결로부터 화해에로, 분렬로부터 단합과 통일번영에로 나아갈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준것입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6.15공동선언을 나라의 통일문제를 민족의 자주적지향과 요구에 맞게 성과적으로 해결해나갈수 있는 원칙과 방안, 구체적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준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라고 하는것입니다.

6.15공동선언이 통일조국건설의 실현방도로 되는것은 둘째로, 지난 6년간의 력사가 실증해준 귀중한 진리이기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서는 다음 발표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기때문에 더이상 이야기 하지않겠습니다.

3. 통일조국건설에서 당면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

6.15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지난 6년간의 투쟁을 통하여 북남관계는 획기적발전을 가져왔으며 전체 조선민족에게 통일에 대한 확신과 새로운 신심을 안겨주었습니다.

동시에 우리 민족의 념원과 기대에 맞게 통일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민족

적과제도 더욱 뚜렷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앞에 나선 민족적과제는 첫째로, 미국의 지배와 간섭, 방해책동을 저지파탄시키는것입니다.

미국은 조선분단의 직접적당사자이며 해방후 오늘까지 일관하게 우리 민족의 통일요구를 외면하고 방해해왔습니다.

최근시기만 하여도 공화국의 직접대화요구를 거부하고 대북적대정책을 추구하여 조선반도정세를 전쟁접경으로 몰아왔습니다.

특히 이번 공화국의 핵시험과 관련하여 미국은 로무현정권에 압력을 가하여 안보리결의에 기초한 경제제재, 군사충돌에로 이어지는 PSI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규약)에 참여할것을 강박하고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조선반도정세는 전쟁과 평화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으며 6.15 공동선언실천은 커다란 난관에 봉착하고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미국의 지배와 간섭, 대북적대시정책의 변경이 없이는 통일조국건설이 어렵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최근 조선반도 핵사태와 조미간의 문제를 바라보는 여러 시각들이 나오는속에서 《공화국의 최대관심사는 자체 체제유지에 있다》는 견해가 많이 제기되고있습니다.

공화국에서는 조미간의 문제를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지 않고있습니다.

공화국에서는 조미관계의 근본적전환은 우선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키고 우리 민족끼리 조국통일을 실현하며 통일조국을 건설하는데서 결정적국면을 열어놓는 문제로 보고있습니다.

통일문제는 어디까지나 민족내부의 문제이며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어 서로 힘을 합쳐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우리 조국의 통일이 국제적성격을 띤다고 하여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허용한다면 민족통일은 영원히 실현될수 없을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미대결은 곧 우리 민족 대 외세 즉 미국과의 대결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조미간의 문제를 지난날 큰 나라의 희생물로, 열등민족으로 깔뵌을 당한 치욕의 역사를 끝장내는 민족적문제로 보고있기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미국이 추구하는 일국지배와 패권주의를 무너뜨리고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확고한 담보와 전망을 열어놓는 문제로 보고있습니다.

오늘 국제정치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강대국들의 강권과 전횡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하여 세계도처에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 생존권이 무참히 유린당하고 전쟁과 재난이 들쭉거려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낡은 국제질서를 바로잡고 지배와 예측, 압력과 간섭이 없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자주적이고 평등하게, 그리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계를 건설하는데서 기본고리는 미국의 일국지배, 패권주의를 무너뜨리는데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조미대결전의 총결산을 이룩하는 문제는 단순히 《북의 체제유지》의 요구가 아니라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와 통일조국을 실현하는 전민족적인 요구인 동시에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확고한 담보와 전망을 열어놓기 위한 요구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나선 민족적과제는 둘째로,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자주통일세력의 단합을 더욱 강화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안아오기 위한 반미반전평화수호투쟁을 힘차게 벌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다시 민족의 운명이 강대국에 의해 룡락당하는가 어떤가 하는 력사의 갈림길, 사실상 전쟁상황과 다름이 없는 극한점에 서 있습니다.

조미대결전이 총결산단계에 이른것처럼 자주통일세력과 반통일세력간의 대결도 결정적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중요한것은 우선 민족공조를 더욱 확고한 민족사의 흐름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 시점에서 민족공조와 《한미동맹》은 량립될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한미동맹》이 예측적인 동맹으로부터 민족내부문제에 간섭을 안하는 동맹,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민족통일에 기여하는 동맹관계로 전환된다면 아예 반대할 리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력사적경험은 《한미동맹》이 언제나 민족공조와 대치되어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측정부가 민족공조와 《한미동맹》을 균형적으로 조룰한다고 하였지만 자기의 국익을 최우선시하는 미국의 압력에 의하여 국가적자존심과 자주권마저 유린당하였으며 민족공조는 언제나 2차, 3차로 밀리우고 오늘은 동족상쟁의 위기상황에까지 치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미동맹》을 기축으로 하여 민족공조를 도모한다는것이 얼마나 허황한 일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탁이나 청탁을 한다고 미국이 우리 말을 들어줍니까?

이제는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우리 민족이 민족공조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민족공조를 기축으로 하여 《한미동맹》을 조물하는 단계에 넘어가야 할때입니다.

다음으로 6.15의 기치를 굳건히 고수하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적통일을 안아오기 위한 반미반전평화수호투쟁을 힘차게 벌리는것입니다.

오늘 조성된 정세는 올해 6월에 광주에서 진행된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민족통일대회에서 채택된 《해내외 동포들에게 보내는 공동호소문》에서 지적한것처럼 비상한 각오로 자주통일의 종착역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분단 61년의 력사속에 우리 민족의 가슴마다에 맺힌 원한과 저주는 얼마이며 통일제단에 뿌린 우리 민족의 피와 땀은 또한 얼마이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치욕의 력사를 되풀이 할수는 없습니다.

통일조국을 건설하는것은 현시대가 우리에게 맡겨준 민족적의무입니다.

그가 조선민족이고 민족의 운명을 우려하고 통일을 원한다면 그 어디에 살고 무슨 일을 하든 6.15의 기치밑에 굳게 단합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적통일을 안아오기 위한 반미반전평화수호투쟁에 떨쳐나서야 할것입니다.

저는 그 길이 민족통일과 민족번영의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하며 오늘의 통일세미나가 그를 위한 뜻깊은 마당이 되리라는것은 굳게 믿으면서 저의 발표를 이만하겠습니다. (사협중앙 부회장, 조선대학교 교수)



パーラー営業の機器・設備をトータルにサポートする

大都販売株式会社

ハートで創る、ハードです。

本社〒110-0015 東京都台東区東上野 1-1-14

TEL 03-5688-2111(代) FAX 03-5688-2110

札幌 TEL011-812-3111(代)
青森 TEL0177-36-4177(代)
盛岡 TEL019-647-6662(代)
秋田 TEL018-884-1411(代)
仙台 TEL022-239-6077(代)
新潟 TEL025-247-4411(代)
郡山 TEL024-921-5400(代)
水戸 TEL029-228-1261(代)

さいたま TEL048-642-3171(代)
高崎 TEL027-326-3283(代)
千葉 TEL047-379-5911(代)
東京 TEL03-3800-2110(代)
西東京 TEL03-3302-2812(代)
横浜 TEL045-664-4561(代)
松本 TEL0263-33-1114(代)
静岡 TEL054-288-0750(代)

名古屋 TEL052-482-9211(代)
金沢 TEL076-262-5111(代)
京都 TEL075-645-2225(代)
大阪 TEL06-6385-2225(代)
南大阪 TEL0724-41-3255(代)
神戸 TEL078-231-2227(代)
岡山 TEL086-222-0001(代)
広島 TEL082-261-2227(代)

山口 TEL083-972-2332(代)
米子 TEL0859-33-0003(代)
松山 TEL089-947-2311(代)
福岡 TEL092-413-2001(代)
鹿児島 TEL099-220-2221(代)
沖縄 TEL098-891-1311(代)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 80돐기념 중앙연구토론회 기조보고

김화효

오늘 우리들은 20세기를 대표하는 가장 걸출한 사상리론가, 탁월한 정치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우리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을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신 무한한 민족적공지와 날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력사적인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 80돐을 뜻깊게 맞이하게 됩니다.

이날을 기념하여 가지게 된 오늘의 연구토론회의 목적은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께서 주체혁명위업을 개척하고 계승완성하는 성스러운 길에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되새기며 《E. C》의 결성으로부터 개척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깊이 인식함으로써 주체혁명위업, 종련애국위업의 중국적승리를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갈 새로운 결심을 다지는데 있습니다.

오늘 연구토론회에서는 3명의 사회과학자들이 《〈E. C〉의 결성이 주체위업에서 가지는 력사적의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선군혁명명도로 강성대국건설에서 이룩하신 빛나는 업적에 대하여》, 《선군정치는 세계자주화위업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필승의 기치》라는 제목으로 각각 토론을 하게됩니다.

저는 오늘 보고에서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 가운데서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이 차지하는 특출한 위치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주체의 기치, 선군의 기치, 일심단결의 기치를 빛나게 계승하여 펼치신 선군정치와 그 과정에 이룩하신 불멸의 선군령도업적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하려고 합니다.

1.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 이룩하신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이 차지하는 특출한 위치에 대하여

다 아시는바와 같이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 주체사상의 창시자, 주체혁명위업의 개척자이시고 사회주의조선의 시조로서 그 어느 위인도 이룩할수 없었던 불멸의 혁명업적을 이룩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주석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가운데서도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은 특출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일반적으로 혁명을 이끌어나가는 수령의 령도의 위대성은 어떻게 혁명을 시작하고 혁명위업을 개척하는가 하는데 의하여 중요하게 규정되게 됩니다.

혁명의 올바른 출발점에는 수령의 혁명사상과 령도방식의 독창성과 위대성이 집약되어있으며 혁명의 전과정을 승리로 이끌어내갈수 있는 근본담보가 담겨지게 됩니다.

경애하는 주석님의 혁명활동의 출발점인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에는 바로 이 모든 문제가 담겨져있습니다.

그것은 《E. C》가 맑스-레닌주의연구소조나 종래의 혁명조직들과는 다른 새형의 혁명조직이라는 사실을 통하여 알수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우리가 1926년에 조직한 타도제국주의동맹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승리로 이끌어내기 위한 전위조직이였으며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참다운 공산주의혁명조직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직의 성격은 그 조직의 지도리념과 목적,구성과 활동원칙에 의해 규정되게 됩니다.

경애하는 주석님께서 결성하신 타도제국주의동맹은 반제,독립,자주를 지도리념으로 하고 일제의 타도와 조선의 해방과 독립의 실현,조선과 나아가서 세계의 사회주의,공산주의건설을 목적으로 내세웠습니다.

또한 사대주의,종파주의에 오염되지 않은 새 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을 망라하고 자주성의 원칙,총대중시,군사선행의 원칙을 활동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이로부터 타도제국주의동맹은 우선 자주성의 원칙,총대중시,군사선행의 원칙에 따라 조선혁명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이끌어나가는 혁명의 전위조직,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참다운 공산주의혁명조직으로서의 성격을 띠게 되었습니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은 다음으로 새 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수령을 유일중심으로 하여 사상의지적으로 동지적으로 굳게 뭉친 새 형의 정치적생명체,사회정치적집단으로서의 성격을 띠게 되었습니다.

《E. C》는 이러한 성격으로부터 주체혁명위업의 시원,조선로동당과 혁명전통의 시원,주체의 선군사상의 시원,주체사회주의의 원형으로 된 혁명조직이라는 데 다른 조직들과 구별되는 특출한 지위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E. C》가 그런 성격을 띠게 된것은 바로 《E. C》가

경애하는 주석님의 혁명사상과 령도방식을 구현하기 위한 혁명조직이라는것과 관련됩니다.

경애하는 주석님의 혁명사상은 혁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판단하며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데 대한 사상이며 경애하는 주석님의 령도방식은 총대중시, 군사선행의 원칙을 구현하여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는 선군혁명령도방식 그리고 혁명사상과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하여 혁명의 주체를 마련하고 그를 추동력으로 하여 혁명을 밀고나가는 일심단결의 혁명령도방식입니다.

이로부터 경애하는 주석님께서 개척하신 조선혁명은 주체의 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 일심단결의 위업으로서의 고유한 특성과 필승불패의 담보를 가진 혁명위업으로 된것입니다.

조선혁명은 바로 이러한 특성으로부터 지난 80성상 백전백승의 역사를 수놓아올수 있었으며 오늘 조국은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 선군조선, 반제자주위업의 보루로서 그 위용을 온 세상에 떨치고있는것입니다.

참으로 경애하는 주석님께서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신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80년의 역사는 《E. C》가 내세운 반제자주의 기치, 선군혁명의 기치, 일심단결의 기치의 정당성과 진리성, 불패의 생활력을 확증해주고있으며 《E. C》의 리념을 구현한 우리 식 사회주의가 인민대중의 자주적리념과 리상을 꽃피워주는 가장 우월하고 전도양양한 사회주의라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은 경애하는 주석님께서 이룩하신 다른 모든 혁명업적의 출발점, 시원으로 되는 업적으로서의 특출한 위치를 차지하며 조선혁명의 개척기에 이렇듯 위대한 업적을 이룩하신 바로 여기에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위인상이 있는것입니다.

2.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펼치신 선군정치와 그 과정에 이룩하신 불멸의 령도업적에 대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경애하는 주석님께서 높이 추켜드신 주체의 기치, 선군의 기치, 일심단결의 기치를 빛나게 계승하시여 1990년대중엽이후 선군정치를 전면적으로 펼치시고 그 과정에 세기에 빛날 선군령도업적을 이룩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선군령도업적은 첫째로, 인민군대를 본보기로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새로운 높은 단계으로 올려세우심으로써 공화국을 정치강국으로 만드신 것이며 둘째로, 나라의 군사적억제력을 튼튼히 마련하심으로써 공화국을 무적필승의 군사강국으로 만드신 것이며 셋째로, 조성된 난국을 뚫고 경제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적계기, 새로운 단계를 열어놓으신 것이며 넷째로,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마련하시고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전진하는 조국통일의 새 역사를 창조하신 것이며 다섯째로, 제국주의연합세력의 반공화국책동을 제압하시고 세계자주화위업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신 것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선군정치를 펼치시여 겹쳐드는 온갖 난관을 맞받아 헤치시면서 이룩하신 업적들은 곧 선군정치의 진리성과 정당성, 그 거대한 생활력을 력력히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그 진리성과 정당성, 불패의 생활력으로 하여 현시기 선군정치는 제국주의의 온갖 지배와 예속, 침략과 전쟁책동을 짓부시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견결히 옹호하고 실현해나갈수 있게 하는 새 세기의 자주로선, 백전백승의 기치로 확고히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주체의 선군사상, 선군정치로 새 세기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신것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시대와 혁명, 세계의 자주화위업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역사적공적으로 됩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습니다.

《내가 최근 한 10년동안 일하면서 얻은 결론은 군대를 강화하고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을 튼튼히 다지면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이며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굳게 믿고 맞서나가면 그 어떤 강적도 꺾어든다는것입니다. 승리는 언제나 우리의것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선군이자 자주이고 존엄이며 승리입니다.

혁명의 개척기로부터 주체의 기치, 선군의 기치, 일심단결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그 길로만 줄다름쳐온것이 천만번 정당하였으며 앞으로도 주체의 기치, 선군의 기치, 일심단결의 기치밑에서만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이 담보된다는것, 이것이 조선혁명의 장구한 역사가 남긴 역사적교훈입니다.

《E. C》의 결성으로부터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은 21세기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로 새로운 발전단계, 선군시대에 들어섰으며 오늘 우리는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결정적승리를 이룩하는 역사적전환기

에 서있습니다.

오늘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최후승리를 앞당기는 기본담보, 열쇠는 경애하는 주석님의 한생이 어려웠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생결단의 신념과 의지가 맥박치고있는 선군정치를 높이 받들고 철저히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전체 총련일군들이 선군혁명총진군을 다그치고 있는 조국인민들과 사상과 보조를 맞추어 난관과 시련의 어둠을 밀어내고 총련 제21차전체대회를 전망하여 새 세기 총련사업과 재일조선인운동의 확고한 전망을 마련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할 때입니다.

끝으로 저는 사협조직을 광복의 재일조선인 학술연구조직, 학술운동단체, 학술교류센터로 더욱 강화하여 재일동포사회과학자들이 시대의 선각자로서의 영예로운 임무와 사명을 다해나가도록 할것을 굳게 결의다지면서 또한 전체 총련일군들이 필승의 신념에 기초한 대오의 일심단결을 강화하고 20전대회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해나갈것을 열렬히 호소하면서 기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협중앙 회장)

大成商事株式会社

代表 洪性助

〒 998-0831 山形県酒田市東両羽町 6-17

TEL 0234 (23) 5822

FAX 0234 (23) 5824

株式会社

タイセイグループ

代表 李学秀

本 部	岐阜市六条江東2丁目12番3号
	TEL 058 (272) 9826 (代)
	FAX 058 (276) 7926
岐阜事務所	羽鳥郡岐南町上印食9丁目74番
	TEL 058 (248) 6366
	FAX 058 (248) 6356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이 주체위업에서 가지는 역사적의의에 대하여

조우호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습니다.

《나는 1926년에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고 혁명투쟁을 시작하였습니다.》

(《로동신문》 2006.8.18)

주체15(1926)년 10월 17일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은 주체위업의 역사적년
대기에 빛나는 금문자로 아로새겨져있으며 80년전 휘발하강가에서 《E. C》가
지펴올린 반제, 독립, 자주의 기치, 붉은기는 구쏘련과 동유럽 사회주의나라들
이 련이어 붉은기를 내린지 10여년이 지난 오늘 더더욱 힘있게 나뭇기고있습니
다.

종래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이 가지는 역사적의의를 조선혁명의 진정한
시원이 열리고 주체혁명위업이 개척된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조선혁명의 진정한 시원이 열리게 되었다는것은 첫째로: 조선 혁명의 자주
적발전의 시원, 둘째로: 당의 시원, 셋째로: 혁명전통형성의 시원 이라는 세
가지 각도에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첫째문제는 《E. C》가 결성된때로부터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자기 나
라 혁명을 자신이 책임지고 자기 나라 실정에 맞게 자기 힘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는 새로운 혁명이 시작되었다는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문제는 《E. C》의 강령이 조선로동당의 강령의 기초가 되고
《E. C》가 내세운 자주성의 원칙이 조선로동당전설과 당활동의 원칙으로
되었으며 《E. C》가 키워내기 시작한 새 세대 공산주의자들이 우리 당창건
의 골간으로 됨으로써 《E. C》의 결성이 우리 나라에서 종전의 당과 구별되
는 새형의 당, 주체형의 혁명적당창건을 위한 투쟁의 출발점으로 되었다는것
을 의미합니다.

셋째문제는 수령의 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행정에서 창조된 업적과 경험인
혁명의 만년초석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활동을 시작하신 《E. C》의
결성으로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였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종래 규정된 이러한 의의와 함께 우리는 최근 시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하
신 말씀에 기초하여 《E. C》 결성이 가지는 의의를 새롭게 파악하여야 할것

입니다.

1.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은 선군사상의 역사적시원

그 하나는 타도제국주의동맹이 결성됨으로써 선군사상의 역사적시원이 마련되었다는것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습니다.

《선군정치는 주체사상을 구현한 선군사상에서 나온것이지 그 어떤 장소에서 나온것은 아닙니다.··· 이미 말한것이지만 선군정치는 철저히 수령님의 선군사상에 기초하고있습니다.》(《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94년 1월 1일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에게 하신 말씀》 1페이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당의 선군정치가 주체84 (1995)년 1월 1일 다박솔초소를 시찰한 때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하시면서 선군정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것을 정확히 리해하자면 위대한 수령님의 선군혁명력사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시였습니다.

일제를 타도하고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이룩하는것을 당면과업으로, 조선에 사회주의·공산주의를 건설하며 나아가서 모든 제국주의를 타도할것을 최종목적으로 내세운 《E. C》의 강령에는 어버이수령님께서 회고하신바와 같이 칼 든놈하고는 칼을 들고 싸워야 이길수 있다, 뼈가 부서지고 몸이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라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하시며 모진 고생과 희생을 전제로 하는 그 길에서 좋은 혁명가의 필수불가결한 동반자라고 하시여 두자루의 권총을 남기신 아버님의 깊은 뜻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또한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주체15(1926)년 9월말,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을 준비하는 토론회모임에서 나라를 해방하고 근로민중이 잘사는 세상을 세우자면 멀고도 험한 길을 개척해야 한다, 우리가 대오를 늘이고 완강하게 혈전을 벌려나간다면 능히 승리할수 있다, 조직을 내온 다음 대중을 그 두리에 묶어세우고 각성시켜 그들의 힘으로 나라를 광복해야 한다 는 내용으로 말씀하시였습니다.

그것은 략탈적, 침략적 본성으로 보나 역사적교훈으로 보나 제국주의가 스스로 력사무대에서 자기의 침략적, 패권적 지위를 포기하지 않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을 반혁명적폭력으로 무자비하게 탄압하는것을 자기의 생존방식으로 삼고 있을뿐아니라 조선을 군사강점한 일본제국주의는 그 교활

성과 포악성에 있어서 력대제국주의국가들에서도 그 류례를 찾아보기 드문 악독한 침략자였기에 바야흐로 무으려는 조직은 《혈전》, 다시 말하여 조직적인 무장투쟁을 벌리기 위한것이라는 뚜렷한 지향이 어려있다는것입니다.

《E. C》를 결성하심으로써 선군사상의 시원을 마련하신 수령님께서서는 주체21(1932)년 4월 25일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시여 선군령도의 첫 자욱을 새겨나가시였습니다.

2.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은 조선혁명의 일심단결의 전통의 시원

다른 하나는 《E. C》의 결성이 조선혁명의 일심단결의 전통의 시원을 열어놓았다는것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일심단결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단결의 중심에 높이 모시고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혁명투쟁을 벌려온 그때로부터 시작하였으며 우리 당의 령도밑에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높은 수준에서 전면적으로 공고발전되었습니다.》(《로동신문》2006.10.3)

몇해전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승리에로 이끄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고난과 시련을 헤쳐온 지난날을 감회깊이 더듬으시면서 일심단결은 우리 혁명의 천하지대본이며 사회주의위업수행의 위력한 무기이라고, 우리 혁명은 단결로 시작되었으며 단결의 위력으로 고수되고 전진하여왔다고 심원한 뜻이 어린 말씀을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2권에서 《내가 김혁, 차광수, 최창걸과 같은 사람들을 그토록 사랑하고 잊지 못해하는것은 그들이 나에 대한 노래를 짓고 나를 지도자로 내세워서가 아니다. 바로 그들이 우리 민족이 것처럼 절절하게 바라면서도 실현할수 없었던 통일단결, 우리 인민의 자랑이고 영광이며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인 참다운 통일단결의 시원을 열어놓고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에서 령도자와 대중의 일심동체를 피로써 개척한 선구자들이기때문이다.》고 하시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회고하신바와 같이 《E. C》의 성원들을 비롯한 새 세대공산주의자들은 자리다툼때문에 대오에 불화를 조성한적도 없고 의견상이로 하여 통일단결을 파괴해본적도 없었으며 오히려 감옥과 교수대로 끌려가면서도 그 통일단결을 목숨으로 사수하여 다음 세대의 공산주의자들에게 그것을

재보로 넘겨주었습니다. 여기에 그들의 첫째가는 역사적공적이 있습니다.

바로 《E. C》의 핵심들이 지도자를 내세우고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통일 단결을 이룩한 숭고하고 아름다운 녀이 오늘 조선로동당이 일심단결이라고 부르는 통일단결을 낳은 위대한 전통으로 되었던것입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E. C》를 결성하신때로부터 뿌리내린 우리 인민의 일심단결의 전통은 준엄한 고난의 나날을 거치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에 의하여 새로운 높은 경지로 승화되어 그리움에 기초한 일심단결, 령도자와 전사사이의 혼연일체로 더욱 강화되고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오늘의 정세는 의연히 긴장되고 복잡하나 세상에 몇지 않는 비란 없으며 날이 밝기 직전의 순간이 가장 어두운 법입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일제식민지통치의 가장 암담한 시기에 《E. C》를 결성하시고 항일대전의 성스러운 길에 나서시였으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건국이래 가장 준엄하였던 고난의 시기에 주체혁명위업을 새로운 발전단계에로 이끄시여 또한 바로 그 시기에 이역에 있는 주체의 산아 총련을 사수보존할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치시였습니다.

저는 승리에 대한 신심과 배짱을 가지고 《E. C》에서 개척된 어버이수령님의 혁명력사와 주체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시키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력사를 옹호고수하며 총련의 2대중심기둥을 훌륭히 감당해낼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무겁고도 영예로운 자신의 본신임무에 대하여 깊이 자각하여 구체적인 실적으로써 조선대학교 창립 50돐과 총련21전대회를 빛나게 장식할것을 결의다지면서 토론을 마치고겠습니다. (조선대학교 강좌장대리)

有限会社 丸富商事

〒165-0032

東京都中野区鷺宮4-2-19

TEL 03 (3330) 0051

FAX 03 (3330) 5458

<http://www.0268.net>

千石綜合観光株式会社

代表取締役 鄭元海

〒386-0016 長野県上田市国分1-8-11

TEL 0268 (23) 2176

FAX 0268 (23) 8908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선군혁명령도로 강성대국건설에서 이룩하신 빛나는 업적에 대하여

지영일

△앞말

《E. C》로부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는 조선혁명의 장구한 역사는 반제, 독립, 자주의 리념밑에 역사의 준엄한 시련들을 이겨내면서 백전백승의 한길을 걸어온 영광스러운 력사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E. C》의 강령에 시원을 둔 선군의 사상을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빛나게 구현하시여 선군의 기치밑에 우리 인민을 강성대국건설에로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빛나는 업적을 이룩하고계십니다.

1.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선군의 기치밑에 강성대국건설을 현명하게 령도하고 계신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조국에 일찌기 없었던 엄혹한 시련이 들이닥친 지난 10여년간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선군의 령도로 사회주의의 정치사상적, 군사적위력을 튼튼히 다지시였을뿐만아니라 우리 나라를 경제강국으로 비약시킬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십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강성대국이란 사회주의강성대국입니다. 국력이 강하고 모든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사는 나라가 사회주의강성대국입니다.

우리 나라를 강성대국으로 만드는것, 이것은 결코 빈말이 아니며 먼 앞날의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몇해동안 간고한 투쟁을 벌려 부강조국건설의 튼튼한 도약대를 마련한 조건에서 강성대국건설을 건설하는것은 가까운 앞날에 실현할 수 있는 일이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사람들도 인정하는것처럼 지금 우리의 정치사상적위력과 군사적위력은 이미 강성대국의 지위에 올라 섰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경제건설에

힘을 집중하여 모든 공장, 기업소들이 제 궤도에 올라 서서 생산을 팡팡 하게 만들면 얼마든지 경제강국의 지위에 올라 설수 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경제강국건설에서 경제문제를 우리 힘에 의거하여 우리 식으로 푸는 혁명적원칙,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에 의거하여 푸는 사회주의의 혁명적원칙을 철저히 견지해야 한다고 가르치시면서 그것을 선군으로 확고히 담보하게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펼치신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선군령도의 중요한 특징은 첫째로, 주체적인 경제강국건설원칙을 뚜렷이 제시하시고 그를 위력한 혁명무력으로 확고히 담보하신데 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나라가 심각한 경제난, 식량난이 겹쳐들어 건국이래의 최대의 시련과 난관에 직면한 속에서도 경제강국건설에서 경제문제를 우리 힘에 의거하여 우리 식으로 푸는 혁명적원칙,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에 의거하여 푸는 사회주의의 혁명적원칙을 철저히 견지해야 한다고 가르치시면서 그것을 선군으로 확고히 담보하게 하시였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존망은 그 나라의 국력에 달려있으며 국력중의 제일국력은 군사력입니다. 강한 군사력이 없이는 제국주의와의 힘의 대결에서 승리할수 없고 민족의 존엄도 사회주의도 지켜낼수 없습니다.

더우기 오늘 《유일초대국》으로 대두한 미제가 세계제패를 위한 《힘의 정책》에 광분하고있는 조건에서 군사력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담보하는 기본무기로 됩니다.

최근시기의 이라크사태를 하나 놓고보아도 매개 민족의 정치적자주권은 오직 그 민족자체의 강력한 군사력에 의하여서만 굳건히 수호될수 있다는것을 심각한 교훈으로 보여주고있습니다.

총대를 중시하고 군사력을 강화하여야 경제건설도 원만히 보장할수 있습니다. 지난 시기 경제와 군사의 호상관계문제를 주로 경제위주의 견지에서 고찰하면서 경제의 발전을 떠난 군사력의 강화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론의도 있었고 지어는 군사력의 강화가 경제발전에 저해를 준다는 설도 있었습니다. 물론 경제력이 군사력의 기초로 되는것은 사실이지만 경제와 군사의 호상관계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는것은 어디까지나 군사이다.

경제가 발전하려면 민족산업을 지키고 경제건설의 평화적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는바 강한 군사력이 없으면 민족산업을 지켜나갈수 없고 경제건설의 평화적환경도 보장할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경제력이 군사력의 기초라면 군사력은 경제력의 담보이며 경제발전의 추동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끊임없는 선군령도로 우리의 군력을 불패의 것으로 다지시였으며 그 위력으로 나라의 자주권과 사회주의를 굳건히 고수하시고 경제강국건설을 확고히 담보해오시였습니다.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의 중요한 특징은 둘째로, 선군정치방식으로 경제건설을 밀고나가신것입니다.

선군정치방식으로 경제건설을 밀고나간다는것은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주력으로 내세우고 군대와 인민이 일심동체가 되어 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간다는것을 말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나라의 경제가 최악의 역경에 처해있던 준엄한 나날에 선군정치방식의 요구에 맞게 인민군대를 사회주의건설의 앞장에 내세워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승리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도록 하시였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시대적본보기를 창조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안병청년발전소건설에서 영웅적위훈을 떨친 인민군대의 모습에서 상징되는 바와 같이 《고난의 행군》 시기 긴장한 전력문제를 풀기 위한 사업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간것도, 그리고 혹심한 식량난을 겪고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인민군대가 본때를 남김없이 보여줌으로써 농업전선에서 농업생산을 추켜세운것도 바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의 귀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민군군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종자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을 제시하시면 제일 먼저 앞장에서 관철하여 그 본보기를 창조하였고 장군님께서 나라의 가금업을 일신시킬 구상을 펼치시면 현대화된 가금기지를 번듯하게 꾸려놓았으며 장군님께서 전기문제를 걱정하시면 제일 먼저 발전소를 일떠세워 선군혁명부대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인민군대에서 창조된 혁명적군인정신과 투쟁기풍을 온나라 인민들이 따라배워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기적과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도록 하시였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 자강도의 로동계급과 인민들을 불러 일으켜 창조하신 강계정신이나, 성진제강련합기업소 로동계급속에서 지펴오른 《성강의 봉화》, 그리고 그를 이어받은 《락원의 봉화》, 《라남의 봉화》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살며 일하도록 이끌어오신속에서

꽃피난 창조와 혁신의 봉화였습니다.

참으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펼치신 선군정치는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주력으로 하여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보위하고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우리 시대의 위력한 정치방식입니다.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의 중요한 특징은 셋째로, 국방공업의 발전에 선차적힘을 넣는 선군시대의 사회주의경제건설로선을 독창적으로 제시하시고 그를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신것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습니다.

《선군시대의 우리 당 경제건설은 바로 국방공업의 우선적발전을 기본으로 하는 경제건설로선이며 이 로선은 시대와 혁명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과학적인 로선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새롭게 정립하신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경제건설로선은 우리 나라가 미제와 그 동맹국들의 방대한 군사력에 의거한 고립압살책동에 직면하고 사회주의시장의 붕괴와 련이은 자연재해속에서 경제사정과 식량사정이 극도로 어렵게 된 상황에서 나라의 자주권과 사회주의를 굳건히 옹호고수하고 선군정치의 실현을 물질적으로 확고히 담보하며 나라의 경제토대와 인민생활향상문제를 시급히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한 로선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내놓으신 선군시대의 경제건설로선에서 기본은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된바와 같이 강한 군사력이 없이는 제국주의와의 힘의 대결에서 승리할수 없으며 민족의 존엄도 사회주의도 지켜낼수 없습니다.

더우기 미제가 또다시 《핵소동》을 벌리면서 반공화국책동을 극도로 격화시키고있는 조건에서 나라의 군사력을 강화하며 국방공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제1차적인 전략적과업으로 나섭니다.

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은 바로 이와 같은 시대와 혁명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독창적인 로선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국방공업의 우선적발전을 기본으로 하는 경제건설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심으로써 우리 나라의 국방공업은 오늘 현대적인 공격수단과 방어수단, 우리 식의 위력한 군사장비와 전투기술기재들을 자체로 만들어내어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더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수 있는 강유력한 국방공업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정치사상적으로나 군사기술적으로 준비된 무적필승의 혁명무력, 강한 군사적억제력이 있기에 미제국주의와 당당히 맞서 놈들의 온갖 위협과 침략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고 평화를 수호하여 올수 있었던 바로 여기에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을 기본으로 하는 경제건설로선의 생활력이 뚜렷이 나타나고있습니다.

선군시대경제건설로선은 또한 발전하는 국방공업에 경공업과 농업을 적극 따라세워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일것을 요구합니다.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체계적으로 높이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본성적요구이며 근본목적입니다.

정세의 변화와 현실적조건에 따라 국방건설과 경제건설, 인민생활의 어느 분야에 더 큰 힘을 넣는가 하는것은 달라질수 있어도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일데 대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근본목적은 결코 달라질수 없습니다.

바로 선군시대경제건설로선은 오늘과 같이 어려운 조건에서 국방공업발전에 선차적으로 큰 힘을 넣어 나라의 군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면서도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게 하는 선군시대의 가장 위력하고 우월한 사회주의경제건설로선으로 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도 선군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습니다.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선군의 원칙을 견지한다는것은 군사적목적에 필요한 물질적수단을 선차적으로 충족시키는 원칙에서 경제를 관리운영하며 혁명적군인정신과 투쟁기풍으로 경제사업을 조직지휘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인민경제계획화사업에서 군수생산지표를 중시할데 대한 문제, 작성된 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로력과 설비, 자재와 자금 등 생산 자원분배에서 군수생산지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생산요소들을 선차적으로 보장하는 문제, 내각을 경제사령부로, 국가계획기관을 경제참모부로 규정함으로써 혁명군대의 강한 혁명성과 조직성을 구현하여 관리기구들의 직능과 관리질서를 세울데 대한 문제 등 선군의 원칙에서 사회주의경제관리를 끊임없이 개선강화하도록 하시였습니다.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의 중요한 특징은 넷째로, 과학기술중시로선을 제시하시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최신평화기술적 성과로 담보하신것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습니다.

《과학기술은 강성대국건설의 힘있는 추동력입니다. 높은 과학기술이 없이는 강성대국을 건설할수 없습니다.》

과학의 시대에 들어선 오늘 나라의 과학기술을 고도도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기 위한 선군시대의 강력한 군사력을 다질수 없으며 새세기에 맞는 경제강국도 건설할수 없습니다.

군대의 무장장비를 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하여 현대화해나가는것은 현대전의 발전추세이며 특히 군사기술적우세를 자랑하는 미제와 직접대결하고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과학기술발전에 기초하여 경제의 기술개선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있는 오늘 인민경제의 개전현대화를 실현하는것은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성과를 담보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시대와 혁명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여 사상중시, 총대중시와 함께 과학기술중시를 강성대국건설의 3대기둥의 하나로 내세우시고 과학기술중시로선을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전략적로선으로 제시하시었습니다.

그리하여 짧은 력사적기간에 첨단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고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우며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과학기술적으로 확고히 담보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현시대 과학기술발전의 핵심기초기술인 정보기술을 비롯한 새 세기 과학기술발전에서 중심고리로 되는 과학기술, 강성대국건설에서 가장 절실한 과학기술분야를 주공방향으로 정하고 거기에 힘을 집중할데 대한 문제, 그리고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초하여 기계공학을 비롯한 중요부문 기술공학들을 적극 발전시키고 기초과학발전에 힘을 넣을데 대한 문제 등 과학기술발전의 주공방향을 뚜렷이 명시하시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최단기간에 중요분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울 대담한 목표를 세우고 자체의 연구개발과 다른 나라의 선진기술을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남이 걸어온 단계를 뛰어넘어 세계적수준으로 비약시킬데 대한 문제,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켜 인민경제의 과학기술수준을 최단기간내에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데 대한 문제, 현대화, 정보화의 요구에 맞게 과학기술인재를 수 많이 육성할데 대한 문제 등 새 세기요구에 맞게 나라의 과학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도들을 제시하시여 그 실현을 위하여 현명하게

이끄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체적인 과학기술중시로선을 제시하시고 그 관철에서 나서는 중요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심으로써 세계선진수준의 발전된 과학 기술을 창조하고 그에 기초하여 강성대국건설,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물질경제 적기초를 튼튼히 닦는 앞길이 새롭게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조국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내놓으신 과학기술중시로 선을 높이 받들고 기초과학부문과 기술공학, 유전자공학 등 중요과학부문들에서 수많은 새로운 과학기술적발명을 이룩하였으며 생산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긴요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적극 풀어나감으로써 인민경제의 활성화와 개건현대화, 인민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지난 10여년간 나라의 과학기술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고 경제강국건설을 과학기술적으로 확고히 담보해나갈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눈부신 과학기술적발전은 《반테로》의 미명하에 핵선제공격을 부르짖으면서 강압과 위협, 제재와 봉쇄를 일삼는 미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단호히 배격하며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맞서 최후결판을 내고야 말 우리의 자위적국방력의 철석같은 위력을 확고히 담보하고있습니다.

2.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로 우리 나라에서는 경제강국건설에서 빛나는 승리가 이룩되고 새로운 전환적국면이 열려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습니다.

《선군정치의 위대한 생활력은 사회주의건설에서도 확증되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에 의하여 무엇보다 우리 나라에서는 전대미문의 엄혹한 시련이 들이닥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이겨내고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진격로를 열어놓게 되었으며 부강조국건설의 도약대가 튼튼히 마련되었습니다.

참으로 간고한 시련속에서도 선군의 기치밑에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들의 영웅적위훈으로 수천여개의 공장, 기업소들이 정상가동에 들어섬으로써 공업생산의 정상화의 도약대가 마련되고 농산물의 증산이 이루어져 식량문제해결의 일정한 전망이 열어졌으며 《광명성1호》의 발사, 산소열법용광로에 의한 제

철법개발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바와 같이 간고한 《고난의 행군》 시기에 이미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과학기술적토대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로 《고난의 행군》과 강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한 후에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펼치신 강성대국건설구상에 따라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새로운 천리마대고조의 봉화따라 생산적양양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인민경제 여러 부문이 활기를 띠고 경제부흥의 확고한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선군정치를 안받침하는 국방공업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더욱 튼튼히 꾸려지게 되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전력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중요전선들에서 최근년간에 볼수 없었던 생산적양양이 이루어졌으며 농업부문에서는 선군시대농업혁명의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최근년간만 하더라도 전력생산은 해마다 25%의 증가률을 이룩하게 되었으며 알곡생산은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끝낸 이후 완전히 증산궤도에 오르게 되어 먹는 문제해결의 확고한 토대가 닦아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리하여 오늘 우리 조국은 가까운 년간에 경제전반을 흥하게 하고 인민들이 우리 경제토대의 덕을 실질적으로 보게 하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일대번영기를 열어 놓을 확고한 전망을 내다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투쟁력사와 현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정치를 펼쳐 온것이 얼마나 선견지명있는 선택이였는가를 력력히 보여주고 있으며 <E.C>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력사적행로는 선군의 길이 정의와 진리의 길이며 우리 식 사회주의가 인민대중의 자주적념원과 리상을 쫓피워주는 가장 우월하고 전도양양한 사회주의라는것을 확증해주고있습니다.

△ 맺음

오늘 조국인민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선군혁명총진군에 다시한번 박차를 가하여 정치, 군사,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 걸쳐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높이 발양시킬 결심밑에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 힘차게 떨쳐나서고있습니다.

특히 경제전반이 확고한 상승궤도에 들어서게 된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들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일대번영기, 선군혁명대고조의 불길높이 21세기 경제강

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울 원대한 포부와 신심에 넘쳐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위대한 창조와 혁신의 새 역사를 펼쳐나가고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선군혁명령도 따라 멀지 않는 앞날에 세계를 경탄케할 주체의 경제강국, 사회주의강성대국으로 비약하게 될것이라는것을 굳게 확신합니다. (사협중앙리사, 조선대학교교수)



YANAGAWA

entertainment & amusement



AMUSEMENT division
바친코, 게임などのアミューズメント産業を
多角的に展開する事業部
オリエンタル・パサー・ジュエーション
ジュリアス・シーザー・ジュエーション, カラオケ



HEALTH INDUSTRY division
健康産業を推進する事業部
サウナ, ビジネスホテル, 健康ランド・ジュエーショ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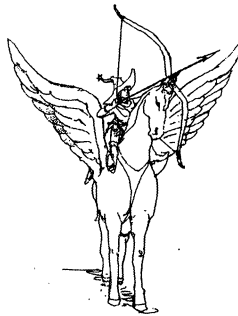
RESTAURANT division

飲食を通し食文化を追求する事業部
焼肉 陽山通・ジュエーション, 居酒屋 白丸通・ジュエーション, 祭屋, 花のれん



CIRCULATION division

商社機能も自社で展開。不動産・流通事業部



DREAM ARROWS OF AMUSEMENT

私たちヤナガワは、
21世紀の総合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企業として
様々な情報を発信していきます。
事業展開を通し企業スローガンである【夢の矢】を社会に放ち、
【夢のある企業】を実現することが、私たちの願いです。
夢のある企業優位性（コアコンピタンス）にどうぞ御期待下さい。

●
社 員 募 集

YANAGAWA GROUP

〒110-0005 東京都台東区上野 6-9-7 Phone. 03-3836-1588 Fax. 03-3837-1716

株式会社ヤナガワ 会長 梁守正

代表取締役社長 梁錫俊

선군정치와 《정군관계론》의 새 지평

강희봉

선군정치는 정치와 군사를 가장 정확하게 결합시켜 나라와 민족의 부강발전을 약속하는 새로운 정치방식이다. 선군정치의 독창성의 다른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데 《군국주의》, 《군사국가》, 《병영국가》요 하는 궤방이 의도적으로 가해지는 속에서 선군정치를 둘러 싸서 적지 않은 혼란과 오해가 생기고있다. 그러한 오해를 분석해 보면 결국 선군정치하에서의 정치와 군사의 관계를 정확하게 리해하지 못하고있다는 점에 귀착된다. 따라서 이 문제를 옳게 해명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창시하신 선군정치는 정치와 군사의 호상관계에 대한 새로운 그리고 독창적인 견지를 개척한 전대미문의 혁명적정치방식이다.

원래 국가의 건설과 발전에서 군대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어떻게 보겠는가라는 문제는 근대국가의 발생이래 계속 심각하게 제기되어 온 문제이며 특히 혁명과 건설의 전도를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되어왔다.

사실 인류력사가 어느 의미에서는 전쟁의 력사였으며 특히 주권국가체제가 형성된 이래 현대제국주의시대에 이르는 동안 국가간 관계는 이른바 《힘의 정치》론에 기초하여 주로 전쟁과 무력적위협을 배경으로 한 《교섭》으로 유지되어 왔다는것을 생각할 때 더욱 그러하다.

선군정치는 국가정치에서 차지하는 군사의 지위와 역할을 가장 정당하게 정립함으로써 정치와 군사의 관계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다.

선군정치는 말그대로 정치가 자신의 강유력한 무기인 군대를 전면에 앞세움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최대의 성과를 실현하는 정치방식이다. 선군정치는 정치와 군사의 호상관계에서 정치가 주동적으로 군사선행의 원칙을 주장하며 군대를 정치실현의 기본골간으로, 정치의 중심에 내세움으로써 군대를 가장 강력한 정치력량으로 삼아 력사상 처음으로 정치와 군사의 표리일체의 관계를 실현한 위대한 정치방식이다.

1. 정군관계의 력사

돌이켜보면 이 세상에 군대가 출현한것은 노예소유자사회가 출현하여 전쟁이 발생하면서였다. 전쟁의 담당자로 발생한 군대는 계급사회에서 언제나 착취계급의 계급적지배를 폭력으로 담보하기 위한 특수한 무장된 집단으로서의 역할을 돌아왔다.

발생의 전지에서 볼 때 군대의 출현자체가 정치의 산물이며 군대가 어느 사회에서나 지배계급이 실시하는 정치의 수단으로 존재하게 되는것만큼 군대를 정치와의 상관관계속에서 검토하는것은 어느 의미에서는 당연한 리치라고 말해야 할것이다. 그러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선군정치를 창시하실때까지 여태껏 이 리치는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해명되지 못하였으며 정당한 해결의 길을 찾지 못하였다.

정군관계와 관련한 논란이 언제부터 시작하였는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찾아볼수 없다. 다만 빠르게는 근대국가의 출현이전인 BC388~387에 플라톤이 자기의 저서 《국가》에서 인민과 군대를 염소와 번견으로 비유하면서 염소를 지켜야 할 번견이 승냥이를 대신하여 염소를 잡아 먹을수 있는듯이 인민을 보호해야 할 군대가 거꾸러 인민의 억압자가 될수 있으니 인민은 언제나 군대를 감시하여야 한다고 한것으로 보아 이 문제가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있다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오늘적의미에서 이 문제가 취급된것은 1689년의 영국의 《권리장전》이 상비군의 존속과 병력문제를 국회에 부여된 승인의 권한에 의한 통제하에 놓은데서 볼수 있다. 이것은 17세기에 들어서서 세계가 이른바 《국민주권국가체제》로 구성된 이후 근대국가들에서 군대의 지위에 관한 문제는 중요한 정치적인 관심사로 되어 왔다는것을 알수 있다.

그런데 군대가 점차 상비적인 정규군으로 즉 이른바 《국민군》으로 강화발전하게 되어 하나의 사회세력을 이루게 된것이 사태의 중요한 변화를 초래하게 하였다. 즉 《국민군》의 등장은 한편에서는 정치와 군사의 분립을 가져왔으며 다른 편에서는 그것이 군사의 정치개입이라는 새로운 현상을 산생한 것이다. 유럽의 어떤 연구자는 《군국주의》란 말이 처음으로 나타난것이 1816년부터 18년에 걸쳐 씌여진 샤스트네부인의 회고록에서였다고 하면서 개념으로서의 군국주의라는 말을 그 기원으로부터 보게 된다면 클롬웰 및 1688년의 《명예혁명》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였다. 또 바로 이 시기에 군사적요소에 대한 문민적요소의 기본적인 우위를 보장한 근대 영국이 등장했다고 썼는바 이것은 군사의 정치개입을 방지하며 정군관계를 옳게 정립하는 문제가

매우 오랜 역사적과제로 제기되어 왔다는것을 말해준다.

물론 자본주의사회에서 군대는 지배계급이 자신의 계급적지배를 지키고 확장하며 유지하기 위한 국가폭력기관으로서의 사명과 성격을 지니고 등장하였던것만큼 국가로부터 《독립》한 《중립》적존재로 있을수는 없다. 그러나 자본주의제도가 자유와 민주주의를 근본리념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크게 광고하고있는 이상 인민을 억압하고 계급적지배를 유지, 확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군대의 사명을 로골적으로 들어내놓을수 있는것도 아니다. 이리하여 군대의 《중립》을 표방하는 기만이 군대의 존재와 함께 오랜 역사를 새겨오게 되었던것이다.

초기 자본주의사회에서 정군관계는 주로 군대에 대한 정치의 체계상의 우위성이라는 원리에 기초하여 구체적으로는 정치권력 (정부) 에 의한 군사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라는 측면에서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계속되는 식민지전쟁과 군사제국의 등장은 사람들로하여금 정치에 대한 군사의 우위, 군사에 의한 국가권력의 장악으로 특징지어지는 군국주의의 등장에 대한 위구심을 자극해 왔다.

특히 제국주의시대로의 돌입과 세계분할을 위한 제국주의전쟁의 세계적인 확대, 그 산물인 제1차세계대전, 그리고 제국주의발전의 필연적인 산물인 파시즘과 현대군국주의의 등장, 제2차세계대전의 발발 등 제국주의침략전쟁의 세계적인 확장은 무력의 위력을 배경으로하여 국가운영에서의 군대의 지위와 발언권을 비상이 높이게 하였다.

그런데 군대의 지위와 발언권의 이러한 상대적강화는 지배계급내에 새롭고도 역사적근원을 가진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을수 없었다. 그것이 바로 군대의 정치개입의 문제이다. 막강한 무력을 배경으로 한 군대의 존재는 정치세력들에 대한 항시적인 위협으로 되었던것이다.

군대의 정치개입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군사적압력과 태공을 통하여 군부의 리해관계를 정부에 강요하는 형태로도 나타난다. 그러나 더 본질적이며 전형적인 군대의 정치개입은 역사적으로 볼때 다음의 세가지 경우에서 볼수 있다.

그 하나는 인민대중의 투쟁에 의하여 고립됨으로써 위기에 처한 지배계급의 정권이 사실상 군대에 그 힘의 원천을 두고 존재하는 형태, 즉 지배계급의 정권이 《정치화된》 군부장교집단을 적극 정치에 개입시켜 저들의 계급독재의 마지막 방패로 삼아 계급투쟁의 전면에 내세우는 방법으로 정치에 개입시키는 형태이다. 군대의 정치개입은 또한 자본주의사회가 결정적위기에 직면하게 되

였을 때 자본주의제도의 전반적리익을 지키기 위하여 특정한 정치세력과 군대가 결탁하면서, 대립되는 개별적 혹은 특정한 산업과 그 정치적주장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을 타도하는데 군대가 동원되는 형태로도 나타난다. 여기서 이상 두 경우가 다 어디까지나 정치가 우위를 차지하면서 군대를 정치에 개입시킨 형태이다.

그런데 다음의 경우는 완전히 군사가 정치를 압도하는 경우이다. 즉 《정치화된》 군대의 상층부가 스스로 정치세력화되어 부패하고 무너져가는 제도를 버리고 군사정변을 일으키며 이른바 《자유민주주의적》 요소까지도 심히 침해하는 군사파쇼정권을 세우는 경우이다. 다만 이 경우에는 오히려 광범한 인민대중을 적으로 몰아 넣음으로써 대중적인 사회혁명을 도래시키게 될 위험을 조성하기도 한다.

어느 경우를 불문하고 이와같은 사정은 군대에 대한 정치의 통제를 제도적으로 실현할 길을 찾을 필요성을 제기하게 된다. 이리하여 정치와 군사는 분리되어 론의될수 밖에 없었던것이다. 여기서 량자의 관계는 한편에서는 군대의 반인민적인 계급적본질을 음패하는데 기본을 두고 주로 정치와 군사의 분립을 전제로 하면서 군대의 《중립화》, 다시말하여 군대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킨데 기초하여 군사의 정치개입을 막는 문제로 제기 되었다. 또 다른 편에서는 자본주의 집권층내의 대립에서 특정한 정치세력이 군부와 결탁하여 결정적으로 우위에 서는것을 막기 위한 문제로 제기되어왔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 나라에서 이 문제는 더욱 교묘하고 교활한 형태를 띠고 이른바 군대에 대한 《민간통제》 혹은 《문민통제》의 실현이란 형태로 나타났다. 이래 자본주의제도하에서 군대와 정치는 형태상 서로 《분립》하면서 주로 군대에 대한 《민간통제》의 효율적인 실현문제가 계속 정치의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어 온것이다.

이와같은 역사적과정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사람들로하여금 자연히 정치와 군사를 분리시켜 론하게 하였으며 그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되었던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이러한 역사적경험은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가 겪게 된 경험에 불과하다. 또 그 경험도 결국은 자본주의에서는 정군관계가 한편에서는 계급적리해관계에 기초한 반인민적결탁으로 나타날수 밖에 없는것으로부터 필연적으로 겪게된 경험이었다. 또한 다른 한편에서는 자본주의하에서는 호상 대립되는 착취세력간의 권력싸움이 극단한 경우에는 서로가 군부의 일부분과 결탁하여 권력을 둘러싼 대립의 형태로 나타날수 밖에 없었던 그러한 자본주의

에 특유한 경험인 것이다.

물론 자본주의사회에서도 이른바 《문민통제》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문제를 가지고 정치학과는 분리된 형태로 수 많은 연구와 논란이 있었다. 대표적인 주장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군대의 전문화를 극대화시키면 군대는 군사에 매몰되어 정치에 대한 관심이 극소화됨으로 이런 방식으로 정치와 군사를 완전히 분리시킴으로서 《문민통제》를 실현할수 있다는 주장 (에스 항팅턴) , 둘째로 군대가 문민과 공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회와 일체화되었을 때에 《문민통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주장 (엠 자노비츠) , 셋째로 전쟁의 위협이 장기적으로 지속되어 자본주의 국가가 이른바 《병영국가화》 되어 나가는 속에서 《낡아진 문민통제》가 문제인것이 아니라 중요한것은 정부의 통제이며 정부기구의 군사화에 대해서도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어떻게 지키는가 하는 시점에서 검토하는것이 중요한 문제이다는 주장 (에이취 라스웰) , 넷째로 군대가 정치에 개입하는 정도는 그 나라의 《정치문화》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면서 세계 각국을 문민통제의 전통이 확고하게 다져진 《성숙된 정치문화》가 확립된 나라부터 문민통제의 전통이 완전히 없는 《최저의 정치문화》의 나라로 4단계로 구분하면서 결국 《문민우위》라는 절대적인 원칙에 군인들이 무조건 복종하는 전통을 확립하는것이 중요하다는 주장 (에스 이 화이너) 들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주장이 결국은 자본주의사회를 지배하고있는 계급적대립과 정권을 둘러 싸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지배계급내의 권력쟁탈전의 현실에 눈을 감고 책상탁에서 구상해 낸 주관적인 사고의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군대의 전문화의 극대화가 《문민통제》를 실현한다는 한팅턴의 주장은 매우 반동적이다. 원래 자본주의제도하에서 군대는 정부의 몫이 아니라 국가의 몫이다. 군대의 전문화의 극대화는 군인들로하여금 정부보다도 국가에 더 가까운 존재로, 자신들을 국가안에서도 가장 정통성이 높은 존재로 여기게 하며 자기의 위치를 정부의 상위에 두게 되어 정부의 정책에 개입하게 된다. 이러한 군대는 정치에 개입하는것을 주저하지 않는것이다. 자본주의국가체제가 위기에 처하여 군대가 정변을 일으킬 때에 작용하는 정신적구실은 언제나 《국가》에 대한 《충성》이였다는것이 이를 입증하고있다. 또한 이 사실은 정군관계는 본질상 정치와 군사, 혹은 정권과 군권의 호상관계에 관한 문제이지 결코 《정부와 군부의 관계》가 아님을 말해준다. 이것은 《문민통제》로서는 정군관계의 올바른 해결을 바랄수 없다는것을 말해주는것이다.

전지에 따르면 군국주의란 한마디로 말하여 군사가 정치를 압도하며 군권이 정권을 가로챈 그러한 국가제도로 이해할수 있다.

이처럼 이른바 군대에 대한 《문민통제》라는것은 결국은 반인민적인 계급 독재의 무력기구로서의 군대의 본질을 음폐하기 위한 제도적장치에 불과하다. 자본주의제도하에서는 계급독재의 무기로서의 군부의 원래적성격으로터 《중립》이란 있을수 없으며 정치와 군사의 유착은 필연적이다. 또한 그것은 지배계급에 속하면서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각 세력들이 정쟁을 거듭하는 속에서 특정한 세력이 군부를 정쟁에 인입하거나 군부가 그러한 정쟁의 틈을 타서 정치를 타고 앉으려고 하는 일을 《군부의 중립》이란 말로 막아 내고나 서로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장치에 불과한것이다.

도대체 《민간통제》요 《문민통제》란 말자체가 허구적이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사회에서 《민간통제》나 《문민통제》는 결국 《민간》 정부에 의한 《통제》를,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군인이 아닌 《민간》인 정부관료에 의한 《감독》을 통하여 실현되는데 그것은 정부이자 곧 《민간》이고 《문민》이라는 《공식》을 전제로 하고있다. 그런데 두말할것없이 자본주의사회에서 정부는 《민간》의 이해관계를 대표하지 않으며 또 대표하지도 못한다. 물론 그렇다고 인민이 직접적으로 군대를 통제할 길은 열어져 있지 않다. 결국 인민이 군대를 통제할 길은 차단되고있으며 인민은 거기에서 소외되고있는것이다.

이것은 정치와 군사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겠는가라는 문제가 자본주의제도하에서는 영원히 풀수 없는 문제라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군부의 정치개입은 막을수 없다. 특히 《랭전의 종식》이후의 미국에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드시 제국주의는 그 위기가 심화될수록 군국주의화되기 마련이다. 결국 자본주의사회에서 군대의 《중립》이란 허구에 불과한것이다.

2. 선군정치가 밝힌 정군관계

1) 정군관계에 대한 기성의 사회주의리론

정치와 군사의 관계문제를 옳게 정립하는 문제는 오직 사회주의제도하에서만 그것도 선군정치방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할수 있다.

본질적으로 볼때 선군정치는 오직 사회주의와만 결부되는 정치방식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사회주의만 하면 자연히 선군정치를 하게 된다는것은 아니다. 사회주의가 근 한세기 가까운 역사를 가졌다고는 하지만 사회주의의 운명과 관련된 이 문제 즉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정치와 군사의 호상관계를 해명하고 정당하게 정립시켜야 할 이 역사적인 과제는 여지껏 해명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제기되지도 않았다.

선행한 로동계급의 정치리념인 맑스-레닌주의에서는 선군정치처럼 군사행위의 정치방식이 이론적으로 거론되었거나 실천된것을 우리는 보지 못하였다.

선행리론에서 군사문제는 자본의 지배를 전복하고 로동계급의 정치적지배를 확립하기 위한 혁명적폭력에 관한 문제로, 승리한 혁명을 반혁명의 공세로부터 보위하는 방어수단의 문제로 취급되어 왔으며 따라서 그것은 봉기에 떨쳐나선 인민을 민병으로 조직하는 문제, 조국보위의 담당자로서의 군건설에 관한 문제, 프로레타리아독재체제내에서의 로동계급이 거머진 강력한 무력에 관한 문제로 취급되어왔다.

그들에 있어서 정치란 바로 로동계급에 의한 정권획득과 그 보존에 관한 문제였으며 생산수단의 전인민적소유와 생산물의 사회주의적분배의 실현이었으며 그를 실현하기 위한 계급투쟁과 프로레타리아독재에 관한 문제였다. 다시 말하여 그들에 있어서의 정치의 최대의 관심사는 다름이 아니라 생산수단의 전인민적 소유와 사회주의적 분배의 실현을 통한 계급의 폐절이었으며 그를 위한 정치방식이 바로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수립과 운영이었다. 따라서 그들의 모든 정치론의는 계급투쟁과 프로레타리아독재에 관한 론의에 수렴되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그들 (특히 레닌, 스탈린, 트로츠키) 도 혁명군대가 가지는 성격과 우월성에 대하여 밝히려고 하였으며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한 이후의 군대의 지위와 사명을 일정하게 밝힌것도 사실이다. 레닌이 혁명이 승리한 후 《우리는 1917년 10월 25일 이후는 방위론자들이다.》고 하면서 붉은 군대를 제국주의 세력으로부터의 혁명의 방위수단, 조국방위자로 규정한것은 사회주의사회에서의 군대가 가지게 되는 고유한 사명이 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을 사수하는데 있다는것을 명백히 한 점에서 특징적이다. 그러나 반면에 그것은 군사력에 관한 문제를 사회주의건설의 평화적인 환경을 마련하는 문제로, 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 국내 사회주의건설을 지키는 문제로만 보게 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고 말하지 않을수 없다. 이러부터 선행가들은 사회주의사

회에서 군대가 지니게 되는 정치세력으로서의 위상에 대하여 올바르게 밝혀내지 못하였던 것이다.

실지로 제2차대전 이후의 소련과 유럽사회주의나라들의 군사력건설을 보면 주로 세계제국주의의 두목으로 등장한 미제를 축으로 한 제국주의 군사동맹체제에 대항하는 억지력으로 건설되어 왔다. 다시 말한다면 군사력의 강화가 자국의 혁명과 건설의 떼어놓을 수 없는 요소로,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의 요구에 기초하여 추진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미국의 무력증강에 대항한 무력건설의 문제로 취급되어온 것이 실상이었다. 따라서 이른바 《랭전》상황하에서 군사건설이 미제와 나토군을 한편으로 하고 소련과 와르샤와조약기구간을 다른 편으로 하는 군비경쟁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물론 그것은 제국주의세력에 의한 침략전쟁을 허용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방지하여 평화를 유지하느냐 하는 첨예한 대결을 둘러싸서 진행된 것 만큼 사회주의진영의 군사적대응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실이 역설적으로 미국을 적대세력으로 보지 않고 무슨 《인류의 공통적인 이해관계》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동반자》로 보게 된다면 그 시점부터 총대의 명분은 사라지고 군사력의 사명은 퇴색되며 군대의 위상은 떨어지기 마련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점이다. 소련과 동부유럽사회주의 나라들의 군대가 사회주의가 붕괴되어 나가는 것을 막지 못하며 결국 혁명의 수호자로서의 사명마저도 망각하게 된 주된 요인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본 사실들은 사회주의나라에서 정치는 군사를 어떻게 취급하여야 하는가라는 문제에서 몇가지 심각한 교훈을 주고 있다.

그것은 첫째로 군사를 단지 혁명적폭력의 최고수단으로만 간주하거나 프롤레타리아독재의 공간, 수단으로만 간주하거나 제국주의 침략책동에 대한 대항수단으로만 여겨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둘째로 사회주의 정치는 군사를 뒤전에 미루어 놓은 군사와 유리된 정치로 되어서는 안되며 군사를 정치의 전면에 내세우고 언제나 전반적인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의 요구와 실천에서 군사를 앞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선군정치에서 이 교훈은 어떻게 극복되고있겠는가.

2) 선군정치의 《정군관계》론

앞에서 언급한 교훈은 결국 정치와 군사의 관계를 올바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정립하는 문제에 귀착된다.

선군정치는 무엇보다도 정군관계의 기본을 당군배합 즉 혁명과 건설의 정도당과 군대의 《배합》문제로 설정한다.

이것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정군관계가 주로 정부와 군부의 관계로 고찰되고 있는 것과 결정적으로 다르다.

또 선행한 고전가들에 있어서 정군관계는 군대에 대한 당의 통제를 어떻게 유지, 실현하겠는를 기본으로 한 문제였다. 따라서 구쏘련을 비롯한 유럽사회주의나라들에서도 정군관계는 주로 그러한 문제로 취급되어 왔다. 선군정치는 정군관계를 통제와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당의 정도실현과 당군의 《배합》, 일치유지, 실현하는 문제로 제기한다. 여기에 정군관계에 대한 선행한 고전가들의 이론 그리고 구쏘련과 유럽사회주의나라들에서 실지로 전개된 정군관계와 결정적으로 다른 본질적측면이 있다.

아는것처럼 선군정치는 군대를 혁명의 《주력군》, 《제일기둥》으로 내세운다. 물론 혁명의 정도당과 혁명군대의 관계를 서열로 본다면 당군으로 된다는데 대해서는 여기서 다시 거론할 필요는 없을것이다. 군대는 당이 자신의 손탁에 거머진 혁명과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군대는 어디까지나 당의 정도에 충실하여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것은 당의 정도의 혁명적본질을 정확히 리해하는것이다.

군대에 대한 당의 정도란 본질적으로 수령의 령군체계를 확고하게 정립하고 전군이 수령의 사상과 의도, 결심에 따라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력한 혁명무력조직으로 장성강화시킨다는데 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전군을 수령의 사상으로 일색화하고 수령결사옹위정신과 명령결사관철의 정신, 인민에 대한 복무정신과 영웅적자기희생의 정신으로 무장하도록 하는것이다. 강군의 진면모는 그 사상정신적무장수준에 있는것이니 군대를 무엇보다도 《사상의 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는것이야말로 군에 대한 당의 정도의 핵심이라고 말하여야 할것이다.

한편 군대는 오직 수령의 사상에 충실하며 수령의 령군체계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자기 대오를 다지는 군풍을 철저히 세우는것을 첫째가는 사명으로 삼는다. 그것은 군대가 옹위해야 할 모든 가치가 본질상 수령옹위에 귀착되기 때문이다. 두말할것 없이 수령은 나라와 민족, 인민의 자주성을 위한 혁명과 건설의 운명이며 따라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다. 수령옹위를 담보하지 못할

때 다른 모든 가치는 조만간 박탈당하게 될수 밖에 없다는것은 역사가 가르쳐 주는 교훈이다.

실패한 혁명도 수령의 등장으로 새로운 생명을 받아 안고 재생활수 있으며 아무리 앞길이 간고하다고 해도 온갖 난관을 극복하면서 승리의 길을 개척해 나갈수 있다. 따라서 혁명무력의 첫째가는 사명은 수령을 옹위하고 수령의 령군체계를 유지강화하는데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군대에 대한 수령의 령군체계는 당군《배합》의 본질을 집중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내고있다고 말할수 있다.

선군정치는 다음으로 혁명군대를 단순한 무력집단으로 보고나 승리한 혁명의 《보위자》로만 보는것이 아니라 혁명과 건설의 일대 정치적력량으로 봄으로써 새로운 당군관계의 역사를 개척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정치는 혁명군대를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의 《주력군》, 《제1기둥》으로 삼아 주체혁명위업전반을 강력하게 밀고 나갈수 있게 한다. 이것은 혁명군대가 무력조직으로서만이 아니라 혁명의 주체력량속에서도 가장 강력하며 가장 핵심적인 정치적력량으로 등장하게 되어야 처음으로 가능한 일이다.

혁명군대가 강력한 정치적력량으로 된다는것은 혁명군대의 지위와 역할의 정치적성격에 대하여 말하고있는것인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혁명군대가 당과 함께 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인민을 혁명과 건설으로 조직동원하는 전인차적역할을 논다는것이다. 이점에서 혁명군대는 당에 뒤지지 않는다.

혁명군대의 전인차적역할은 무엇보다도 혁명군대의 《사상의 강군》으로서의 역할에서 나타나고있다.

선군령도에 의하여 혁명군대에서는 새로운 혁명정신과 기풍을 세우며 새로운 혁명적내용으로 풍부화된 전우정신을 창조하게 된다. 이 새로운 혁명정신과 기풍, 전우정신은 사회의 모든 부문에 확산되여 인민들의 혁명의식과 사회관계를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강력한 추동력으로 되고있다.

사실 선군정치에 의하여 혁명군대안에서 창조되고있는 혁명적군인정신은 로동계급의 계급의식, 혁명의식의 최고표현이라고 말할수 있다. 오늘 혁명적군인정신은 전당이 따라배워야 할 투쟁정신으로 사상적력량식으로 되고있다.

또한 수령의 령군체계를 철저히 확립한 혁명군대의 군풍은 당과 당원들이 수령의 령도체계에 더 충실한 혁명대렬로 장성강화시키며 혁명군대의 명령결사관철의 정신, 특히 사회주의건설전선에서 발휘한 명령결사관철의 정신은 당

원들의 당적과업결사관철의 투쟁자세와 혁명적기풍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는 데서 결정적역할을 놓고있다. 뿐만아니라 혁명군대내에서 창조되고있는 혁명적전우정신은 당원세계를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한 혁명적동지애의 세계로 철저히 전변시켜 나가고있다. 이리하여 오늘 당과 혁명군대가 가져야 할 사상정신적풍모는 하나로 이어지고있다.

혁명의 수령의 사상으로 일색화되고 수령의 유일령도체계에 따라 그리고 수령을 유일중심으로 하여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규률을 목숨으로 하는 당풍과 오늘 수령의 령군체계를 확고히 세워 수령결사옹위, 수령의 명령결사관철의 정신과 영웅적자기희생성을 특질로 하는 조선인민군의 군풍은 완전히 일맥상통한다. 이처럼 선군정치하에서 당과 군대는 그 사상정신적 면모에서 완전히 일치하고있다.

혁명군대의 견인자적역할은 또한 견인불발의 의지로 전체 인민을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으로 불러일으키고있는데서 나타나고있다.

조선인민군이 사회주의건설현장에서 발휘하고있는 대중적영웅주의는 전체 인민에게 승리의 신심과 강한 의지를 전파하는 현실교양의 마당으로 되고있다. 실지로 서해갑문건설에서나 안변청년발전소건설에서 발휘한 조선인민군전투원들의 투쟁정신은 전체인민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그것은 또한 자력갱생의 본질을 실물로 보여준 위대한 창조의 투쟁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선군정치는 혁명군대를 혁명과 건설에 전체당원들과 인민을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견인대, 강력한 정치력량으로 장성강화시킨다. 바로 여기에 선군정치하에서만 진정한 당군관계를 실현할수있는 또 하나의 근거가 있다.

선군정치 정군관계는 다음으로 정치와 군사를 일체화시킴으로써 진정한 정군관계를 실현하게 된다.

선군정치에서 정치와 군사는 대치되고있지 않다. 군사력은 철저히 정치력 강화에 이어져야 하며 정치력은 군사력을 자유자제로 동원함으로써 정치의 힘을 현실적으로 강화하게 된다.

원래 정치란 강력한 《힘》을 배경으로 가질때만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국가, 정권, 법, 감옥, 재판, 경찰 등은 본질상 다 정치를 하기 위해 필요한 《힘》이라고 말할수 있다. 사회생활에서 적용되는 질서, 규률도 역시 《법》을 전재로하여 처음으로 성립되는 사회현상이다. 혁명이 정권을 둘러싸서 진행되는것도 바로 정권이 정치를 할 권한 즉 《힘》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권력정치》란 말이 생겨난것도 바로 정치가 《힘》을 배경으

로 하고있다는것을 표현한것이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것은 이 《힘》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것이다. 두 말할것 없이 자본주의사회에서 이 《힘》은 지배계급인 착취계급의 이익을 보 장하고 비착취계급의 반항을 억압하고 진압하기 위해서 필요한 《힘》이며 따 라서 그 《힘》의 본질은 《억압》에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이 《힘》은 전복된 착취계급의 반항을 진압하고 그 잔재 를 극복하는데서는 《억압》의 성격을 띠게되지만 그것은 비본질적인 측면에 지나지 않는다. 절대다수의 인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 《억압》의 힘은 인민대 중의 자주성을 《옹호》하는 힘이다. 여기에 정치의 《힘》으로서의 군사의 사회주의적내용의 하나가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이 《힘》은 또한 제국주의침략세력으로부터 나라와 민 족, 인민의 자주성을 철저히 옹호보위하기 위해 혁명과 건설의 령도당이 의 거하고 동원하는 《힘》이다.

선군정치는 이 《힘》에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당군관계에 기초한 당군의 혼연일체가 발휘하는 《힘》이다. 당군의 혼연일체 화는 당군관계의 완성이라고 말할수 있는데 바로 당군이 혼연일체화됨으로써 정치가 의거할 《힘》은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이겨낼 최강의 《힘》으로 강 화발전하게 된다. 이것은 구쏘련과 유럽사회주의나라들에서 군사를 정치와 분 리하고 군대를 정치와 격리시킨것과는 완전히 다른 전혀 새로운 《힘》에 대 한 리해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언급하게 되는 《국력》에 대한 새로운 리해와 결 부하여 고찰할것이다.

실로 선군정치에 의한 당군일체화와 그에 기초한 정군일체화의 실현은 조선 의 정치를 더욱 강력하고 확고한 토대위에 올려세웠으며 주체조선의 정치력을 비상히 강화하였다.

이처럼 선군정치는 새로운 구도와 차원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정군관계문제 를 해결하고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의하여 력사상 처음으로 정치의 본질과 선군의 진리 가 밝혀지고 혁명군대를 정치력량의 중핵세력으로 보는 새로운 관점이 세워짐 으로서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정치와 군사의 관계문제는 처음으로 가장 올바른

해결의 길을 걷게 되었다. 선군정치가 펼쳐짐으로써 정치의 위력과 군사의 위력은 서로 표리일체이며 그것은 당의 령도에 의하여 처음으로 실현된다는것이 실천으로 증명되었다. 그것은 선군정치론의 창시에 의하여 정군관계의 논의가 완전히 새로운 지평에 들어서게 되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사협중앙리사)

참고문헌

1. 조선말

－로작

- ①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제4권
- ② 《김정일선집》 제14권

－단행본

- 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리론》 법학1.2, 철학2, 경제학4
- ② 《근로자》 주체89 (2000) 년~주체93 (2004) 년까지의 각호 관련논문

－로동신문

- ①로동신문, 근로자 공동론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필승불패이다》로동신문 주체88 (1999) 년 6월 16일
- ②편집국론설 《선군사상은 우리 시대 자주위업의 필승불패의 기치이다》 주체92 (2003) 년 3월 21일
- ③편집국론설 《혁명의 수뇌부와 일심단결, 사회주의는 운명공동체이다》 주체92 (2003) 년 5월 26일
- ④편집국론설 《선군정치의 본질적특성》 주체92 (2003) 년 12월9일
- ⑤편집국론설 《선군사상을 우리 시대 지도적지침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자》 주체93 (2004) 년 8월27일

기타

－학보, 학계보

- ①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 경제학편, 력사, 법학편 주체90 (2001) 년~주체95 (2006) 년 각호
- ② 《철학연구》 우와 같음

- ③ 《사회과학》 우와 같음
- ④ 《력사과학》 우와 같음

—일본말 (단행본에 한함)

- ① 쓰딸린 《적군의 세가지 특징에 대하여》 쓰딸린전집 제11권 오오쓰끼서점
- ② 《로씨아공산당 (볼셰비크) 제12차대회보고》 우와 같음
- ③ 《현대전쟁론》 로빈 클라크. 소오시샤 1972년
- ④ 《군국주의와 정군관계—국제적론쟁의 력사》 포르카 아르 베르크한. 난소우샤 1991년
- ⑤ 《전쟁의 본질과 군사력의 제모습》 이시즈 도모유키편. 사이류샤 2004년
- ⑥ 《정군관계연구》 미야께 마짜끼. 아씨쇼보 2001년
- ⑦ 《위기와 정군관계》 도미따 노부오, 호리에 진편 《위기와 데모클라씨》 가꾸 요쇼보 1985년
- ⑧ 《군인과 국가》 (상, 하) 사무엘 항턴. 이씨까와 료이찌역 하라쇼보 1978-79년. 《변혁기사회의 정치질서》 동, 우찌야마 히데오역 사이마르숫판 1972년
- ⑨ 《신흥국과 군부》 엠 자노비츠. 쯔 아끼오역 세까이시소샤 1968년
- ⑩ 《정치와 군사—그 비교사적연구》 사또 에이이찌편. 일본국제문제연구소 1978년 기타.

躍進する企業グループ

く い ー ぷ

代表取締役社長 崔 東 明

〒231-0045 神奈川県横浜市中区伊勢佐木町3丁目98番

TEL 045 (251) 1958

조선동해호칭문제와 일본채국

사공 준

필자는 이전에 《〈조선해〉, 〈동해〉 표기의 역사적 경위 및 국제적 관습에 대한 고찰》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바가 있다.

〈조선해〉 표기가 〈일본해〉 표기로 본격적으로 〈변경〉된 것은 20세기초 일제에 위한 조선강점 전후시기이다. 그때까지 일본은 일본열도의 동쪽해역의 태평양에 〈일본해〉 또는 〈대일본해〉로 호칭해왔다. 이 시기의 일본의 지도에는 일본열도의 서쪽에 있는 바다이름을 〈조선해〉로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열도 동쪽에 있는 바다이름이 〈태평양〉으로 고착되고 그 해역을 〈일본해〉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조선해〉 해역을 이번에는 〈일본해〉 표기로 바꾸어 놓았던 것이다.

일본은 이때Phillip Franz Balthasar van Siebold(1796~1866)가 잘 번역을 하지 못한채 〈조선해〉를 〈일본해〉 표기로 하여 간행한 〈지도〉를 백방으로 악용하여 〈일본해〉 표기를 고착시키기 위하여 날뛰었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일본은 1929년, 국제수로기구 출판물인 〈대양과 바다의 경계〉에는 〈조선해〉, 〈동해〉를 삭제하고 〈일본해〉로 〈고착〉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일본은 〈조선동해〉 해역을 먼저 〈일본해〉로 호칭한것은 일본이 아니라 서양이며 P.F.B. van Siebold 등이 간행한 지도에 의하여 서양에서 일반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당시 채국을 하고있었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책임이 없다고까지 하였다.

이글에서는 당시 일본은 실질적으로 채국상태가 아니었으며 오히려 당대시기의 일대해운국이였다는것을 밝히는데 있다.

1. P.F.B. van Siebold사건

P.F.B.van Siebold는 일본에도시대후기(19세기 후반기)에 화란동인도회사(和蘭東印度會社)의 일본상관의 의원으로 일본에 파견된 도이쉴란드인 의사이다. 또한 일본에 관한 자료를 수집한 인물이다. 1826년 봄에도(江戶)에서 다카하시/가게야수(高橋景保;1785~1829, 新訂萬國輿地全圖, 大日本輿地全圖), 하부/젠 세키(土生玄碩;1762~1848, 막부안과의사)들과 긴밀하게 교류하였

다. 1828년 소위 〈P.F.B. van Siebold사건〉이 발생하였으며 1829년에 일본국외(日本國外)에 추방되었다. 그는 추방되어 화란에 돌아간후 일본체류기간에 수집한 자료에 의거하여 소책자 〈일본〉을 간행(1832~52)하였으며 〈일본동물지〉, 〈일본식물지〉를 발표하였다. 그러나P.F.B. van Siebold는 〈일란통상조약〉(日蘭通商條約) 체결때1852~62년에 다시 일본에 왔던 인물이다.

〈P.F.B. van Siebold사건〉은 일본에서 발생한 에도시대후기(江戸時代後期)의 란학자탄압사건(蘭學者彈壓事件)이다.

P.F.B. Siebold는 高橋景保부터는 I.F. Krusenstern(1770~1846)의 〈세계주항기〉(世界周航記: Reise um die Welt in den Jahren)와의 교환조건으로 일본에 관한 구체적인 각종자료를 수집하였고 또한 이노/다다요시(伊能忠敬)의 전일본연해여지전도의 축도인(全日本沿海輿地全圖縮圖)에 의거하여 작성된 일본 지명이 정확히 기입된 〈일본략도〉 및 〈에조지도〉(蝦夷地圖), 그리고 마미야/린조(間宮林蔵; 1775~1844)가 쓴 〈동달기행〉(東離紀行)을 넘겨줄것을 요구하여 이것을 끝내 받아내었다.

한편 하부/젠세키(土生玄碩)부터는 개동술전수(開瞳術傳授; 눈동자수술기술)과의 교환조건으로 일본막부 장군이 배령한(將軍拜領) 아오이/문복(葵紋服)을 받았다. 1828년 귀국할때 태풍을 맞아 배가 파손하였다. 그때 짐속에서 일본국외에 류출하는것을 금지한 지도가 발견되었다. 이 지도는 다카하시가 이노/다다요시가 실측에 의거하여 이노가 죽은후 완성한 지도였다.

그 후 다카하시(高橋)는 옥살하였고 부하들은 신분박탈, 기타 다수의 다카하시의 연고자/관계자 및 양학자(洋學者)가 처벌된 대탄압사건으로 되었다.

2. P.F.B. van Siebold 사건의 내막

P.F.B. van Siebold가 나가사끼(長崎)에서 몰수당한 지도는 현재 일본국립도서관(日本國立圖書館)에 수장(收藏)되어 있다. 그러나P.F.B. van Siebold의 저서 〈일본〉의 출판에서 사용된 지도는 따로 존재한다. 그 지도는 몰수당한 지도보다 더욱 상세한 지도이다. 도이칠란드에 거주하는P.F.B. van Siebold의 장남이 소유한다. [아사히신문, 하타/신지; 秦新二]

다시 말하여 나가사끼에서 압수된 지도보다도 더욱 상세한 일본지도가 도이칠란드에 존재하며 그 지도에 의거하여P.F.B. van Siebold(1796~1866)는 저

서 〈일본〉을 집필한것이다. 그러면 상세한 일본지도가 이미 구라파에 류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P.F.B. van Siebold사건〉이 발생하였는가. 하타/신지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文政11年の 간첩전쟁〉(文藝春秋刊; 秦新二)

P.F.B. van Siebold와 마미야/린조(間宮林臟)는 서로 교류하면서 정보교환을 하였다. 또한 시마즈/시게히데(島津重豪)와는 특별한 사이였다. 島津重豪는 에도막부의 장군인 도쿠가와/이에나리(德川家齊)의 악부였다. 島津重豪는 그 지위를 리용하여 정치에 대하여 간섭하고 권세를 부리었으며 또한 화란과의 무역에 대하여 가담하였다. 뿐만아니라 중국과도 밀거래를 하였다. 이렇게 하여 재부를 저축하고 군사력을 강화하였다. 德川家齊는 악부의 이러한 행세를 용납할수가 없었다.

德川家齊는 어떻게 하여도 악부의 권세를 제거하여야 하였고 막부중신인 무라가키/사다유키(村垣定行)에게 제거할것을 명하였다. 村垣定行은 島津重豪와 P.F.B. van Siebold가 만날 때 사건을 조작하기로 하였다. 즉 사건을 날조하였다.

P.F.B. van Siebold는 間宮林臟만 아니라 모가미/도쿠나이(最上徳内)와도 정보교환을 하였다. 일본학계 일부 연구자속에서는 間宮林臟는 P.F.B. van Siebold와 모가미/도쿠나이(最上)와의 이러한 관계를 마당치 않게 생각하고 상부에 밀고하여 일부로 〈사건〉을 조작하였다는 설도 강하다. 즉 마미야(間宮)를 간첩으로 보는 견해이다.

3. 일본의 〈쇄국정책〉

일본은 쇄국정책을 실시하여 왔기때문에 〈일본지도〉를 외국에 가져갈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실관계는 일본은 당대의 해운대국이였다. 다음에 그에 대하여 본다.

우선 일본의 쇄국정책을 어떻게 볼것인가. 일반적으로 도쿠가와막부의 기초가 구축된것은 1600년으로부터 대체로 80년간이다. 이 시기에 막부의 막반제(幕藩制)에 기초한 농촌지배의 확립과 〈쇄국〉이 실시되였다. 이에 기초하여 일본의 산업과 문화가 발전하게 되였다는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德川家光의 시기 막반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쇄국령이 공포되였다. 쇄국령의 내용은 무역을 금지하는것도 아니며 외국문화를 부정하는것도 아니

였다. 쇄국의 목적은 무역의 권리를 막부자체가 장악하기 위해서였다.

즉 무역을 막부자신이 수중에 놓고 관리하는 수단이었다.

당시 일본의 지방정권의 세력은 강해지고 중앙정권인 에도막부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막부는 이를 방지할수가 없었다. 지방정권이 무역을 하여 재정력이 보다 강해지고 특히 외국에서 새로운 무기가 반입되는것을 막아야 하였다. 막부는 이리하여 자국민의 해외왕래를 통제하여야 하였다.

즉 에도막부는 지방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쇄국정책을 실시한것이다. 그러나 중앙정권인 에도막부의 해외진출을 제한것은 아니였다. 오히려 외국과 상거래를 하여 재정력과 경제력과 군사력을 강화하여야 하였다. 이리하여 에도시대에 해운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이상 본바와 같이 일본이 쇄국을 하여 해운활동을 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당치 않는것이다. 일본의 쇄국이란 지방정권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실시된것이다. 중앙정권과는 아무런 상관한 바가 없는 일이다.

4. 일본 에도시대는 해양대국의 시대

지금까지 력사학계나 연구자들속에서 일본은 쇄국정책을 실시하고 있었기때문에 조선기술(造船技術)이 약하고 미발전상태에 있었다는 설이 류포되였다. 이는 전적으로 옳지 않은 견해이다.

조선사연구가(造船史研究家)인 이시이/젠지(石井謙治)는 일본선박의 조선기술에 대한 계통적인 연구를 통하여 에도경제를 유지할수 있었던것은 일본이 대회선군(大廻船群)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것을 지적하였다. 다음에 이시시(石井)의 설에 대하여 요약하여 본다.

1609년에 에도막부가 〈대선박건조금지령〉을 발포한것은 서국대명소유(西國大名所有, 지방령주소유)의 500석(75t)이상의 군선(軍船)인 안따꾸선(安宅船)에 한한것이였다. 도꾸가와/이에야수(徳川家康)가 자신이 오사카에 입성(入城)하기 위한 준비로서 지방정권세력을 약화시켜야 하였다. 그를 위하여서는 해상봉쇄를 하여야 하였다. 즉 일반적인 쇄국정책을 하기 위하여 대선박건조를 금지한것은 아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었다. 다시 말하여 어주인선(御朱印船)과 같이 해외무역용의 대형항양선(大型航洋船/大型貿易船)의 건조는 금지된것은 아니다. 막부는 500석(75t)이상의 상선(商船)의 건조를 허용하여야 전국각지의 물산의 대량수송을 할수가 있었다. 당시의 일본은 룡로수

송은 매우 낙후한 상태에 있었다. 선박에 의존하지 않으면 일본경제는 파탄되었을것이다. 특히 1657년의 에도의 대화재를 계기로 복구자재의 수송 등 해운수송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였다. 에도의 인구는 당시 세계2위였다고 한다.

간분기(寛文期1666~73년)에는 막부가 해상수송의 강화정책을 실시한 시기이다.

쇄국하의 일본경제의 발전은 17세기후기에는 해상수송이 활발하였기 때문이고 정권이 유지된것도 해운이 발전하였기 때문이다. 일본의 조선기술과 항행기술의 수준은 상당한 높이였다.

실례로 오사까-에도(大阪-江戸)간의 운행선인 히가끼/가이센(菱垣廻船)만 보아도 현재의 도쿄만에 입항한 수는 300~500척(45t-75t)선박이 260척, 연간 연1300척에 이르렀다. 해운력사를 보면 당시의 무역선〔廻船〕의 주력선(千石船)의 항행술은 돛대에 의한것이였지만 그 수준은 외국인들을 감탕시킬 수 있는 수준이였다.

이리하여 18세기후반부터 19세기의 해운은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다. 예컨대 17세기후반기에는 오사까-에도간의 항행은 30일이였던것이 19세기가 되면15일로 단축되었을 뿐아니라 이후에는 항행기술의 향상으로 무역선 히가끼/가이센(菱垣廻船)의 왕래회수는 4회로부터 8회(10,000km이상)로 되었다. 동시에 선박의 대형화가 촉진되었다. 당시의 기록을 보면 낮항행으로부터 24시간 항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항행기술의 발전과 선박의 대형화에 의한 수송력의 증대는 에도(일본)경제를 더욱 확대시켰다. 무역선〔히가끼/가이센의 경우를 보면 17세기후기의 최대500척(75t)였던것이 18세기 중기에는 1000척(150t), 19세기후기에는 1900척(210t)으로 되었다.

다시 말하여 200년사이에 선박의 대형화는 4배로 되였던것이다. 이러한것은 무역선에 한한것은 아니였다. 일반선박의 경우도 전반적으로는 3배가 되었다. 항행기술의 발전, 무역선의 대형화는 경제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였다. P.F.B. van Siebold사건이 발생하였던 시기에는 300t급의 무역선이 항행하고 있었던 시기였다.

일본은 쇄국하에서도 해운은 현저히 발전하였으며 지역적인 범위를 벗어나 전국적인 해운망을 형성하고 당시 세계2위의 소비도시인100만인구를 가진 에도만 아니라 전국적인 시장을 구성하였으며 에도막부는 화란과 중국을 비롯한 해외무역을 발전시키고 있었다.

즉 일본은 쇄국을 하였다는 주장은 당치 않다.

5. 지도에서 나타나는 〈일본해〉에 대한 고찰

현재 일본에서 출판되어 있는 각종 백과사전들은 〈일본해〉로 명명(命名)한 인물은 I.F.Krusenstern(1770~1846)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I.F.Krusenstern은 러시아(Russia)에서 〈최초〉의 세계주항(世界周航; 1803~1806년)을 하여 조선동해를 〈통과〉하였다. 그 후에 작성한 지도(1815)에 〈MER DU JAPON〉로 기입하였다. 그러나 I.F.Krusenstern가 지도(1815; 세계주항기)를 작성할때 참고로 한 지도는 영국인 La Perouse의 지도였다(1787; 일본 주변도, 1799; 태양지). 이 지도는 물론 〈일본해〉로 기재되어 있는 지도이다.

〈일본해〉의 최초의 기록으로 보는 자료는 〈곤여만국전도; 坤輿萬國全圖〉(1602)에 나타난다. 일본 미야기현도서관수장(宮城縣圖書館收藏)이다. 이 지도는 이테리인 선교사 Mattero Ricci(1552~1610)가 작성한 지도이다. Mattero Ricci는 중국에서 체류하면서 서양에서 작성된 지도를 한자로 번역한 인물이다. 그때 지도를 충실이 번역하지 않고 원지도(原地圖)에는 무기명 또는 〈친(Chin)의 바다〉로 호칭(당시 16세기 후반 서양에서는 중국바다도 북방에 있는 지명을 호칭)한것을 〈일본해〉로 수정하여 기재한 인물이다. 오유 번역을 한것이다.

다음에 왜 이렇게 되었는가 본다.

Mattero Ricci는 1883/1~9월까지 Macau에 체류하였다. 같은 시기 Macau에는 Ignacio Lopez de Loyola(1491~1556)도 1883/ 1~12월까지 체류하고 있었다. I.L.de Loyola는 문학자료인 〈지나대왕국지; 支那大王國誌〉의 〈일본해〉부분을 담당한 인물이다. 그는 일본의 북방에 있는 바다를 〈하본의 바다〉로 기재하였다. 그가 일본부분을 담당한 인물이란것을 상기하여야 하여야 할것이다.

〈하본의 바다〉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일본해〉이란 고유명사를 나타내는것은 아니다. 〈하본의 바다〉이란 〈일본부근의 바다〉이란 일반명사이다. 일본인에 있어서는 자기나라부근의 바다는 다 〈하본의 바다〉였다.

Mattero Ricci와 I.L.de Loyola는 Macau에서 1583/1~9월사이에 이 〈하본의 바다〉를 의미하는 〈일본해〉이란 호칭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였던것이다. 〈일본해〉이란 고유명사가 아니었다.

또한 Mattero Ricci는 Societas Jesu(Jesu회/1840년에 修道會로 정식인정)의 선교사 Moreila와 교류하고 있다. 그는 1590~1592년까지 일본에 체류하였으며 일본의 지리조사와 일본지도를 제작한 인물이다. 그는 일본의 에조령주(蝦夷領主)인 가끼사기/요시히로(蠣崎慶廣)와의 접촉에 의하여 일본열도의 북방에는 대륙이 있다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정보를 입수하고 있었던 인물이다. Mattero Ricci는 이 〈최신지식〉에 의거하여 〈곤여만국전도;坤輿萬國全圖, 1602〉를 작성하였던 것이다. 이 지도에서는 일본열도의 북방에 있는 지명은 정확성이 없게 기재되어 있으나 대륙이 존재하며 〈동해〉수역이 닫힌 해역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렇게 작성된 지도는 간행후 Rome에 부송되었다.

이미 〈4. 일본 에도시대는 해양대국의 시대〉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일본의 에도시대는 해운대국였으며 일본선박이 왔다갔다한 Macau에서 작성된 지도는 일본인의 영향을 심히 받았고 일본인이 호칭하고 있었던 일본근방의 바다이란 뜻의 〈하본의 바다〉를 뜻하는 〈일본해〉가 서양에 류포하게 된 것이다. 이는 바다명칭이 아니다. 때문에 1615년부터 1622년까지 동양에서 작성된 Societas Jesu (Jesu회)의 지도에는 〈MRDE S JAPON〉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마치나 고유명사와 같이 오기된 〈일본해〉호칭이 기제된(현존하는 최초의 지도이라고 하는) 지도인 〈일본도1617〉(OAG;도이칠란드동양문화연구협회수장)는 Rome에서 발행된 지도가 되는 것이다.

다카하시/가게야수(高橋景保;1785~1829, 新訂萬國輿地全圖;1816년)가 작성한 지도에는 태평양쪽에 〈일본해〉, 조선동해쪽을 〈조선해〉로 되어있다. 그것이 1855년에 야마지/유끼따까(山路諧孝)가 작성한 지도인 〈신정만국전도;新訂萬國全圖〉이후부터 메이지시대(明治時代)에 와서는 〈조선해〉를 〈일본해〉로 변경하고 있다. 일본의 해외침략시기와 같은 시기이다.

맺음

일본이 주장하는 〈일본해〉는 서양에서 먼저 사용한것을 일본이 리용하고 있다는 주장은 허구이며 〈쇄국〉으로 일본이 〈세계〉와 격리되어 있었다는 주장도 허구이다. (사협중앙 리사)

주체적재일조선인운동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조련 제17차 중앙위원회에 대한 연구

요구상

조련시기의 정치로선을 확립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 회의가 조련 제2차립시대회(1946년 2월27,28일 양일간에 걸쳐 도포나가다국민학교에서 진행)였다. 그러나 그 대회를 개최한 시기는 조국에 진정한 인민주권이 수립되기 이전단계에서의 정치적방향을 확인한 대회였다고 말할수 있을것이다. 조련 제17차중앙위원회(1949년2월12,13,14일간에 걸쳐 조련도포본부강당에서 진행)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된 이후 가져진 중앙위원회로서 그 회의의 결정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었다.

총련이 결성되어 이제 반세기가 넘었다. 주체적로선을 확고히 견지하여 전개해온 재일조선인운동의 역사적과정을 하나하나 밝히며 경험과 교훈을 분석하는것은 운동연구의 본래 사명이다.

반세기전에 진행된 조련 제17차중앙위원회에 대한 고찰은 현시기 총련과 재일조선인운동이 겪고있는 난관을 극복하고 주체의 대로우에서 확신성있게 나아가는데서 의의가 있을것이다.

본 연구보고는 조련 제17차중앙위원회의 진행과정을 분석하면서 특히 그 회의가 추구한 기본정신과 회의가 재일조선인운동상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밝히는데 초점을 두었다.

※공화국이 창건 이후 처음으로 가져진 중앙위원회는 조련 제16차중앙위원회였다. 이것은 조련제5차전체대회(1948. 10. 14~16)의 마지막날에 진행한 회의이다. 따라서 17중위를 공화국창건이후 처음으로 개최한 회의라고는 말할수 없으나 공화국창건이후 실질적인 토의를 한 중앙위원회는 17중위라고 할수 있다.

1. 조련 제17차중앙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내용

1) 회의의 소집과 연기

조련 제17차중앙위원회의 소집에 대해서는 1949년1월6일부의 《조련중앙시보》에 의하면 이미 알렸다고 한다.

의제요강은 조련 제149차중앙상임위원회(1948. 12. 27개최)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소집시일은 1949년 1월 29, 30일 양일간, 회의장소는 조련도쿄본부 강당, 의제요강은 (가) 생활방위투쟁(나) 재정확립(다) 조직방위(라) 문화공작대의 활동(마) 중앙상위의 보선(바) 건의안(사) 기타로 되어있다(《조련중앙시보》 1949. 1. 6)

그런데 조련 제17차중앙위원회의 개최날은 각지방의 연기요망에 따라 2월 12, 13일에 연기하도록 되었다.(《조련중앙시보》 1949. 1. 16)

연기의 이유에 대해서 상기 신문에서는 지방의 요구라고 하고있으나 다른 몇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예측을 할수 있다.

하나는 어디까지나 추측의 범위를 벗어날수 없으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재일조선인 경축단사업과 관련된다고 볼수 있다. 경축단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접견을 받고 교시를 받았다는 사실앞에서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대책적문제를 토의하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이 요구되었다고 본다.

또한 조련과 민단의 대결이 더욱 첨예하게 되는가운데 일제시기 헌병협력대장을 하고 해방이후에는 조련효고결성에 참가했다가 다시 변질하여 건청중앙부위원장, 민단효고현본부단장이었던 현효섭의 피살사건(1949. 1. 21) 등이 있어 조련을 둘러싼 정세가 분분했기때문이었다고 볼수 있다.

이와함께 일본의 정치정세도 격동했다. 1948년 12월 23일에 도조 등을 교수형에 처한 다음날 기시, 고다마 등의 A급전범자 19명을 석방한 소위 극동군사재판은 일본의 반동화, 군국화를 촉진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1949년 1월 23일에는 일본총선거가 예정되었다. 당시 상황에서 조련도 무관하지 않았을것이다.

2) 조련 제17차중앙위원회 구호

조련은 경우에 따라 대회나 중앙위원회에서 스로강을 제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을 채택하였다. 조련 제17차중앙위원회는 스로강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고 《조련 제17회 중앙위원회 구호》(회의록)라고 하였다.

※ 조련4전대회(1947. 10)는 《대회스로-간》, 13중위(1948. 1)는 《스로-간》, 18중위(1949. 5)는 《18중위스로-강》 등

1. 우리 민족의 영명한 지도자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신 김일성수상을 받들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치 아래 굳게 결집한 재일 60만 조련맹

원은 애국인민을 학살하고 외군의 주둔을 요청하는 리승만도배들의 망국
매국적음모를 분쇄하고 국토완정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일본에 최후
발광하는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음모를 폭로하며 반대투쟁을 건
결히 전개하자 !

2. 우리나라는 노동자, 농민을 선두로한 근로인민의 나라이다 ! 우리도 신의
를 떠러트리는 부동생활과 유망성이 없는 직업을 속히 청산하여 생산적
이고 유망한 직업으로 전환하고 신의양양운동을 전개하여 배신행위를 격
멸하고 일터를 찾는 투쟁을 크게 발전시켜 직장에서 생활권을 옹호하며
인민공화국 공민의 자각과 영예를 갖고 일본인민들과 더불어 일본민주화
를 위하여 싸우자 !
3. 우리 어린이들을 빛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장래를 지고나설 앞
날의 일군으로서 교육하자 ! 4월신학년도를 맞이하여 우리 초등학교를 강
화하고 시설을 충실히 하며 어린이들에게 신홍인민국가의 어린이로서의
자랑과 책임을 갖게 하자 !
4. 문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치다 ! 인민의 나라를 더한층 빛나
게하기 위해서 우리는 본국민민에게 지지않게 한사람이 다 읽고 쓰고 배
우고 가르쳐 국가에 이바지할수 있는 인민이 되자 ! 글을 아는 한사람한
사람이 눈뜬장님 열사람을 없애는 전인민적운동을 일으키자 !
5. 기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건설의 열쇠다 ! 너도 나도 모두다 배우자 !
6. 우리국토에서 일본제국주의자들을 몰아내고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건설을 방조하고 돌아간 쏘련군만세 !
7. 새로이 대두하는 파쇼와 전쟁도발자의 음모를 분쇄하자 ! 조국독립을 위
협하는 일본재무장반대 !
8. 외자도입을 기회로 외국인재산취득의 정령으로 재일조선인의 력사적조
전과 현실을 무시하고 기득권과 재산권까지 박탈한후 결국은 일본에서
우리를 축출하려는 일본정부의 음모를 분쇄하자 !
9. 우리 인민생활을 파탄에 몰아넣는 대중과세를 철폐하고 생활향상을 보
장하라 !
10. 조련조직은 우리의 생활과 권익을 옹호하는 성새다 ! 적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기관을 방위하고 그 혈맥인 재정을 맹비제완전실시로서 확립하자 !
11. 조선녀성은 우리나라발전에 위대한 힘이 되여 어깨를 같이 하여 우렁
차게 나가고있다. 재일조선녀성도 본국녀성운동에 뒤떨어지지않고 영예스

러운 신흥민족국가의 어머니와 딸로서의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교양사업에 일층더 분투하자!

12.우리청년은 김일성장군에 돌려뭉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보위하고 그 발전을 위하여 문화와 기술을 습득련마한 선진국가의 영예스러운 민족간부가 되자!

※채택된 구호는 제17차중앙위원회회의록, 《조련중앙시보》(1949.2.16), 해방신문(2.15,2.18)에 게재된것을 참고로 하였다. 일부 표현에서 차이가 있다. 일부는 첨삭하였다.

3) 회의내용

조련 제17차중앙위원회는 2월12일부터14일까지 3일간 진행되었다. 회의장정면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기와 절세의 애국자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초상화가 정중히 모셔졌으며 12개의 구호중의 첫째구호가 쓰여져있었다.

2월12일 오전11시 《인민항쟁가》를 부르고 사회자의 개회선언,조련중총조직선전부장으로부터 140명의 중앙위원중에 88명이 참가하였다는 자격심사보고가 있었다.참가자는 12시 현재로 118명으로 되었다.(조련중앙위원은 5전대회에서 140명을 결정하였으나 그 중8명은 보류였다.따라서 당시는 132명인바 참석한 중앙위원은 118명,결원14명으로서 성립됨)다음으로 조련의장이 개회사를 하였다. 의장단이 착석하고 진행계를 임명했다.다음으로 12개구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서기장이 일반정세보고를 하였다.일반활동보고를 서기국국원이 하였다.그후 토론이 진행되었다.다음으로 조련회관건설위원회보고가 동위원회사무국장으로부터 있었고 그것을 승인하였다.그후 감사위원회의 보고가 있었다.

2일째회의는 11시에 속개, 중앙산업주식회사에 관한 보고가 되고 토론끝에 조련중앙회관은 60만동포들의 령세한 기금에 의한 특수한 재산이기에 상사가 소유하는것이 아니라 별개의 법인으로 하며 동사는 중앙인쇄소를 중심으로 증자하도록 하였다.계속하여 조직선전부장으로부터 《생활권옹호투쟁에 관한 건》의 의안설명이 있었고 토론을 진행하였다.당시 외국인재산취득에 관한 정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던 조건에서 이에 대한 일반설명과 도꾜지방조선인생활권옹호투쟁위원장의 보고와 토론끝에 투쟁을 전개해나갈데 대한 몇가지 결의를

하였다.그 사이에 고베형무소내의 동지일동에 보내는 팻세지의 채택,아동문화상에 대한 상장 및 상품수여식이 진행되었다.다음으로 재정활동에 관한 의안설명을 재정부장이 하고 토론,결론을 보았다.

3일째회의는 오전9시30분부터 시작,문교활동강화에 관하여 문교부장으로부터 의안설명 그이후 토론이 있었고 결론을 보았다.다음에 조련중앙위원의 변경,선출을 하였으며 새 상임 2명을 선출하였다.마지막에 폐회인사가 있었고 오후 2시에 폐회하였다.

2. 조련 제17차중앙위원회에 관통된 기본정신에 대하여

1) 회의가 소집된 환경에 대하여

조련 제17차중앙위원회에 관통된 기본정신을 틀어쥐기 위해서는 회의가 소집된 환경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그것은 한 마디로 당시의 국제정세,우리나라정세 또한 일본정세가 급격히 변화되어있던 시기에 회의가 소집된것과 관련된다.

제2차세계대전이후 제국주의 식민지체제는 붕괴되었으나 세계적판도에서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세력과 제국주의,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세력이 선명하게 되고 그 대립구도가 첨예하게 된것이다.특히 일본군국주의가 패망한 이후 중국은 다시 국공내전상태였으나 중국인민해방군이 1949년1월에 베이징에 입성함으로써 실질적인 승리를 이룩하였다.그후 10월1일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되고 장개석은 대만으로 도망갔다.동시에 미국은 트루먼독토린(1947.3.12),마샬계획(1947.6.5)을 연이어 발표하고 유럽을 거머쥐는 전략을 폈으며 1949년4월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조작하였다.동서랭전구조는 선명화되었다.

일본정세는 더욱 험악하였다.전후일본의 중립화구상안을 로골적으로 폐기하고 일본을 대륙침략의 교두보로 《불침공모》로 만들려는 미국은 군사,정치,경제,문화의 모든면에서 일본에 대한 점령정책을 강화하였다.그 전형이 로이알록군장관의 일본을 《반공의 방벽》으로 만든다는 선언(1949.2)이며 경제안정9원칙(1948.12.18)이고 돗지라인(1949.4.15)이었다.

미국은 1948년10월《일본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 대한 권고》(NSC13/2)를 발표하고 대일정책의 전환을 공식으로 승인하였다. 이것을 작성한 조지 케닝

은 마셜계획에 맞먹는 중요한 정책문서로 보고 있다고 하였다(《센고시, 전후사》 이와나미신서, 나카무라 마사노리). 1949년 민주세력에 대한 탄압사건이라고 할수 있는 시모야마, 미다카, 마쯔가와사건이 1949년 후반기에 발생하였다.

조선반도정세도 1948년 8월에는 남조선에 친미정권이 조작되고 9월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되어 남북이 분단고착화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우리 민족앞에는 하루속히 미제국주의침략자를 몰아내고 나라의 독립통일을 이룩해야할 절박한 과업이 나섰다.

조련조직을 놓고보면 1948년의 4.24교육투쟁, 공화국창건을 경축하고 공화국 국기를 제양하는 투쟁 등을 통하여 재일동포들을 공화국정부두리에 굳게 묶어 세우고 주체적력량을 더욱 강화하고있던 시기였으며 반면에 미일반동들의 조련탄압책동이 보다 로골적으로 감행될수 있는 우려가 있는 대단히 복잡할때였다.

조련을 둘러싼 조성된 환경은 조련이 조성된 정세의 추이를 깊이 감안하고 조련조직을 더욱 강력한 조직으로 발전시키며 조련일군들과 동포들을 결집시켜 나라의 독립통일을 위한 거족적투쟁에 불러일으킬것을 요구하였다.

2) 위대한 수령님의 두차례의 중요한 말씀

조련 제17차중앙위원회의 환경과 위치를 리해하는데 있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당시 재일동포들에게 돌려주신 령도와 배려에 대하여 옳게 파악하여야 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을 선포하신 이후 조련대표를 공화국평양에 초청하여주시였다. 1948년10월8일 국제전보를 보내주시였으며 방송을 통해서도 그것을 알려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공화국창건 재일조선인 경축단이 조국을 향하여 떠났으며 1948년12월23일에 수령님의 접견을 받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재일조선동포들은 자주독립국가의 해외공민된 궁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담화를 하시였다(《재일조선인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제1권, 4~10페이지).

위대한 수령님의 담화의 주된 내용은 3가지라고 볼수 있다. 첫째내용은 재일동포들의 처지의 변화와 동포들이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명시해준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재일조선동포들은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해외국민으로서 공화국정부주위에 굳게 뭉쳐야 하며 자주독립국가 해외국민으로서의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할것입니다》(우와 같은책, 5페이지)

《재일조선동포들은 높은 애국심을 가지고 공화국정부를 지지옹호하며 공화국정부의 시책을 받들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애국활동을 힘차게 벌려야 합니다》(우와 같은책, 6페이지)

둘째내용은 새 세대들에 대한 교육교양사업을 잘할데 대한 내용이다. 특히 재일조선아동들을 우리말과 글로 공부시키며 조선민족의 녀과 열렬한 애국정신을 가지고 나라의 장래를 걸머지고 나갈수 있도록 키워야 한다고 가르치시켰다.

셋째내용은 나라를 식민지화하고 조선인민을 노예화하려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책동을 반대하며 조국의 통일독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는 당시 재일동포들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준 강령적교시이다. 또한 재일조선인운동과 조련사업발전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진 투쟁의 기치로 되었다.

1948년12월23일의 담화는 해방이후 처음으로 조련대표들이 민족의 태양이시며 항일의 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만나 뵈고 직접 조련과 재일동포들이 나아갈 앞길에 대하여 가르치심을 받았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서는 또한 1949년1월12일의 방송을 통하여 귀중한 말씀을 주시였다. (《해방후10년일지 1945—1955》(조선중앙통신사1955년10월발행)에 의하면 1949년1월10일에 《내각수상 김일성장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수립을 경축하기 위하여 래조중인 재일조선인대표일동을 접견》이라는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실고있다. 10일의 접견내용과 12일의 방송내용의 관련에 대해서는 조사연구중이다.)

방송의 내용은 문헌집 등에 썬여져있지 않다. 따라서 조련 윤근의장이 조련제17차중앙위원회의 개회사에서 언급한것을 정리하겠다. 《조련중앙시보》의 일본말판에는 3가지내용으로, 해방신문은 2가지내용으로 보도하였으나 여기에서는 3가지로 정리하려고한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남북을 통일하고 국토완정을 위한 투쟁준비는 완료되었다. 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전진하라 !
2. 우리나라는 동양에 있어서 가장 선진적인 전진무퇴의 국가이다. 누구나 의심하는 일이 없이 여기에 맞먹는 국민으로서 신흥민족의 자량과 자부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인재를 양성하라 !
3. 우리나라의 원쑤는 일본제국주의이다. 반제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조국의 방위에 공헌하라 ! 우리들은 한거수한수족을 우리의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직결하여 나아가야 한다 ! 국어 또는 조선성명의 사용을 특히 강조하여야 한다 !

이상이 김일성수상이 1월12일 평양방송국의 마이크를 통하여 일본에 재류하는 동포들에게 요청하신 내용이다. 조련 제17차중앙위원회의 개회사에서 윤근의장은 이것이 이번 중앙위원회의 중심문제이라고 하였다.

한달사이에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두차례의 교시를 보면 공통하여 강조하신 부문이 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공통적으로 강조되어 있는점은 하나는 재일동포들이 공화국의 주권국가국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것이다.

다른 하나는 재일동포들이 신흥나라민족으로서 나라의 장래를 짊어져갈 인재로 준비하여야 한다는것이다. 즉 우리말과 글을 똑똑히 배우며 선진기술을 연마하여야 한다는것이다. 재일동포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고수하고 나라의 발전에 이바지할수 있는 자질을 갖추는데 대한 요구를 뚜렷이 제기하였다고 볼수 있을것이다.

공화국창건 재일조선인경축단에 주신 교시와 1949년1월12일의 방송을 통한 교시는 조련 제17차중앙위원회의 기본정신을 관통하고있다고 말할수 있다.

3) 주체적재일조선인운동을 전개하는데서 초점적문제를 제기한 회의

조련제17차중앙위원회의 기본정신은 한마디로 유일수령, 유일주권만을 받들어 나가며 우리말과 글을 사수하여 민족성을 견지할데 대한 사상이다.

회의의 기본정신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재일조선인운동과 동포들이 받들어 나가는 수령에 관한 문제를 이 회의를 계기로 명확히 한것이다. 다시말하여

오직 한분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만을 재일조선인운동의 령도자로 받들어 나간다는 자세와 립장을 선명히 한것이다.

그것은 회의에 제출된 보고 등의 기본문건에 관통되어있는데서 볼수 있다. 의장의 개회사에서는 《**김일성**수상은 아래와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고 해서 교시내용을 전하고 그것을 관철하는것이 본 회의의 중심문제라고 력설하였다. 서기장의 일반정세보고에서는 조국의 정세를 《우리 민족의 령도자 **김일성**장군의 옳바른 지도하에 동양의 선진국가로 발전》하고있다고 하였다. 특히 회의에서 채택된 12가지 구호중에서 첫자리구호는 《우리 민족의 영명한 지도자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신 **김일성**수상을 받들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치 아래 굳게 결집한 재일60만조련맹원》이라고 하여 우리의 령도자를 받드는 자세를 뚜렷이 하였다.

※ 공화국창건이전의 조련 제13차중앙위원회(1948.1), 조련 제14차중앙위원회(1948.4), 조련 제15차중앙위원회(1948.7)의 구호들에는 조련 제17차중앙위원회와 같이 명확하게 정치로선적인것을 밝힌것을 찾기 어렵다. 17중위이후에 열린 조련 제18차중앙위원회(1949.5)의 스로강은 당시 운동조건에 맞게 《리승만매국정권의 주일대표단을 축출하자》 《매국일한무역을 반대하고 조일인민무역을 촉진시키자》 등이 있다. 조련 제17차중앙위원회는 특출하였다고 볼수 있다.

유일수령문제는 회의의 장치의 면을 보아도 알수 있다. 다시말하여 회의장 정면에 수령님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신데서도 말할수 있을것이다. 지난시기 조련의 대회나 회의의 정면에는 다른나라 지도자들과 몇사람의 초상화를 함께 모신적이 있었다. 령도의 담당자문제, 령도의 중심문제가 똑똑히 서지 못한것이였다.

조련 제17차중앙위원회의 기본정신은 둘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을 조선인민의 진정한 주권국가로 내세우고 그 정부두리에 뭉쳐나간다는것을 선포한것이다. 다시말하여 이번 회의를 계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직결하는 립장을 공화국창건 당시보다 더욱 명확히 하였다는것이다.

회의를 보도한 해방신문기사에는 회의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이번 중위에서 특히 주목할것은 회장의 공기나 토론에 있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민으로서의 자랑과 자부심을 가지고 선진국가의 신흥민족의 영예를 자각하고 조국과 직결해야 한다는 새로운 정신이 흐르고 있는점이다》(해방신문, 1949.2.15)

물론 서기장의 일반정세보고는 더욱 확실하게 언급되어있다. 즉 《재류 60만 동포는 이와 같은 조국의 발전에 직결하여 모든 행동을 여기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는것》을 지적하였다. 동포들의 생활개선문제, 청년, 부녀, 아동들의 교육문제 등도 다 공화국의 공민된 자각으로부터 출발하여 공화국에 직결하여 사업하기 위한데 수렴되어가게 하였다.

공화국이 우리 인민의 진정한 정권이라는것은 당시의 리승만정권에 대한 립장에서도 명확하다. 구호에 있는것처럼 《애국인민을 학살하고 외국의 주둔을 요구하는 리승만도배들의 망국매족적음모를 분쇄》한다는데서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회의의 기본정신은 셋째로 재일동포자제들을 유능한 민족인재로 교양육성하는 굳은 결심이다.

회의는 청년과 아동들을 나라의 장래를 걸머지고 나갈 인재로 키워야 한다는것을 뚜렷이 하였다. 또한 그들에게 우리말과 글로 교육시키는것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제기하였다.

12월23일의 담화석상에서 수령님께서 우리말과 글로 새세대를 키울데 대하여 강조하시였고 그를 관철하려는 당시 일군들도 우리말을 쓰려고 힘썼다. 조련 제17차중앙위원회의 명칭을 국문으로 표기하도록 한것도 노력의 일단이라고 볼수 있다.

문교부장의 의안설명에서는 《지난 1월12일 김일성수상은 재일동포는 신흥민족으로의 긍지와 자신을 가지고 장래에 국가를 지고나갈 아동을 완전한 조선인으로 양육하는 중대한 임무를 등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하면서 아동교육의 중요성과 제기되는 과업을 밝히고 있다. 이것 역시 교시의 정신을 구현하려는 표현이라고 할수 있다.

조련 제17차중앙위원회의 기본정신은 민전시기 사대주의, 민족허무주의에 빠진 사대종파분자들의 책동으로 인하여 애매하게 된때가 한때 있었으나 총련결성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맥맥히 이어지고 계승발전되어 있다고 말할수 있을 것이다.

3. 재일조선인운동에서 조련 제17차중앙위원회가 차지하는 위치

조국해방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재일조선인운동력사에서 전환적의의를 가지는 가장 큰 사변은 총련의 결성이라고 말할수 있다. 총련의 결성은 재일조선

인운동과 재일조선인의 운명에서 근본전환을 이룩하였다.

총련의 결성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재일조선인운동전환방침을 구현한 결과 이룩한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총련이 결성된것은 1955년이지만 재일조선인운동이 자기의 조국과 민족, 조선혁명을 위하여 주체적인 해외교포운동으로 발전하기 시작한것은 1952년부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재일조선인운동은 주체의 길을 따라 40년의 력사적로정을 걸어왔다고 말할수 있습니다》(《재일조선인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제5권, 231~232페이지)

재일조선인운동에서 근본전환을 이룩한것이 총련의 결성이라면 총련결성이 전시기 다시말하여 1952년이전의 운동에서 조련 제17차중앙위원회의 위치를 어떻게 볼것인가 하는 문제가 당연히 제기된다.

재일조선인운동에서 총련결성이전시기라는것은 조련시기와 민전시기인데 민전시기의 운동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오류를 범한 심각한 시기의 운동이기때문(물론 전면부정이라는 의미는 아니다)에 주로 조련시기의 운동상 위치를 보아야 할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위치라는것은 사회적운동상의 위치이며 다른말로 정치적방향, 정치로선상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말하는것이고 그 위치를 분석하려고 하는 것이다.

조련시기의 정치로선상에서 중요한 계기로 된것은 무엇보다도 조련제2차림시대회까지의 활동과 림시대회를 들수 있다. 이 표현을 그대로 리해하면 조련결성 이후 조련제2차림시대회까지의 전기간이라는 의미로 되며 그것은 계기를 설정안하는것이나 다름이 없게 된다. 사회적운동을 단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우나 꺾여서 말한다면 림시대회에서 승화되었기에 림시대회가 중요한 계기라고 말할수 있다.

이 부분의 리해를 위하여 조련제3차전체대회에 제출된 《총무부경과보고》의 일부를 길지만 인용한다. 《결성대회이후 당시의 긴급문제였던 귀국동포계획수송도 예기이상의 성과로서 일단락을 짓고 실질적으로 전국조직을 완료한 이때에 급템포로 진전하는 객관적정세에 주체적조건을 대응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진용을 일신하고 단결을 강화하는 동시에 모호한 정치로선을 명확히 규

정하고 구제수송등 사업면의 편중을 시정하여 특히 일반활동방침수립, 민족통일전선강화, 선언, 규약, 강령, 규약수정등을 통하여 우리의 정치로선을 확실히 규정하고 조련의 성격을 일층 명확히 하는 동시에 조국건설에 대한 재일동포의 열렬한 의사의 성의 표시등 의의는 깊고 중대하였다고 본다》(47페이지, 밀선은 필자)

특징적사실을 몇가지 본다.

무엇보다도 모스크바3상회의결정에 대한 조련의 태도문제를 뚜렷이 한것이다. 조련은 3상회의결정을 조국의 4대정당이 공동콤뮤뉴케를 발표하고 결정안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도 그러한 판단에 의거하기보다는 조련조직이 조향을 하나하나 《엄정히 분석음미한 결과》 지지한다는 태도를 명확히 하였다. 조련은 3상회의결정을 절대지지한다는 견해를 1946년1월16일에 발표하고 조련 제4차중앙위원회(1946.1.31~2.1)에서 그것을 승인하였다. 즉 조련은 미제와 리승만도당이 떠든 《반탁》이 아니라 명확히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시하고 활동할것을 명확히 한것이다.

다음으로 조련은 자기강령에서 《신조선건설에 기여한다》는 문제를 추상적인 신조선이 아니라 인민의 지지를 받는 정권을 목표로 하였다. 조국각지에 만들어진 인민위원회를 탄압하는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인민공화국》 지지를 선명히 하였다. 당시의 《인민공화국》 지지문제에 대하여 부르조아공화국을 지지한다고 규정하여 비판하는 경향이 있으나 당시 상황에서 부득불한 현상이라고 볼수있다.

다음으로 립시대회진행과정에서 조련의 성격문제, 지향하는 진정한 정권문제 등이 논의되면서 조련을 파괴하려는 반동분자, 민족반역자와 그들의 주장을 비판, 분쇄하면서 조련이 나아갈바 방향을 선명히 하였다.

이상의 사실들을 고려하면 한마디로 말하여 조련제2차립시대회를 계기로 조련의 정치로선이 일정하게 확립된것이라고 할수 있다. 《반탁》을 부르짖은 미제와 리승만도당이 대대적인 반탁운동을 벌리게 한 남조선과 달리 조련은 3상회의결정을 지지하던 북반부의 정당, 사회단체 그리고 인민들과 함께 투쟁해나가는 방향성을 더욱 뚜렷하게 하였다.

립시대회이후의 재일조선인운동을 보면 미제와 리승만을 지지하는 세력은 일정한 기간을 거쳐 민단을 결성하였다. 립시대회에서 대회를 혼란시키고 튀어나간 사람들은 거의나 민단으로 흘러갔으며 민단은 북조선의 립시인민위원

회, 나아가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세력으로 되어나갔다.

그러나 조국강토에 진정한 인민의 정권이 수립되지 못한 조건에서 조련 제2차립시대회당시는 수립하려는 어떤 정권을 지지하고 활동해나가는데까지는 밝힐수 없었다고 본다. 조련이 활동하던 시기적제한성은 면할수 없었다.

조련 제2차립시대회당시가 정치로선에서 일정한 방향성을 명확히 한 대회였다면 조련 제17차중앙위원회는 민족을 대표하는 령수의 지도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지지하고 모든 활동을 거기에 직결하여야 한다는 정치로선을 확정한 회의였다고 말할수 있을것이다.

그것은 이미 본바와같은 조련 제17차중앙위원회의 기본정신이 힘있게 말하여준다. 조련 제17차중앙위원회는 그러한 의미에서는 해방이후의 그 어느 대회나 회의보다도 정치로선상문제를 명확히 다루고 확신성있게 동포들이 나아가도록 한데서 획기적의의를 가진 회의였다.

물론 조련 제17차중앙위원회의 회의마당에서 갑자기 제기되고 접수되었다고 보는것은 잘못이라고 본다. 수령의 문제를 제기하여도 조련의 일군들이 받아물고 또한 동포대중에게 자신있게 호소할수 있는것은 해방이후로부터 조련이 벌려온 정치선전교양사업, 4.24교육투쟁을 비롯한 민족교육사업과정, 미제와 리승만도당을 반대하고 북조선인민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을 지지옹호하는 사업과정 등 조련의 조직사상건설과 각종활동의 축적이 있어서 가능하였던것이다.

조련 제17차중앙위원회의 정신은 후에 나온 재일조선인운동의 주체적로선전환방침을 옳게 접수하고 관철해나가는 사상정신적준비를 갖추는 하나의 계기로 되었다고 말할수 있을것이다. 유일수령, 유일령도와 유일주권에 관한 자세와 관점이 옳게 서있었으므로 로선전환방침을 접수하고 그를 구현하기 위한 총련결성을 위한 투쟁을 애국적활동가들이 조직전개할수 있었던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로선상의 문제를 더욱 부연시켜 그것을 조련의 조직사상건설사업에 철저히 관통시키지 못하였다. 조련조직내부에는 일본공산당의 지도밑에 일본의 민주화를 보다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는 일군들이 있었으며 사상의지의 통일을 보지 못하고있었다. 또한 내외반동들의 탄압책동이 강화되는속에서 활동의 많은 력량이 그들의 탄압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으로 돌려지고 주체력량을 강화하는데 돌리지 못하였다고 말할수 있다.

재일조선인운동에 옳바른 정치로선과 조직로선이 확립되는것은 운동의 로선전환방침이 제시되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과 그 결실로서의 총련의 결

성을 기다려야 하였다.

맺음

이상에서 본것처럼 조련제17차중앙위원회는 유일한 수령을 모시고 공화국에 직결하는 방향을 뚜렷이 한 의의있는 회의였다.

조련 제17차중앙위원회이후 조련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이끄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애국활동을 보다 힘차게 조직전개하였다.

조련이 올바른 방향에 따라 운동을 전개하고 일본의 평화와 민주주의운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있던 조건에서 조선전쟁을 준비하던 미제와 그에 추종한 일본당국은 조련을 탄압하는데 혈안이 되었으며 1949년9월8일에 드디어 조련을 강제해산시켰다.

재일조선인운동은 조련 해산이후 시련을 겪었으나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로선전환방침을 구현하여 총련을 결성함으로써 운동의 전환을 가져오게 되었다. (재일본조선인력사연구소 부장)

国立公園 伊豆下田温泉 柿崎海岸 南進興産株式会社 ホテル 海 山 荘 社長 安田敬子 〒151-0051 東京都渋谷区千駄ヶ谷5-32-6 大西ビル405 TEL 東京<03>3341-2927
有限会社 明月館 代表取締役 崔順在 〒020-0835 岩手県盛岡市津志田12-24-1 TEL 019 (638) 9334 FAX 019 (638) 6334
有限会社 ケースクラフト 熱硬化性、熱可塑性成形加工 代表取締役 安順子 〒962-0203 福島県岩瀬郡長沼町長沼字町尻26-5 TEL 0248-77-1129 FAX 0248-77-1333 携帯 090-5397-8455

량만주의의 계보로부터 고찰하는 일본의 탐미적국어관 연구

박호렬

1. 서론

최근에 출범한 아베정권은 일본의 험악한 사회풍조 (자살자, 실업자, 년소자에 의한 흉악한 범죄의 증가, 부익부빈익빈화, 중국의 대두에 의한 민족주의 등)에 의한 인민들의 불만과 불안을 《아름다운 나라》전설이라는 말로 무마하려 하고있다는 분석이 있다.

이 《아름다운(美)》이라는 말은 개념이 애매모호하며 추상적인 말이다. 일본의 우경화에 대해서는 지난 시기 일본의 식민지로 된 아세아나라들뿐만 아니라 서구나라마저 경종을 울리고있는 형편에서의 미의식 고취에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수 없다.

실은 이 애매한 미(美) 라는 말은 언어(국어)문제에도 검은 구름을 몰아오고있다고 볼수 있다. 검은 구름이란 국어문제를 놓고 타민족에 대한 배외성과 차별, 그리고 일본문화(언어, 문학, 도덕관의 전통 등)의 우수성을 고취하면서 학교교육과 인재양성에서 핵을 이루는 국어문제를 근대회기로 되돌려 세우는 우경적, 역사망각적 언어풍조라고 필자는 보고있다.

이 논문은 최근 일본에서 만연되고 있는 국수주의적인 국어관의 특징 그리고 이것이 나오게 된 사회력사적배경과 뿌리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면서도 재일조선인들이 우리 말 계승에 관한 연구를 깊이기 위한 하나로써 일본의 력사적 및 현실적배경을 리론적으로 밝히며 배타적언어환경속에서 우리의 국어를 어떻게 구축해나가겠는가에 대한 문제고찰과 실천의 도움이 될 것을 겨누면서 《마무리》하였다.

본고에서는 서적(논문)명, 저자명은 립지조건과 독자들의 금후 편의를 도모하는 립장에서 일본에서 일반화되고있는 말(일본서적에 의거)로 표기하며 추상화된 한자말도 필요에 따라 그냥 표기한다는것을 량해바란다.

2. 근대회기현상으로서의 천황제국가주의적인 국어관

1) 현대 일본사회에 만연되고있는 국수주의적국어관 개관

일본은 패전후 주기(불규칙적이지만)적으로 국어에 대한 물의가 사회적인 관심사로 상정되어 왔으나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질량적으로 지난 시기와는 확실히 다른 양상을 띠고있다고 분석할수 있다.

그것은 일본의 교육제, 학계뿐만아니라 언론계, 실업계, 정계가 관심을 가지면서 국어에 대한 교양서 같은것을 련이어 출판하고있는데서 알수 있다.그뿐만 아니라 천황제찬양, 식민지망각(司馬史觀, 自虐史觀)을 대표하는 우익인물들마저 국어중시론을 주장하고있다. 이러저러한 국어중시론에서 우리는 일련의 공통성을 엿볼수 있다고 본다.

최근 국어(관련성이 있는)문제를 론하고 있는 우경적인물들(사회적영향력이 있다고 보이는)로는 渡部昇一, 岡崎久彦, 中西輝政, 藤原正彦, 櫻井よしこ, 西部邁, 安倍晋三 등을 들수 있다.서적 두개만 언급한다면 다음과 같다.

安倍(「美しい国へ」文芸新書2005)는 《교육의 목적은 뜻있는 국민을 키우고 품격있는 국가를 건설하는것이다/일본의 나라모양(国柄)을 표현하는 근간이 천황제이다》고 론하고 있다.

櫻井(「氣高く、強く、美しくあれ」小学館2006)는 《전통적미풍의식을 깔면서 教育勅語와 明治憲法이 쌍벽을 이루면서 일본의 토대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일본의 전통과 보편성이 담겨진 教育勅語》라는 평가와 함께 명치시대와 《전통적미풍》을 극구 찬양하면서 《영광스런 제국》, 명치시대로의 회기를 교육과 특히는 국어를 통하여 실현시키자는 의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있다.

자료에 의하면 아베의 측근들속에는 八木秀次를 비롯한 역사수정주의자들인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회》성원¹들, 西岡力를 비롯한 《탐치피해자를 구원하는 회》성원들과 우경적경향을 띤 인물들(우에서 언급한 岡崎, 中西, 藤原 등도 포함)이 많다고 한다.

아베의 저서를 읽어보고 느낀것은 이러한 측근들의 론조와 비슷하며 어휘쓰임에서도 공통성이 있다는것,그리고 아베(改正教育基本法の 愛国心条項)가 지향하는 국어관에는 이러한 측근들의 사상이 반영되어있다는것이다.

이에 대하여 한가지만 실례를 든다면 일본의 文化審議会国語分科会2004年2月答申《앞으로의 시대에 요구되는 국어력에 대하여》에서는 《결국 국어는 문화이면서도 전통이다》, 《미적감성, 무사도적애상,그리움,가족애,향토애,일본의 문화와 전통 그리고 자연을 사랑하는 조국애...이 힘(리해력)은 자연히 몸배이는것이 아니라 주로 국어교육을 통해 체득되는것이다》고 력설하고 있다.

알아본즉 이 분과회에는 藤原正彦가 속하고 있을뿐만아니라 그의 국어사상이 크게 반영되어 있다고 한다. 즉 그는 일본의 국어(언어)교육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할수 있다.

후지와라가 펴낸 책들은 2006년도 일본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의 하나라고 한다. 레컨대 《国家の品格》는 2005년11월 판매시작후 반년동안에 200만부이상 팔렸다고 하며 지금도 계속 독자들이 구하고있다고 한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이 읽히우면서 그의 국어사상이 사회적지위(영어교육강화와 상반)를 획득하고 있는 현실은 그의 저서분석이 필요불가결일것으로 간주된다. 리유인즉 그의 저서군들에는 일본 특유의 국수주의적국어관이 맥박치고 있기때문이다.

2) 후지와라의 저서군들이 표출하는 논리의 모순과 비약

여기서 분석하는 서적은 05~06년도에 걸쳐 연속출판된 《国家の品格 (05, 新潮新書) 》, 《祖国とは国語 (06, 新潮文庫) 》, 《この国のけじめ (06, 文芸春秋) 》로 한다. 그는 국어를 통해 국민(학생)들이 지녀야 할 도덕지침으로 新渡戸稲造《武士道 (06, 三笠書房) 》를 강조하고있다. 그의 국어관점리해에서는 이를 놓치지 못할뿐만아니라 그의 국어관의 사상정신적핵을 이룬다고 판단 되기때문에 필자는 이 저서군들을 《藤原에 의한 3부작과 부록》으로 보고 분석한다.

(1) 3부작에 대하여

3부작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본을 이룬다고 말할수 있다. 요약한다면 「오늘 일본이 타락된것은 애국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타락에는 서양의 물질문화환상주의도 있다, 이것은 국민이 일본의 우수한 문화전통을 망각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국가의 모양(国柄)을 회복해야 한다, 회복을 위해서는 국어교육이 중요하다, 국어에서 취급해야 하는것은 세계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고 일본사람만이 지니고있는 미적감성이며 문학유산이며 향토애이며 자연관이며 무사도이다, 이것들이 융합이 될 때 国柄가 회복된다, 이것이야말로 世界最古/無比의 天皇制国家의 品格이다, 이제는 단연코 결단(けじめ)을 내려야 한다」로 된다고 필자는 파악하고있다.

이 3부작에는 심각한 논리적모순과 비약이 많으나 지면상 4가지만 지적한

다.

우선 국어는 조국인바 국어를 상실한 아이누와 琉球민족은 비참한 운명을 면할수 없었다는 교훈을 현대인들에게 주고있는데 이 민족들의 언어를 빼앗고 침략과 략탈을 일삼고 오늘도 차별적동화정책을 실시하고있는것은 누구인가 하는 문제의 본질론술이 없다.

둘째 일본이야말로 지난 2천년동안 외국과의 전쟁을 거의 아니한 폐외적평화애호국가였고 1937년까지는 민주주의국가였다는데 과연 그런가? 하는 문제이다. 조선과의 관계만 몇가지 꼽아도 임진왜란 때의 야만성, 식민지시대의 군사적탄압과 학살을 어떻게 보겠는가, 대량랍치의 력사와 중군위안부, 731石井部隊만 하더라도 인류가 낫붙히는 죄행인데도 불구하고 보상은 커녕 진심으로 되는 사죄도 없다.

셋째로 일본에 필요한 인재는 국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내대는 기개를 가진 인물이라 하는데 《무엇을 위해》라는 설명이 애매하다.

넷째로 국민적인 국어사랑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도테의 《마지막 수업》을 인용하고있으나 후지와라가 이 작품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성(소설이 배경으로 하고있는 사람들의 언어문제)정도는 알아야 설득력이 있을상 싶다. 그것이 어렵다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눈초리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이다. 사회언어학적인 시점을 무시(결여)하여 구태여 이 작품을 언급한다면 응당 식민지조선의 언어상황이 떠오르기 마련이며 아르매선생을 조선어를 가르치고 싶어도 못가르치는 식민지조선의 량심있고 지조 높은 교원으로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론리적인 모순과 비약으로 가득찬 후지와라의 책들은 결국 사회적분위기를 환상의 세계에로 이끌기 위해 국어를 일본민족의 자랑찬 력사와 문화전통의 우수성을 교양하기 위한 수단, 즉 도덕수양과목으로 설교하고있다는것으로 분석된다.

그의 저서들에는 일본의 자랑이 가득차있다. 레컨대 고전문학은 세계 으뜸이며 茶道、歌舞伎를 비롯한 전통문화는 일본인만이 감득할수 있는 美的情緒가 흘러넘치고 있으며 도덕과 절절은 세계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무사도가 있으며 아름다운 自然과 田園이 펼쳐지고있다는 식이다.

이것은 일본이 명치유신후 아세아의 맹주, 유일한 《文明一等国》이었으나 국제적인 세계화(그로발화)의 흐름으로 일본고유의 《장점》이 사라지고있다는 위기의식과 지난 시기 식민지 및 《약소비문명국가》로 인식하던 나라들이

대두하면서 전횡을 마음대로 일삼을수 없게 되는데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전쟁에서의 패배로 인한 점령과 평화헌법에 대한 우경적불만의 분출이라 할수 있다.

여기로부터 司馬史觀이 찬미하는 영광찬 명치시대(청일/로일전쟁 승리, 대만/조선의 식민지, 明治憲法/教育勅語, 영웅적인물/단결된 국민)가 그리울뿐만아니라 사상정신적回歸에로 줄달음칠것을 원하면서 그 실현수단으로 국어교육을 론하고있다고 분석할수 있다. 이것이 현대일본에서 사회적지위를 획득하고자 하는 歴史修正主義的国語觀인데 현대 일본국어관의 첫째특징으로 볼수 있다. 이는 바로 국민과 민족의 역사를 《아름다운 허구(物語的歴史)》로 엮어보자는 空想・幻想的浪漫主義의 일종으로 된다.

(2) 新渡戸稲造 《武士道》와 근대일본의 자아의식의 성립

국어교육의 중요성을 도덕교양으로 보는 藤原를 비롯한 일본의 국어관계자들(정제인물도 포함)이 제일본보기로 삼는것이 新渡戸의 《武士道》(최근 100만부이상 팔리고있다고 한다)이다. 이것이 과학적이지 못할뿐만니라 인위적인창작품적성격이 짙은데 대해서는 여러 일본연구자들이 론하고있다. 레컨대 菅野覺明²은 원래 무사도는 戰鬪者의 사상이며 徳川幕府時代의 武士思想은 儒教的土道思想였다는것, 즉 일본에는 ①葉隱의武士道、②儒教的武士道만이 존재하였는데 新渡戸 《武士道》는 명치시대에 새로 구축된 日本民族은神思想으로서의 제3의 무사도, 즉 《明治武士道》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면 이 新渡戸 《武士道》를 우리가 어떻게 보겠는가?

당시 서양에서는 《비문명지역》인 아세아에 대해서 《東洋の專制》라는 부정적인 동양관에 기초한 헤겔(ヘーゲル)의 認識(《歴史哲学講義》)이 지배적이던 상황(이러한 言說에 대해 일본에서는 1875년, 福沢諭吉 《文明論之概略》에 의해 《脱亜入欧》가 본격화되어 나간다고 볼수 있다)에서 1899년 미국에서 집필한것이다. 이 저서는 서양근대화를 다그쳐 청일전쟁에서 이긴 일본은 비록 종교(예수교)가 없어도 우수한 도덕관념을 가진 민족이라는것을 선전하여 일본은 비록 동양에 위치하면서도 조선이나 중국과는 다르며 능히 제국주의 열강대렬에 들어설 자격이 있는 도덕이 높은 민족이라는것을 강조한 저서라고 볼수 있다.

이 무사도의 역할상의 본질은 근대국민국가형성을 다그치기 위한 《日本精

神의 近代的自我創出》이며 국민총동원(대륙침략이 목적)을 위한 《虛構精神思想》이라 분석할수 있다.

명치유신이후 시행착오를 거듭하던 명치정부는 《天皇制国家》라는 국가리념을 확립하기 위해 련속적으로 정치, 군사,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들을 정하여 나갔다. 그리하여 국가주의에 의한 국민전체의 통합사상을 형성하여나갔다.

력사적흐름으로는 1872년 徴兵制布告, 1882년 軍人勅諭發布, 1889년 大日本帝國憲法發布, 1890년 教育勅語發布, 그리고 이 新渡戸 《武士道》에 의해 근대제국주의일본의 《国体》, 다시말하여 천황을 頂点으로 하는 국수주의적인 《單一大和民族国家思想》의 형식과 내용이 확립되었다고 분석할수 있다.

이것의 성격은 외국의 민족주의연구자의 해석을 빌린다면 《만들어진 일본의 국수주의》이며 《공격적인 제국주의성격》³으로 된다고 본다.

후지와라를 비롯한 복고주의국어관(문화론으로 보는 국어관이라고도 분석이 가능할것이다)에는 무사도해석의 비논리성이 있음을 지적해야 할것이다. 원래 전통적인 무사도는 地方大名(殿様)에 대한 복종이 핵을 이루었으나 어느새 천황으로 둔갑시키고 있다는것이다. 즉 에도시대와 명치이후는 무사도에는 련속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사 이래 일본은 천황이 중심인 나라로서 일본국민 또한 천황을 중심으로 나라를 운영하고 목숨 바쳐 살아온것처럼 언설(天皇制国家主義)을 류포시키고있다.

후지와라의 저서는 이러한 마음과 同一的道德意識이 일본의 전력사를 지배해 왔다, 때문에 천재를 많이 낳는 토양, 무사도적인 미의식과 서글픈 심정(もののあわれ)으로 세상사람들이 찬사를 아끼지 않다는식으로 서술되어있다.

니도베 《무사도》를 숭상하는 현대국어론자들은 《정한론》의 두목들인 本居宣長와 吉田松蔭의 노래를 들어 桜花와 大和魂를 찬양하면서 이것역시 일본사람들의 속마음에 숙명(천성)적으로 배인 고유의 관념인것처럼 여기고 있다.

지면제한상 하나씩만 반론을 적는다면 桜花는 군국주의에 의해 죽음과 大和魂(日本精神)의 상징, 즉 일본미의식으로 리용되었다는 연구저서들이 많다는것⁴, 원래 大和魂(心)는 平安朝의 녀성들의 마음을 내용으로 하고 국수주의와 정한론의 시조격인 本居宣長도 그런 의미에서 해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国学者・平田篤胤(1776~1843)에 의해 護国魂의 의미로 미화분식되어 幕末・明治시대로 이어졌다고 분석할수 있다⁵.

사실이 이렇진대 국어복고주의자들은 근세/근대를 거쳐 만들어 고정화된 정신을 마치나 일본문화의 뿌리(력사의 필연적산물)인것처럼 여겨 국어교육을

통해 사상정신상 비과학의 세계에로 인재양성을 유인하려 한다고 보지 아니할수 없다. 이는 과거의 리상을 추구하려는 回顧的浪漫主義인데 현대국어관의 둘째특징으로 볼수 있다.

3. 탐미로 일관된 현대일본의 랑만주의적국어관의 계보

1) 탐미고찰

현재 일본의 국어는 지난 시기의 문화전통으로 지향하고 있다고 말할수 있다.

후지와라와 그 계통의 국어론자들은 일본의 伝統, 文化, 古典文学, 自然, 田園, 郷土, 武士道, 道德, 情緒, 公共들을 중요시 하면서 특유한 민족적미의식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농후하다. 이러한 미의식(천황을 찬양한 국기, 국가 사랑도 포함)이 충만되어야 品格있는 나라모양(国柄)을 회복될수 있다는것인데 이러한 말들은 본고 2.1)에서 언급한 인물들의 공통키워드라 할수 있다.

에도시대까지 쇄국정책을 편 일본은 물밀듯이 들어온 서양가치관과 문물에 의해 자의식의 상실과 근대화라는 문제에 부닥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과 일본인, 그리고 전통에 대한 일본문화론이 성황을 이루게 된다. 이 문화론들의 특징은 일본고유의 것을 찾아내어 론하는것들이 적지 않다. 西郷隆盛 이후의 征韓論의 실천을 동반한 본격적인 재생과 침략성을 드러낸 제국주의의 성격상, 문화론들의 성격은 자연히 천황제와 잇닿은 국수주의성격을 띠게 된다. 다시말하여 일본민족의 우수성, 유구성을 천황제로 보면서 야만적인 비문명 국가를 도와주고 《해방》시켜주는 선진국일본이라는 문화론이 지배하게 된다. 이 문화론들의 특징은 일본의 아름다움, 즉 《美》를 도출해내기 위한 문화론이다.

이러한 각도에서 후지와라의 저서군들을 살펴보면 그 당시의 문화론의 연장, 즉 부활적인 문화론의 한종류라 볼수 있다.

西洋崇拜排斥, 武士道義, 大和魂論을 강조한 鈴木力《国民の眞精神》(1893), 天皇忠義、愛国心이 국민성의 첫째가는 징표라는 芳賀矢一《国民性十論》(1907), 武士道の 深处에는 皇室이 있음을 론한 大町桂月《日本国民の氣質》(1908), 国体美로 조선사람의 同化를 주장한 芳賀矢一《日本人》(1912), 이외에도 美的死를 특징으로 한것 등이 명치시대로부터 오늘까지 끄

철새없이 나와 있다.

이러한 自民族優越感에 휩싸인 문화론들의 단편지식이 후지와라에게 영향을 주고 있음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수 있다.

일본의 美는 서양과의 만남이 출발, 즉 외부(서양)에 의한 관심이 일본의 내적 《발견(재평가라기보다 새로운 미의 창조)》이라는데 일반화된 설⁶이다. 여기서 주도적역할을 논 인물이 岡倉天心(국수주의, 복고주의적인 미학자)인데 이때(《東洋の理想》, 《日本の目覚め》, 《茶の本》)로부터 극단한 自己陶醉型美意識이 성향을 이루게 되었다고 보아진다. 물론 江戸時代に 국수주의적인 国学이 있었으나 근대사회의 도래가 대중화를 가져왔다는 분석도 가능할것이다.

여기서의 탐미대상은 大和, 古社寺, 古事記, 万葉集, 源氏物語, 能, 歌舞伎, 浮世絵, 茶道, 華道, 国学, 英雄등이다. 이는 후지와라와 自虐史觀論者들이 추구하는 미이며 이것들을 추상화하면 伝統, 文化, 古典文学, 自然, 田園, 郷土, 武士道, 道德, 情緒로 되는것이다. 결국 현대의 탐미는 지난 시기의 문화와 전통에 대한 극단한 애착이며 서양화에 의한 일본적인것의 상실에 대한 한탄으로서의 탐미로 볼수 있다.

이러한 自民族中心과 自文化主義(文化的排外主義를 내포)에 기초한 耽美的浪漫主義를 현대국어관의 셋째특징으로 볼수 있다.

2) 일본랑만파와 도이칠란드관념론의 계보

일본의 랑만주의를 논할 때 명치로부터 日本浪漫派(나아가서는 현대 三島由紀夫, 石原慎太郎)까지를 살펴보아야 하나 이 론고의 주제가 아니므로 사상적으로 현대국어론과 관련이 있는 문제(일본랑만파가 도달한 사상)에 대해서만 개론적으로 론술한다.

일본랑만파가 西田幾太郎를 중심으로 한 《京都学派》와 발맞추어 反(超克)近代기치아래 천황을 중심으로 한 파시즘으로 줄달음쳤으나 지향과 주장은 일본적경험의 특수성과 기억의 창출⁷이었다. 이는 다름아닌 탐미로 일관된 파트리오티즘(향토애, 조국애)인것이다. 일본국민은 자연계가 낳은 산물인것처럼 여기는데 이 영원한 자연이 바로 천황이라는 사상에 기초를 두고있다고 분석할수 있다. 즉 일본인은 유구한 역사를 자연에 순종하면서 살아왔으니 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 자연(존재의 근원, 천황)을 위해 목숨을 내대는것 또한 자연현상

으로 보는것이다.

일본은 근대화와 서양문명에 의해 변질되어나가는데 특히 자연으로서의 농촌(故郷, 田園)의 파괴는 곧 유구한 력사인 일본(천황)에 대한 상실(農本主義)이라고 보는데서 感傷的回顧傾向을 띠게 되며 나아가서는 이질적인것, 일본과의 대립물을 제거하려 하는 나머지 排外主義(超國家主義)가 판을 치게 된다.

橋川文三(2003)는 일본랑만파의 深層精神構造를 탐미적파트리오티즘으로 보고있으며 《현실, 력사, 미의 일체화관념》이 《耽美的現實主義의 聖三位一體》를 형성한다는것을 지적하고있다.

이것을 분석한다면 《천황제라는 國體와 더불어 시공간을 공유한 실체로서의 신성한 공동체의식》으로 볼수 있는데 후지와라의 국어관에 흐르는 사상(國柄=國體)과의 류사성을 지적할수 있을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일본특유의 皇國史觀이 형성하는 랑만주의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생각된다.

일본랑만파의 해석으론 력사는 하나의 유구한 줄거리(物語)로 되며 과거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일본(자연)을 휩싸고 돌고돈다(력사의 연속성)고 파악된다. 후지와라가 무사도의 의한 《死의 美學》으로 찬양하는 乃木希典, 三島由紀夫의 自殺도 이러한 문맥에서의 파악도 가능할것이다.

이러한 자연찬미, 故郷/田園지향은 독일관념론에서 흘러나온 독일랑만주의에서 그 뿌리의 한줄기를 찾을수 있다. 근거로는 일본랑만파의 인물(安田与重郎去)들이 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것과 경향으로서의 절대적탐미의 선구는 다름아닌 독일랑만주의이기 때문이다.

도이첼란드랑만주의는 자연, 조국, 중세를 그리워하는 感傷主義的樣相이 특징이며 18세기말부터 19세기에는 민족주의를 동반하는 탐미주의가 주류를 이루면서 언어(국어)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본랑만주의와 도이첼란드랑만주의 류사성, 공통성을 필자나름으로 추출해낸다면 ①自民族神秘主義, ②고향과 과거에 대한 哀愁, ③연속과정으로서의 추억의 재생과 현실인식으로 볼수 있다.

도이첼란드관념론은 독일랑만주의와 排外的國語觀을 산생시켰다고 보이는데 휘히테의 《도이첼란드국민에게 고함(フヒテ「ドイツ國民に告ぐ」1807年)》이 근대일본의 국어사상과 현대에 만연되고있는 배외적국어관의 뿌리가 아닌가고 필자는 분석하고있다.

본론문의 《系譜》고찰에서는 휘히테의 이 講演에서 타락된 국민도덕을 교육을 통하여 재생시키자는 의도, 국어를 통해 국민국가/민족의 테두리를 형성

하자는 론지와 신성불가침의 신비주의적언어관을 시원적 《혈맥》으로 보자고 한다.

레컨대 강연의 중심주제인 언어를 내적국경으로 보는 배외주의, 인간은 신성하고 순수한 언어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言語神秘主義, 국민문화의 우수성, 도덕성을 배양, 조국재생을 위한 교육제도의 확립 등의 觀念的理想主義는 일본의 국수주의적이며 침략적이며 동화주의(황국신민화)적인 근대일본의 국어관(사상과 실천) 확립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며 패전후 과거를 청산못한 배타적국어관이 맥맥히 이어져 2000년대에 자민족신비주의, 「再構築型文化민족주의」와 함께 부활하였다고 볼수 있다(도이칠란드경우 나치스도이칠란드에도 이어졌다는것).

여기로부터 휘히테를 중심으로 한 도이칠란드관념론의 영향하에 구축된 排外的浪漫主義를 일본 국어론의 뱃찌특징으로 분석할수 있다.

4. 일본의 근대국어와 현대국어의 창출과 사상

일반적으로 언어사용에 있어서 사람들은 지금 사용하고있는 언어(국어)의 역사를 불문하고 現在化한다는데 대해서는 이미 지적되여⁹왔으나 이로 말미암아 비과학적이며 황당무계한 국어론이 나오게 되는데 이의 전형이 최근 일본이 국가적으로 추진하려는 국어론(후지와라의 국어사상도 포함)이라 말할수 있다.

일본은 근대에 들어와서 언어사용과 규범의 표준화, 언문일치를 다그쳤으며 대만과 조선을 침략·식민지로 하여 경제적리익, 동화를 위해 국어를 정비해나갔다. 이를 위해 조선에서 민족어말살정책을 실시하였다는 사실들을 상기¹⁰할때 일본의 《국어성립》에는 피비린내가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일본의 국어에는 자연성, 동일성, 전통성이 존재한다고 보는것 자체가 국수주의적이며 심히 정치성을 띠는 언설이라 말할수 있다.

레컨대 일본에서 《国語》라는 말자체가 오늘과 같은 개념으로 고착되여 사용되기 시작한것은 청일전쟁을 전후한 시기이며 통일적인 국민과 국가의 創出을 위한 皇道主義가 본격화되던 시기¹¹라 말할수 있다. 또한 《美, 社会, 自然》을 비롯하여 현대에 씌여지고 있는 수많은 한자말들은 명치시대에 외국문(서양문물의 류입)의 번역으로 새로 만들어진 말들이다. 비꼬아서 본다면 현대량만주의국어론자들의 론지와 서적, 나아가서는 현대일본의 국어교과서 자체도

명치시대에 만들어진 번역말들이 없으면 오늘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또한 언어형성력사를 거슬러 얘기한다면 일본말은 고대조선어를 쓰던 弥生人の 영향을 빼어놓을수 없는 混合語라 하는 설¹²도 있다.

오늘날 일본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쓰여지고있는 국어교과서에는 도덕교양화된 숨겨진 사상이 깃들어있다는 예리한 분석이 있다¹³. 이에 따르면 《과거와 자연, 시골에 돌아가자》는 사상이라 한다. 이는 《마음의 공책(心のノート)》이 주입하려는 주요사상과 동일할것이다. 이것 또한 일본랑만주의 주장인 것이며 자연에 의한 민족과 언어의 신비성을 론하는 관념적인 독일랑만주의로부터의 계보로 볼수 있다.

이것이야 말로 배타적자문화주의에 기초한 《反近代, 嫌欧米社会化(후지와라의 저서에도 흐르고 있다)》이며 황국사관을 요구하는 일본식파트리오티즘(필자는 일본의 전통의식을 위주로 하는 복고주의적국수사상으로 개념풀이 한다)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사상은 개정교육기본법의 애국심조항, 国旗国歌法, 마음의 공책, 文科省, 보수계정치가들의 의향을 반영하면서 현대일본의 국어교과서, 文化審議會 国語分科会들이 《국어》를 《근대무사도정신》에로 이끌고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국어의 創出인것이다.

5. 결론

랑만주의의 계보를 통해 현대일본의 국어가 내포하는 특징을 4가지, 즉 ㄱ. 역사수정주의적국어관으로서의 공상·환상적랑만주의, ㄴ. 과거에 리상을 추구하려는 회고적랑만주의, ㄷ. 자민족중심, 자문화주의에 기초한 탐미적랑만주의, ㄹ. 독일관념론의 영향 아래 구축된 배외적랑만주의로 분석해보았다.

일반적으로 랑만주의가 어지러운 세상으로부터의 초월을 주장하면서도 그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생기지만 독일관념론의 계보로부터 발생한 독일과 일본의 랑만주의는 언어문제에 있어서 자기 민족의 유구성, 신비성, 우월성을 론하면서 국민국가의 사상 및 규범의 일체성을 강조한다.

일본경우 전통문화의 집착에로 향하며 전통문화가 가장 발휘(전통문화의 창조인바 이를 《창조형문화민족주의》라 하는 설이 있다)된 시기에로의 회기현상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그런 시기의 존재는 환상에 지나지 않으므로 랑만주의적으로 대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량만주의적인 추억이 시작된것이 바로 근대, 즉 식민지 제국주의시대인것이다. 이로 하여 일본의 국어는 근대예로의 회기를 지향한다고도 볼수 있을상 싶다.

추억과 지향은 아름다와야 하며 형식과 내용은 다른 대상과의 대비속에서 미적(樣式美)이어야 하는데 이가 바로 일본에 있어서의 탐미적국어관의 형성 원리가 아닐가.

옛 전통문화와 민족국가에 대한 회기가 他者認識이 결여된 량만으로 얼룩이 질 때 오늘과 같은 일본의 량만주의국어관이 성립하게 되며 더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국어관은 배타주의를 포함하면서 비단 언어(국어, 교육)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 걸쳐 중장기적으로 영양을 미치게 될것이 예견된다. 리유인즉 극단한 일본찬미는 国体思想(国柄)과 결부되면서 배타주의와 同化를 동반한다는것이 력사의 교훈이기때문이다.

6. 마무리 하면서

이러한 속에서 재일조선인들이 언어(국어)를 계승해나가자면 일본사회에 만연된 언어환경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 앞으로 필요할것이며 언어배외주의가 몰아오는 구체적현상에 대한 리론실천적고발과 대내외적인 여론환기가 요구될것이다.

일본에서의 민족교육의 원초적이며 궁극적인 목적은 反同化, 조선어(국어) 교육일것이다.가령 이것이 없거나 중요성에 있어서 다른 교과목의 뒤걸음이 표출된다면 민족교육 존재의 가치상실을 뜻하게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국어가 핵인 민족교육은 재일조선인들에게 있어서 조선의 말과 글 습득이 유용하다는 증명과 성공례들을 적극 창조하고 내세우고 일반화하여 조선 말과 글이 가지는 가치(지위)가 동포사회에서 패권적지위(주도권)를 획득하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리라 본다.그리고 언어(우리의 국어)에 대한 권리를 적극 주장해나가는것은 일본에서 재일조선인들이 민족어를 상실시키지 말고 계승해나가는데 있어서 유력한 수단이 될것이다. (히도쓰바시대학 대학원)

- 1 西尾幹二(『国民の歴史』1999)는 조선에서의 한글보급은 일본 식민지배의 《공헌》이라 뇌까린다.
- 2 菅野覚明 [2004]
- 3 B・アンダーソン (2004:160)
- 4 斉藤正二『日本人とさくら』 (1980)、大貫恵美子「ねじ曲げられた桜」(2003) 등
- 5 斉藤正二『「やまとだまし」の文化史』 (1972) 참조
- 6 神林恒道 (2006 : 6、47)
- 7 케빈・마이클・도크 (2001 : 14、21)
- 8 吉野耕作「文化ナショナリズムの社会学」 (1997、名古屋大学出版会)
- 9 田中克彦 (1987 : 139)
- 10 이・윤스크 (1996) 참조
- 11 上同書86페이지
- 12 朝日新聞 (05、2、21) 梅原猛「反時代的密語」、宋敏 (1999) 「韓国語と日本語のあいだ」 (野間秀樹 他訳) 草風館 등
- 13 石原千秋 (2005)

참고문헌

- B. アンダーソン (2004) 『想像の共同体』白石さや・白石隆[訳]NTT出版
 家永三郎 (2005) 『戦争責任』岩波現代文庫
 이・윤스크 (1997) 「「雜居」への恐怖」『現代日本文化論7 体験としての異文化』岩波書店
 이・윤스크 (2004) 『国語という思想』岩波書店
 植田晃次・山下仁[編] (2006) 『「共生」の内実』三元社
 石原千秋 (2005) 『国語教科書の思想』ちくま新書
 岡本雅亨[監修・編著] (2005) 『日本の民族差別』明石書店
 長志津絵 (2002) 『近代日本と国語ナショナリズム』吉川弘文館
 糟谷啓介[編] (1997) 『ライブラリ相関社会科学4ー言語・国家、そして権力』新世社
 糟谷啓介[編] (2002) 『言語帝国主義とは何か』藤原書店
 姜尚中 (2004) 『反ナショナリズム』教育資料出版
 姜尚中 (2004) 『オリエンタリズムの彼方へ』岩波現代文庫
 神林恒道 (2006) 『近代日本「美学」の誕生』講談社学術文庫
 菅野覚明 (2004) 『武士道の逆襲』講談社現代新書
 菅野覚明 (2001) 『神道の逆襲』講談社現代新書

- 琴秉洞（1999）『日本の朝鮮侵略思想』朝鮮新報社
- ケビン・マイケル・ドーク（2001）『日本浪漫派とナショナリズム』小林宣子[訳] 柏書房
- 駒込武（2004）『植民地帝国日本の文化統合』岩波書店
- 子安宣邦（2004）『「アジア」はどう語られてきたか—近代日本のオリエンタリズム』藤原書店
- 斉藤毅（2005）『明治のことば』講談社学術文庫
- 斉藤弘夫（2006）『神国日本』ちくま新書
- 高橋伸欣（2001）『教育勅語と学校教育』岩波ブックレット174
- 高橋哲哉（2004）『国家と教育』講談社現代新書
- 高橋哲哉[編]（2002）『「歴史認識」論争』作品社
- 田中克彦（1987）『ことばと国家』岩波新書
- 田中克彦（2003）『言語の思想』岩波新書
- 谷川渥（2000）『三島由紀夫の美学講座』ちくま文庫
- 千本秀樹（2003）『天皇制の侵略責任と戦後責任』青木書店
- 鄭敬謨、高橋哲哉 他（2006）『アジア侵略思想のルーツ、近代日本の歴史認識を問う』九条の会・さいたま
- 鶴見俊輔（2001）『戦時期日本の精神史—1931～1945』岩波書店
- 中村政則（1998）『近現代史をどう見るか—司馬史観を問う』岩波ブックレット427
- 中村紀久二（2001）『教科書の社会史』岩波新書
- 永原慶二（2001）『「自由主義史観」批判』岩波ブックレット505
- 橋川文三（2003）『日本浪漫派批判序説』講談社文芸文庫
- 松本建一（2001）『竹内好「日本のアジア主義」精読』岩波書店
- 丸山真男（2006）『日本の思想』岩波新書
- 丸山真男・加藤周一（2004）『翻訳と日本の近代』岩波新書
- 三宅晶子（2005）『「心のノート」を考える』岩波ブックレット595
- 南博（2006）『日本人論—明治から今日まで』岩波現代文庫
- 宮田光雄（2005）『ナチ・ドイツと言語』岩波新書
- 安田敏朗（1997）『帝国日本の言語編成』世織書房
- 山田朗（2001）『歴史修正主義の克服』高文研
- 柳父章（2003）『翻訳語の倫理』法政大学出版局
- 柳父章（2003）『翻訳語成立事情』岩波新書

2007년 공동사설의 전반적특징과 올해의 위치

1.올해 공동사설의 전반적특징

1)공동사설의 전반적특징과 기본정신을 파악함에 있어서 제기되는 문제 (Key word)

①시대,년대가 달라졌다는것 (하나의 력사의 분수령을 맞이하였다) 이다.

2006년-사회주의강성대국의 려명이 밝아온 위대한 승리의 해, 격동의 해였다고 총화 (나라의 지위가 당당한 강국 <정치군사강국> 의 높이에 오르고 민족의 존엄이 힘있게 펼쳐진 때는 없었다는 최상의 평가)

[내용]-핵억지력의 확보=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불패의 국력을 마련

*핵억지력의 확보에 대한 리해

-강성대국건설의 전환적국면이 열린 궁지높은 해=일심단결 강화, 경제부분에서는 새 비약의 발판을 마련 (정치, 경제적측면)

***핵억지력의 확보**는 조미대결전의 총결산을 의미 (통장훈) 할 뿐아니라

①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에 총력량을 집중할수있는 조건의 마련과 ②미국의 대조선정책을 변경시키고 조국통일의 결정적국명을 열어놓게 되며 ③일본의 대조선, 대재일동포정책의 근본적전환을 가져옴으로써 재일동포들을 둘러싼 환경에서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며 ④넓은 국제질서를 변경시켜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자주화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게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전쟁억지력은 전인민적방위체제의 총체로 리해하여야 한다)

1/1 통일뉴스 《북 공동사설, 무엇을 담고있는가?》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첫째, 91년 소련 붕괴로 미국주도의 일극질서가 수립된 이후 2006년 북이 핵, 미싸일을 통해 국제력학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다는 상황 인식에 기초하여 둘째, 내부 경제건설, 조국통일, 한반도 주변정세를 그에 맞게 바꾸어가겠다는 방침이라고 볼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2007년-선군조선의 새로운 번영의 년대가 펼쳐지는 위대한 변혁의 해라고 규정

*사설은 《새로운 력사적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년대는 조국번영의 전면적개화기를 열어나가는 보람찬 년대, 위대한 번영의 시대》라고 규정하였다.

한마디로 말하여 10월9일, 2006년을 기점으로 공화국이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는 새로운 시대, 사회주의경제건설과 통일강성대국건설을 전면에 내세우고 실현하는 새로운 투쟁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1), 2)를 참조

②선군과 강성대국이다.

이는 이번 공동사설에 관통되어있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신념과 결심, 기본 정신이다. (선군으로 수령님의 부강조국건설구상을 실현하려는것)

다시말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올해 공동사설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선군혁명령도업적을 빛나게 계승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부강조국건설구상이 더욱 활짝 꽃피나는 해로, 온 나라가 흥성거리는 해로, 선군혁명의 불패성과 양양한 전도를 시위하는 해로 만들겠다는 결심을 밝히신 것이다.

*오늘의 투쟁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부강조국건설위업, 선군혁명위업의 계속이며 새로운 높은 단계이다는것을 놓치면 안된다.

《선군혁명의 길에 강성대국건설도 조국통일도 있고 주체혁명위업의 승리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기초하여 문제를 보아야 한다. (경제강국건설을 전면에 내세웠다고 하여 선군을 약화시키는것은 아니다)

*이미 장군님께서서는 2004년의 공동사설이후 강성대국건설전략과 전망에 대하여 명시하고계신다. (구상은 98년 5월에 제기)

2004년 공동사설-강성대국건설을 전면적으로 다그치는 격동적인 시대에 들어섰다는것을 선포 (94년이후의 10년력사를 총화한데 기초)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받들어 조국번영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라는 구호밑에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공세를 벌릴것을 제기 (이해 사설에서 처음으로 일대 전성기라는 표현이 나옴=2004년을 력사의 기점으로 보는것이 타당하다)

2005년 공동사설-선군혁명총진군의 개시를 선포

*선군혁명총진군은 이 땅위에 흥성거리는 선군조선의 희한한 현실을 안아오기 위한 장엄한 진군이라고 규정 (2005년은 강성대국건설의 년대기에 〈위대한 전환의 해〉로 아로새겨졌다고 규정)

2006년 공동사설-새로운 비약을 위한 전면적공세에로 넘어갈것을 천명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일대 비약의 해, 전면적공세의 해=선군

조선의 찬란한 개화기, 우리 식 사회주의의 일대 전성기를 마련하는 비약기를 열어나가겠다는 결심을 밝히심. 동시에 수령님의 탄생 95돐을 선군시대의 개화기, 우리 식 사회주의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놓는 성과를 가지고 빛내일 데 대하여 지적.

2007년 공동사설—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할수 있는 모든 조건이 마련된 현실 또한 나라의 지위가 당당한 정치군사강국의 높이에 오르게 된 현실에 기초하여 새로운 단계의 강성대국건설목표인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과 통일강성대국건설의 설계도를 밝히신것이다.

*참고자료 3)을 참조

③경제와 통일이다.

이는 강성대국건설전략실현을 위한 당면 주력과업이다.

경제강국건설=사설에서는 경제강국건설에 국가적힘을 집중할것과 이는 최우선과제라는것을 지적하였다. (강성대국의 면모를 전면적으로 갖추기 위한 일대 공격전을 벌려나갈것을 제기)

그러면서 경제강국건설의 주되는 과업은 인민생활을 빨리 높이는데 선차적힘을 넣으면서도 경제의 현대화를 위한 기술개선을 다그치고 그 잠재력을 최대한 발양시키는것이라고 지적한 다음 주체적인 경제사상과 리론, 방침을 지침으로 삼는 문제, 자력갱생(경제건설의 투쟁방식), 과학중시로선관철을 중요하게 강조

*로동신문 1/4 《경사스러운 올해를 자랑스러운 승리와 위훈으로 빛내이자》에서는 올해는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사에 전화적국면이 열려지게 될 희망찬 해, 경제강국건설의 새로운 년대가 시작되는 해라고 지적*기타 로동신문 1/6 《올해 총진군의 주되는 과업》, 1/7 《자력갱생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변함없는 투쟁방식》, 1/8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을 위하여 총진격 앞으로!》—우리 식으로 경제강국을 건설할것을 강조

통일강성대국건설=사설에서는 《통일의 서광이 밝아오고있다》, 《자주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자》고 지적하면서 우리 대에 통일을 이룩하려는것은 장군님의 확고부동한 의지라는것을 강조하고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으로 6.15통일시대를 빛내여나가자!》라는 구호와 구체적과업을 제기하였다.

*공동사설에서 통일강성대국이란 말은 처음으로 언급하였다. 이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은 궁극적으로는 통일강성대국건설 이다는것,또한 이번 사설에서 자주통일의 전성기라고 표현한것을 넘두 에 둘 때 새로운 단계의 강성대국건설목표를 제기하였다고 파악할수있 다.

*로동신문 1/4 《〈우리 민족끼리〉 기치높이 자주통일위업의 전성기를 펼쳐나가자》 1/11 《민족중시의 립장은 자주식과 애국심의 발현》

*참고자료 4),5)를 참조

2)올해 공동사설의 전반적특징

올해 공동사설은 《승리의 신심드높이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 자》라는 제목을 통하여 알수 있는바와 같이 종래의 공동사설과는 류달리 다 른 사설이라고 할수 있다. (사설제목에서 일대 전성기라고 한것은 처음)

다시말하여 올해 공동사설은 새 시대, 새 단계의 경애하는 장군님의 웅대한 부강조국건설설계도이며 특히는 강성대국의 려명이 밝아온 이땅우에 선군 (우 리 식) 으로 사회주의경제강국, 통일강성대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워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의 결 정체라고 할수 있다.

한마디로 이번 공동사설은 새 시대, 새 단계의 전략적목표를 제시한 력사적 인 공동사설이라는데 그 지위와 기본특징이 있다. (당대회와 맞먹는 공동사 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올해의 위치

①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새로운 변영의 년대가 펼쳐지는 위대한 변혁의 해이며 위대한 수령님의 부강조국건설구상이 더욱 활짝 꽃피나는 해,온 나 라가 흥성거리는 해,선군혁명의 불패성과 양양한 전도를 시위하는 해

*로동신문 1/5 《올해 들고나가야 할 투쟁과 전진의 구호》

구호에 깃든 사상과 의도를 ①위대한 수령님께서 열어주신 길을 따라 내 나 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여 수령님의 부강조국건설업적을 끝없이 빛내 이려는 우리 당과 인민의 신념과 맹세②선군혁명의 민족사적승리와 성과에 토 대하여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에서 일대 비약과 혁신을 일으키려는 천만군민의 강렬한 지향과 애국의지라고 지적

그러면서 《경제문제만 풀면 우리 나라는 강성대국의 위용을 높이 떨치고 우

리 인민은 세상에 부럼없는 가장 행복한 인민으로 되게 될것이다》라고 지적

*기타 자주민보 1/4 《북, 공동사설 경제중심의 배경과 전망》

②통일의 서광이 밝아오고,자주통일의 전성기가 열리는 해

*로동신문 1/4 《〈우리 민족끼리〉 기치높이 자주통일위업의 전성기를 펼쳐나가자》

*자주민보 1/5 《6.15의 정신, 우리 민족끼리는 확고한 대세》 한국민권연구소 발간 《정세동향》에서는 《2007년은 미국과의 최후대결전을 통해 이룩된 성과를 바탕으로 대미총결산을 마무리 할 결정적국면으로 들어선 해로, 우리 민족이 그 어느 해보다 사뭇 각별한 의미를 갖고 맞이하는 해다.》고 지적

③제국주의자들의 힘의 정책과 강권은 실패을 면할수 없으며 자주를 지향하는 인민들의 투쟁,현시대의 기본흐름은 결코 가로막을수 없다는것을 더욱 뚜렷이 보여주는 해라고 할수 있다.

*로동신문 1/3 《자주에로 나아가는 현시대의 기본흐름은 막을수 없다》, 1/5 《뭉치면 강자가 되고 흩어지면 약자가 된다》

총체적으로 보면 올해는 부강조국건설위업, 강성대국건설구상실현에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첫해라고 할수 있다.

△참고자료

1)2006년에 대한 평가 (강성대국려명이 밝아왔다는데 대하여)

*6/13 로동신문 정론 《우리는 보란듯이 이렇게 락원을 세운다》

평안북도에서 일어난 전변을 두고 〈조국이여, 인민이여, 사회주의승리의 광명한 미래가 눈앞에 왔다〉고 지적

*7/5 로동신문 론설 《선군정치는 우리 식 사회주의위업승리의 위대한 기치》에서 〈오늘 선군정치의 조국으로 존엄떨치는 내 나라, 내 조국의 하늘가에...사회주의강성대국의 려명이 찬연히 밝아오고있다〉고 처음으로 지적

이후 7/20, 8/11, 8/16 등 로동신문의 사, 론설들에서 〈려명〉이란 말이 빈번이 나오게 됨

*로동신문 9/8 정론 《려명이 불탄다》 = 3가지 체계로 전개

-신념은 미래를 본다

-려명은 태양의것, 태양의 힘의 분출

-혁명은 신념이고 신념은 혁명

중요-물러가는 고난과 밝아오는 행복, 조국은 이 운명적인 두력사의 분수령에 서있다.

-승리가 눈앞에 왔다는것 (고난의 천리를 가면 행복의 만리가 온다 = 일시적고비를 넘긴것이 아니라 새 단계, 새 시대를 맞는 그런 승리가 눈앞에 왔다)

-오늘의 려명은 강성대국려명이며 신념으로 보는 려명이다. 이제 승리와 행복의 쌍복이 왔다는것을 지적

*로동신문 12/16 《선군으로 빛나는 승리와 영광의 해》

《올해는 우리 공화국이 선군조선의 존엄과 위력을 만천하에 떨치며 민족의 존엄과 안녕을 지키고 세계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도 기여한 역사적인 해》, 《10월9일은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새로운 일대 전환을 가져온 위대한 승리의 날, 강력한 자위적억제력을 보유한 민족의 슬기와 영광의 상징적인 날》이라고 규정

*로동신문 12/20 《조국의 위용을 높이 떨친 승리의 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강성대국려명에 대하여 요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난관과 시련의 마지막 어둠을 밀어내는 승리의 동이 터오고있습니다.

...우리 인민들이 것처럼 어려운 시련을 겪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후과를 완전히 가셔버리고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락원에서 온 세상에 소리치며 잘 살게 될 날이 가까와오고있습니다. 머지 않아 우리의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위업은 반드시 실현될것입니다. 선군정치의 승리의 날은 멀지 않았습시다. 우리가 선군정치의 승리에 대한 신념을 잃지않고 시련을 이겨내면서 투쟁하여온것은 정말 역사에 길이 빛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로동신문 10/24 《백전백승의 기치》

《올해는 김일성조선의 역사에 특기할 선군승리의 해로 빛나고있다.》, 《이해에 우리는 이겨도 크게, 통쾌하게 이겼다, 반미대결전에서 최후의 통장훈을 부르는 장엄한 우뢰소리로 천하를 흔들어놓고 우리를 건드

리는 침략자는 무자비하게 징벌하고야말 조선의 기상,조선의 각오,조선의 배짱을 남김없이 피시하였다》고 규정

*로동신문 12/26 《선군조선의 앞길에 휘황한 전망을 펼친 비약의 해》

《올해는 주체의 부강조국건설위업이 보다 높은 발전궤도에 올라서고 조국과 민족의 앞길에 끝없이 휘황찬란한 전망이 펼쳐진 일대 비약의 해》, 《올해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밑에 정치, 군사,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일대 전환을 이룩하고 조국번영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놓았다》고 규정한데 기초하여 정치, 군사, 경제, 문화분야에서 이룩된 성과를 정리

2)10월9일의 핵시험은 어떤 의의를 가지는가?

—10월9일의 핵시험으로 우리 나라는 초핵강국의 지위에 올라서게 되었다.

이번 공동사설에서는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불패의 국력을 갈망하여 온 우리 인민의 세기적숙망을 실현한 민족사적경사》 《그 어떤 원썬들의 핵전쟁위협과 침략책동도 단호히 짓부시고 사회주의조국을 끄떡없이 지켜낼수 있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우리의 전쟁억제력은 동부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자주위업의 승리적전진을 담보하는 강력한 힘으로 되고있다고 하였다.

*초핵강국인란?

세계적으로 보면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9개나라이며 우리 나라는 9번째의 핵보유국이 되었다.

그렇다고 하여 9번째가 아니다. 또한 핵보유 4강대렬에 들어선것도 아니다. 핵보유 3강 (미국,소련,중국) 을 뛰어넘은 초핵강국으로 된것이다. 초핵강국은 미사일+핵무기+핵방위 (지하갱도화) 력까지 지닌 나라이다.

*우리 나라는 특유한 성격을 띤 초핵강국이다.

- ①세계적인 핵무기폐기를 전면에 내세운 핵무기보유국
- ②핵무기를 자기 나라의 폐권적지위의 유지나 확대에 리용하는것이 아니라 세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쓰는 핵무기보유국
- ③대국중심의 세계질서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확고한 의지와 힘을 가진 핵무기보유국

—우리 나라가 초핵강국으로 된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①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이제는 경제강국건설에 총력량을 들리수있게 되었다.

*보도에 의하면 10/10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핵시험성공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이제 우리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추진시켜야 하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선것만큼 앞으로는 경제사업에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고 한다.

*조선신보 12/13 〈조선의 선군정치로선이 핵실험의 실시로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은 후 국내에는 새로운 여론과 정서가 조성되고 있다.〉고 하면서 〈강력한 전쟁억지력은 오히려 평화적경제건설의 조건을 마련하고 다음은 인민생활이라는 기대와 락관을 확산시키고있다〉고 지적하였다.

②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자주평화통일의 결정적국면을 열어놓았다.

*우리 나라가 초핵강국으로 된것은 곧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파탄을 의미하며 그것은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실현하는 결정적국면이 열리게 된것을 의미한다.

③미국의 일방주의,군사주의 그리고 미국중심의 국제정치구도를 허물어버리고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는 결정적국면을 열어놓았다.

*베이징에서 2006년 12/18~22일에 걸쳐 6자회담이 진행되었다. 회담은 공화국과 미국의 지위가 완전히 역전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참고 자주민보 1/2 《2007년 북의 대미전술목표는 무엇인가?》

1/8 《2007년 정세잔망과 반미반전운동의 과제》 (박경순)

《지난 한해동안 국제정세에서 발생했던 수많은 사변들은 오늘날 전 세계 민중들의 반제자주력량의 힘과 미제국주의세력의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고 단결해 투쟁한다면 제국주의세력과 투쟁에서 얼마든지 승리를 쟁취할수 있다는것을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지난 해 발생한 일련의 사변들은 력사발전의 기본흐름에서 리탈한 일시적 우연적현상이 아니라 오늘날 력사발전의 기본흐름의 집중적표현으로 향후 더욱 가속화될것이다.》고 지적

3)경애하는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령도

. 즉 이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의지 천명과 유훈관철에로 조직동원
(1994.7~95.12)

—1994.10/16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노래에도 있는것처럼 우리는 수령님의 유훈을 지켜 조국을 더 부강하게 건설하여야 합니다. 나라를 더 부강하게 하여야 우리의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일 수 있고 조국통일위업도 앞당길수 있습니다.》

—1994.10/28 감사문과 1995.1/1 친필서한

내 나라, 내 조국을 부강하게 만들기 위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싸워나갈 것을 호소

—1994년 11월 1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발표

—1994.12/31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자》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는것은 수령님의 뜻이었으며 위업이었습니다.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려는것은 나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1995.1월이후 선군정치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펼쳐나가심

△ 《고난의 행군》과 사회주의강행군 (1996.1~98.12) 강성대국건설의 도약대 마련

—1995년 8월의 자연재해와 겹쌓인 난관을 뚫고나가기 위해 《고난의 행군》을 단행할것을 결심

—사회주의 강행군 1998.1/1 《나는 올해를 우리 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한 강행군의 해로 정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1998.5/12 강성대국건설구상을 천명

《우리가 말하는 강성대국이란 사회주의강성대국입니다. 국력이 강하고 모든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사는 나라가 사회주의강성대국입니다.》 =사상, 정치, 군사, 경제, 문화강국

—1999.5 《우리가 몇해동안 간고한 투쟁을 벌려 부강조국건설의 튼튼한 도약대를 마련한 조건에서 강성대국을 건설하는것은 가까운 앞날에 실현할 수 있는 일이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 (1999.1~)

—1999.1/1 공동사설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

자》=강성대국건설구상을 전면적으로 실현해나가는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선포

-1999~2003년-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

-2004~2006년-강성대국건설의 전면적투쟁시기,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놓기 위한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섬 (정치군사강국의 지위에 올라섬, 경제강국건설의 토대 마련)

-2007년-강성대국건설구상실현의 최종단계인 사회주의경제강국, 통일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새로운 시대, 새로운 투쟁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선포

4)사회주의경제강국에 대하여

*로동신문 1/9 《경제강국건설은 우리 혁명과 사회발전의 절박한 요구》

《우리의 정치사상진지와 군사력이 튼튼히 다져진 조건에서 이제 경제문제만 풀면 강성대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습니다.》

선군시대 경제건설은 해방후 시작된 부강조국건설위업의 새로운 단계에서의 경제강국건설투쟁이라고 지적하면서 오늘 우리가 벌리고있는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투쟁은 ①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자립성과 주체성이 철저히 담보되는 강력한 민족경제 ②모든 부문이 현대화, 정보화되고 생산과 경영활동이 과학화되어있는 경제 ③인민들에게 남부러운것 없는 유족한 물질문화생활조건을 충분히 보장할수 있는 경제력을 갖추기 위한 투쟁이라고 규정하였다. (경제강국의 징표)

그러면서 새 세기에 맞는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목표를 제기하고 실현하려면 전제조건이 갖추어져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①정치사상적진지가 공고화 ②강력한 군사력이 튼튼히 마련 ③경제강국건설의 정확한 로선과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 ④경제강국건설을 밀고나갈수 있는 준비된 역량으로 규정하였다.

*로동신문1/12 《우리 당의 주체적인 경제사상과 강성대국건설》

《경제강국은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전하고 그에 토대하여 인민경제가 현대화, 정보화된 나라》라고 지적하였다,

5)통일강성대국의 징표

통일강성대국이란 첫째로,그 어떤 외세의 지배와 예속도 허용하지 않은 자주적이며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강국을 말한다.

※이러한 견지는 우리를 군국주의에 대한 매우 효과적인 리해에로 이끌어 준다외세의 지배와 예속을 허용하지 않은것은 민족자주의 리념을 구현하기 위한 근본요구이며 민족의 구성원들의 운명을 수호하는 통일국가로서의 본연의 요구이다.

또한 그러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국가형태, 성격은 자주적이며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나라로 존재하는데 있다.

통일강성대국이란 둘째로,민족구성원들의 공동의 요구와 지향을 원만히 해결하는 정치,경제,군사,문화적담보를 그쁘히 갖춘 범민족통일강국을 말한다.

통일국가는 그 어떤 계급이나 계층의 요구와 리익을 대표하고 실현하는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두 제도, 두 정부를 그대로 두고 각당,각파,각계각층의 모든 민족구성원들의 요구와 지향을 대표하고 실현하여야 한다.

또한 통일국가가 민족구성원들의 공영,공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나라의 국력이 강해야 한다.

이로부터 통일강성대국은 응당 강한 국력을 갖춘 범민족통일국가로 되여야 한다.

金 甲 生

大阪市生野区鶴橋 5 - 7 - 2
TEL 06 (717) 9262

権 英 淑

〒320-0051
栃木県宇都宮市上戸祭町 42 - 30
TEL 0286 (24) 6066

U-ri信用組合

本店

〒060-0042 札幌市中央区大通西 12-4-70

電話：011 (218) 3000<代表>FAX：011 (218) 3100<代表>

011 (218) 3001<営業部> 011 (218) 3300<営業部>

苫小牧支店

〒053-0017 苫小牧市栄町 3-5-10

電話：0144 (34) 7271 FAX：0144 (36) 8340

旭川支店

〒070-0036 旭川市 6 条通 7-31-9

電話：0166 (23) 2611 FAX：0166 (23) 2614

釧路支店

〒085-0035 釧路市共栄大通 5-2-13

電話：0154 (25) 1720 FAX：0154 (25) 1730

岩手支店

〒020-0062 盛岡市長田町 6-4

電話：019 (623) 7321 FAX：019 (623) 7325

秋田支店

〒010-0002 秋田市東通仲町 2-12

電話：0188 (33) 4131 FAX：018 (832) 5126

福島支店

〒963-8002 郡山市駅前 1-14-20

電話：024(932)5350 FAX：024 (932) 5372

青森支店

〒030-0862 青森市古川 2-21-4

電話：0177-76-4311 FAX：0177-76-4819

宮城支店

〒980-0022 仙台市青葉区五橋 1-5-1

電話：022-225-4416 FAX：022-225-4428

사회과학논문집 제 19 호

편집발행	在日本朝鮮社会科学者協会 中央常任理事会 〒 112-8603 東京都文京区白山 4-33-14 TEL/FAX 03 (3816) 4335 e-Mail sahyob@iris.ocn.ne.jp
발행날자	2007 년 3 월 20 일
제 작	朝鮮青年社
